JUN 7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ONTARIO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839 1982년 6월2일(수)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Wednesday, June 2,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인 쇄 인 : 박 정 서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불루어에 한국계은행 등장

◆31일 불루어거리에 지점을 오픈한 외환은행 (원내)지점장 김남수씨

첫날부터 고객몰려 영업시간 연장

캐나다 이민 20년을 바라보는 5월31일 한인상점이 집중한 불루어상가에 캐나다 한국외환은행(Korea Exchange Bank) 불루어지점이 처음 문을 열었다.

개점 첫날부터 40여명의 고객이 몰려 불루어지점은 개업성시-영업시간을 하오 4시까지 1시간 연장했다.

김남수지점장은 "교민들의 성원이 이렇게 클줄 몰랐읍니다. 더욱 분발, 교민들의 발전을 위해 공헌하는 금융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읍니다"고 다짐했다.

주소는 627 불루어·스트릿·웨스트(유크릿과 파머스톤 사이: 서울여행사옆, 음식점 한국관 건너편), 전화는 533-8593. 같은 건물 2층에 온타리오실업인협회가 있어 이 부근은 더욱 붐빌것이 예상된다. 주차장은 지점 뒷편(남쪽), 불루어·스트릿의 미터·파킹, 또는 유크릿·애비뉴쪽 시영주차장.

영업시간은 보통 캐네디안 은행과 같으나 토요일도 문을 연다.

월~목요일 10시~하오3시
금요일 10시~하오6시
토요일 10시~하오2시

오는 8일 상오 11시30분 개점식을 가지며 이날 하오6시 리셉션이 있다.

최승낙캐나다외환은행장 은행협회 집행위원 피선

캐나다외환은행장 최승낙씨가 캐나다 소재 외국은행협회 집행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31일 선출됐다.

캐나다내 총 50여개 외국은행 대표중 아시아계 3명, 유럽계 3명, 미국계 3명등 총9명의 상임위원을 가진 외국은행 집행위(The Executive Committee of Foreign Banks in Canada)는 캐나다내 외국은행의 제반문제를 다루며 캐나다정부에 금융정책등을 건의하는 기구이다.

군수송기 추락 53명사망
성남시상공, 사고원인 발표안해

(서울1일=외신종합)53명의 군인을 실은 한국군 수송기가 서울 남쪽의 성남시 서쪽 4.2마일 지점에서 추락, 전원 사망했다고 31일 국방부 대변인이 발표했다.

이날 하오 2시40분께 공군 승무원 4명과 공정대 49명을 포함한 53명을 태운 군수송기는 낙하할 지점으로 향하기 위해 이륙한 후 추락했다고 국방부 대변인이 말했다.

군대변인은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에 발표된다고만 밝히고 사고원인은 언급하지 않았다.

흑백 TV등수입 자유화
한국, 우수한 국산품 우선

(서울31일=연합)한국정부는 31일 167개 품목을 수입자유화하고, 25개 상품을 수입규제 품목으로 추가했다. 이로써 한국의 수입자유화율은 현재 74.7%에서 76.7%로 상승했다.

정부는 또 수출규제 품목을 236개에서 212개로 줄임으로써 수출자유화율이 76.7%에서 79%로 상승했다.

상공부가 발표한 167개 수입제한철폐 품목 대부분은 이 국제경쟁에서 뒤지지 않고 수입을 규제하더라도 국산품에 실질적 영향을주지 못 하는 종류들이다.

수입자유화 품목중에는 9인치이하의 흑백TV, 재고기계부속품, 수공업섬유 및 공업용 다이아몬드와 귀금속류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25개 수입규제품목에는 아속실린, 톨루엔, 1600마력이하의 디젤엔진 및 구리생산품과 필터등이다.

북한정치범 구제 1천만명 서명운동

(서울1일=연합)한국은 북한강제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정치범들의 석방을 위해 1일 전국적으로 1천만명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서울에서는 덕수궁근처, 명동및 시내 곳곳에 설치된 107곳의 서명소에 아침8시부터 시민들이 서명을 시작했다.

이진희 문공부장관은 아침10시10분경 "북한강제수용소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구출하자"라는 띠를 허리에 두르고 덕수궁앞에 나타나 서명했다.

이문공은 북한서 고통을 당하고있는 정치범구출을 국민양심과 세계여론에 호소하고자 이같은 운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한국정부는 과거 여러번 "남한에는 정치범이 없다"고 주장했다.

총리해임안 부결
헌법상 1년내 사임못해

(서울 31일=연합)국회는 29일 야당인 민한당과 국민당및 의정동우회가 제출한 총리해임 권고안을 현 헌법상 「재임 1년내의 총리는 권고사퇴시킬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부결시켰다.

유창순 총리 해임권고결의안은 28일 하오 야당의원 121명의 이름으로 제출됐다.

한국 제일은행 여행자수표 발행

(서울1일=연합)한국의 제일은행은 미국 유수의 크레딧·카드회사인 매스터카드(Master Card)와 제휴, 한국에선 처음으로 1일 여행자수표(Traveler's Cheque)를 발행했다.

제일은행의 여행자수표는 미화로 액면가격 $10, $20, $50 $100및 $500로 팔린다.

매스터카드와의 계약으로 이 수표는 119개국의 10만9천개 영업소에서 통용된다.

한국의 다른 시중은행들은 아메리카은행(Bank of America)과 같은 외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여행자수표를 판매하며 이 수표는 한국외환은행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히말라야 등정 성공
대한산악회 회영호씨

(서울31일=연합) 한국의 회영훈(28)씨가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히말라야의 마칼루(8,431m)산 등정에 성공했다고 지난주말 이곳에서 발표됐다.

등정대장 함탁용(44)씨가 대한산악회에 전한 보고서에 의하면 회씨와 2명의 네팔인 세르파는 지난27일 「검은 장다름」(산능뒤의 뾰쪽한 바위봉우리)이라고 알려진 얼음으로 덮힌 오우버행(경사90도이상의 암벽)에서 전에 개척되지 않은 루트를 선택 10시간동안 강풍과 싸우면서 정상을 공격했다.

그들은 강풍이 부는 정상에 로우프를 메고 40분간 머물렀다.

이번 등정은 54년 프랑스 등정대가 처음 마칼루를 정복한이래 9번째에 등정, 성공됨이다.

16명으로 구성된 등정대는 지난2월11일 네팔을떠나 3월30일 해발4,700미터에 베이스캠프를 설치했다.

한국, 올림픽유치 기념 코인 250만개 발행

(서울31일=연합)한국은 오는 9월30일부터 올림픽서울유치 1주년기념으로 250만개의 코인(주화)를 판매할 예정이라고 올림픽준비위원회가 31일 밝혔다.

서울은 작년 9월30일 서독 바덴·바덴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일본 나고야를 물리치고 88년 올림픽후보지로 선정됐었다.

소식통은 2백만개의 코인은 개당 1천원에, 30만개는 1만원에, 20만개는 2만원에 각각 팔릴것이라고 말하며 이중 1만원, 2만원짜리 코인은 은으로 주조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과 서울올림픽위원회는 오는 8월15일부터 9월15일 한달간 주문을 받으며 1인당 주문량은 10개 이내이다.

대통령살해 음모사건 청문회속개
야노버등 피고출정, 재판기록 비공개

전대통령 암살음모사건의 예비청문회(Preliminary Hearing)가 31일 아침 온타리오지방법원에서 시작됐다.

피고들의 변호인측 요구에 의해 재판내용 발표가 금지된 동재판에는 지난 27일 보석으로 풀려난 주혐의자 촬스·야노버(36), 3월에 보석으로 풀려난 마이클·제롤(31)등이 출두했다. 공범으로 수배중인 최중화와 클레거멘은 불참했다.

재판을 31일과 6월1일및 4일 1차 예비청문회를 끝내고 8월로 넘어가 8월초순, 하순 9월초까지 속개된다.

예비청문회에서는 검찰측의 증인과 모든 증거물이 제시된다.

지난 31일의 청문회에는 주범 야노버의 애인이었던 크리스틴·반즈가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속개된 청문회에서는 야노버등이 비엔나에서 거사자금을 건네 받은후 투숙했던 곳으로 알려진 네델란드 암스텔담 근무 고위경찰관 앙드레 임멀과 야노버가 묵었던 호텔의 종업원 세이찌·이도우씨가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에는 사건을 처음 경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진 야노버의 전변호사 얼·레비씨의(현변호사 : 어윈코츠브로스키) 증언이 있었으나 레비씨는 증언대에서 「피고의 증언을 보호할 변호사의 권리」를 내세워 방청객이 퇴정한 후에야 비공개로 증언했다.

전대통령 암살음모사건은 미시사가 거주 최중화(28)씨와 국제범죄조직의 일원이었던 야노버등이 공모, 북한의 거사자금으로 음모를 꾸몄다고 지난 2월24일 캐나다연방경찰이 발표했었다.

야노버의 보석금은 무려 40만달러였다.

◆보석으로 풀려난 야노버

◆수배를 당한 최중화

—제1회 한국일보—
어린이야구(소프트볼) 대회
1982년7월3일(토) : 코로네이선파크

오늘의 예금금리

종 별	기 간	신용조합	일반은행
정기예금	30일	14.5%	13~13.5%
	90일	15.25%	13.75~14.5%
	180일	15.5%	13.75~14.75%
	365일	15.75%	14.75~15.25%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 : 533-9387~8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랙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각종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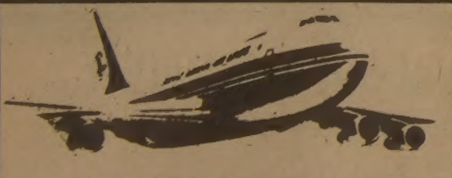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캐나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제일여행사

■ 모국방문 특별요금
KAL(뉴욕 또는 LA 경유)
CP, JAL(VANCOUVER 경유)
■ 국내, 국제 항공권 일체
■ 각종단체 관광요금
■ 여권, VISA 수속 서비스
■ 방문초청, 이민초청
(제반수속 안내및 작성)
(B)535-2377
(R)366-0864

649A BLOOR ST. W.
유지원
신용목

IATA
특별할인봉사
○ 서울단체 매일출발
○ 방문초청 특별요금
이제는 친구및 3촌이상 친척까지 초청의 문호개방.
단 : 항공료와 체재비 부담조건
○ 구라파 9개국관광 20일간 $1,600
출발 82.7.22
○ 국내, 국제항공표 일체
신세계 NEW WORLD TRAVEL
봉사와 개척의 여행사
김창범
712 Bloor Street West,
Toronto M6G 1L4
536-2155·2156
R) 492-7525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왜곤, PARISIENNE, LESABRE, ELESTRA, PARK·AVENUE, 벤트러, USED·CAR
◎차종류에 따라 Cash Rebate(Bonus)있음
◎카나다에서 Buick Line 으로는 Top Sale dealer임
* Best After Service * Best Price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조 의 문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한인민족상 26일 시상

"높이 든 횃불! 빛나는 문화"

본사제정, 한인민족상위원회(위원장 구상회) 주최 82년도 제2회 캐나다한인민족상 시상식이 6월26일(토)하오4시, 토론토한인회관(20 Mobile Dr, Tor)에서 거행된다.

올해 수상자는 예술상에 김영숙씨(무용가·에드몬톤), 학술상에 권오율박사(경제학자·트자이나), 공로상에 박재선씨(체육인·토론토), 봉사상에 김원겸박사(식물학자·위니펙)의 4명이다. (본보 5월28일자 참조)

82년도 민족상위원(16명은 아래와 같다.

위원장 : 구상회(의학박사)
부위원장 : 이축길(전 사진협회장)
사무국장 : 이석현(문인협회 고문)
위원 (가나다순)
강신봉(한인연합회이사장)
고종욱(신부·한인천주교회)
김명규(토론토·한국일보사장)
김지일(심리학박사)
김창열(토론토한인YMCA총무)
김춘타(전 대한체육회 캐나다지부장)
박재훈(음악박사·한인합창단 지휘)
박충도(전 문협회장)
박희민(목사·한인장로교회)
안병원(음악가·한인Y합창단 지휘)
전태균(전 토론토한인회장)
조덕남(미술인협회장)

제2회 민족상심사위원으로 참석한 위원은 구상회·김명규·김춘타·박재훈·박충도·박희민·안병원·이석현·이축길·전태균(가나다순)의 10명이다.

민족상위원은 약20명으로 구성하며, 임기1년, 중임할수 있으며, 회장단및 한국일보사측 협의로 선정키로 규약에 정해져 있다.

민족상 수상후보심사는 운영위원회가 하되, 필요에 따라 전문인사를 위촉 심사위원회를 구성키로 되어있다.

(별항「한인민족상 규약」참조)

올해 두번째 맞이한 민족상을 연대순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한인민족상 약사

▲80.2.2-"높이 든 횃불"사설로 민족상 취지 보도.
▲80.2.25-〈캐너더뉴스〉 400호 돌파기념「한인민족상」제정 예고.
▲80.2.27-민족상위원회 구성. 첫모임(삼복정) 위원장에 구상회, 부위원장에 이축길, 사무국장에 이석현선출.
◉위원(14명) : 강신봉·강우석·고종욱·구상회·김명규·김지일·김창열·김춘타·박충도·박희민·안병원·이석현·이축길·조덕남.
(1)「한인민족상 규약」 제정(전문및 9개조) ※〈캐너더뉴스〉 81.5.20게재
(2)예술·학술·공로·봉사의 4개상 설정.
▲81.5.6-81년도 제1회 수상자 본심.
-추천된 후보 14명중 예술부문 5명, 학술부문 1명, 공로부문 3명, 봉사부문 5명
-거주지별 분포 : 메트로·토론토 11명, 에드몬턴 1명, 키처너 1명, 런던 1명
각 후보의 특기·공적사항(기여도)등 철저히 검토한 후 무기명투표후 수상자 결정.
◉수상자 : 예술상-박재훈(음악·토론토) 김용순(무용·토론토), 공로상-전태균(토론토), 봉사상-장근수(키치너)
▲81.5.16-"한인민족상"사설(캐너더뉴스)게재
▲81.6.27-시상식(토론토한인회관서)80여명 참석 트로피및 부상수여
▲82.2.12-제2회 민족상 준비 첫모임(클링턴하우스)
(1)제1회 민족상 행사 검토
(2)제2회 민족상위원 선정(16명) 강신봉·고종욱·구상회·김명규·김지일·김창열·김춘타·박재훈·박충도·박희민·안병원·윤택순·이석현·이축길·전태균·조덕남(회장단·사무국장유임)-〈토론토·한국일보〉82.2.17게재. -〈토론토·한국일보〉82.3 10게재
▲82.4.10-사설"제2회 한인민족상 제재
▲82.4.20-각지구 한인회에 제2회 민족상 후보 추천의뢰(토론토·런던·위니펙·몬트리얼 에드몬턴·해밀턴·오타와·캘거리)
▲82.4.8 "한인민족상"모집 기사·광고게재
▲82.5.11-제2회 민족상후보접수 속보
▲82.5.17-제2회 민족상후보 마감. 10명접수(전년도 이월분 8명)
-이중 예술상 4명, 학술상 1명, 공로상 6명, 봉사상 7명
-거주지별 분포 : 메트로·토론토 11명, 위니펙 2명, 에드몬턴 1명, 런던 2명, 오타와 1명, 트자이나 1명.
▲82.5.25-82년도 제2회 수상자 본심.-가톨릭(한인)회관
◉학술상 : 권오율(경제학박사·트자이나)
◉예술상 : 김영숙(국악및 무용가·에드몬턴)
◉공로상 : 박재선(체육인·토론토)
◉봉사상 : 김원겸(위니펙)
▲82.6.26(토)하오4시 제2회 민족상시상식
곳 : 토론토한인회관

필리핀팀 1위

서울국제가요제

(서울31일=연합)29일 열린 82년도 국제가요제에서 필리핀의 투이·데이즈및 빌라루즈 듀엣팀이 1위를 차지했다.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라는 노래를 부른 이들은 상금으로 미화 2만달러를 받았다.

서울 문화방송이 주최하는 이 대회에는 16개국에서 18명의 가수가 참가했다.

한국의 포크송가수 전영록은「실연」이라는 노래로 금상을 획득, 상금 만달러를 탔다.

전영록은 왕년의 명우 황해씨와 백설희씨의 아들로 통기타를 키며 대학생층에 인기를 모으고 있는 가수이다.

◆인터뷰중인 정명화씨(28일 오후 이상수씨 댁에서)

음악평

한인교향악단 연주회를 듣고

유희자(음악박사)

◇유희자 박사

생동력이 풍기는 리듬과 격렬한 현과관의 열정적인 연주로 베토벤 교향곡 No.7의 마지막 악장을 장식한 한인교향악단의 제4회 정기연주회는 그 발전도상에 또 하나의 듬직한 주춧돌을 쌓아놓았다.

첫곡인 롯씨니의 윌리암텔서곡의 "새벽"의 묘사가 시작될때는 독주를 맡은캐나디안 첼로악장은 풍부한 음악성으로 어려운 시작을 잘 이끌어 나갔으나 반주부분이 불안하게 시작이되어 마음을 조마하게 하였으나 손님으로 같이 연주를해준 캐네디안들이 풍부한 경험으로 조화를 맞추어 주어서 무난히 연주를 끝고나갔다.

두번째 부분인 폭풍장면에서 트럼펫이 화려한 연주를 해 주어서 자세히 보니 아주 어리게 보이는 한국남학생들이 앉아서 연주를 하고있지 않는가? 기특하여 시종일관 주시해 보니 앙상불 호흡에 약간의 미숙을 보였을뿐, 깨끗한음색에 정확한 리듬감을 갖고 자신있게 따라가는 모습을보니 한인교향악단의 장래를 내다보는듯 마음이 흡족하게 느껴졌다. "정숙"에서는 잉글리쉬혼과 플룻의 이중주가 캐네디안들이지만 아름다운 이중주를들려주었고, 마지막 행진곡에서는 정확한 리듬과 행진곡풍의 박력과 가벼운 액센트등 연습이 부족했을텐데도 지휘자 김승순씨의역량을 보여준듯 호흡이 잘 맞는 연주를 해주었다.

2번째곡인 드볼자의 첼로 콘첼토는 이번연주의특별출연인 정명화씨와의 협연이다. 이곡은 롯씨니 의 서곡보다는 나이어린 연주가들이 짧은 연습시간으로 소화하기는 힘든 곡이다. 제1악장의 주제는 어설픈감이 없지 않았으며 제2선율에 가서야 드볼자의 냄새를 풍기는듯 하였다. 첼로 독주는 주제표현이 드볼자의 서민적이면서도 아카데믹하고 그러면서도 독특한 민속적인 작품스타일치곤 지나치게 박력이 있는듯 하였다. 제2선율 에서는 독주자의 원숙한 감정표현과 테크닉의 완벽함과 자신감을 충분히 표현해주었다. 반주하는 오케스트라는 김승순씨의 재치있는센스로 큰 실수없이 잘 따라와준것만도 다행한 연주였다고 해야되겠다.

2악장에서 정명화씨는온몸과 얼굴표정이 음악과한데 뒹구는듯, 외형적인 감정표현을 통해 연주가로서의 깊은 감정을 남김없 이 표현해 주었는데, 이러한센티멘탈에 가까운 낭만적인 해석이 드볼자의 민속적이면서도 고상한 스타일에적합한 표현인 것인지….

정명화씨가 세계 정상급을 달리는 연주가이기 때문에 고차원적인 욕심을 부려보고싶은 필자의 심정이다.

3악장에서 제1바이올린과 첼로 독주자와의 이중주에서 이 교향악단의 악장인 박영대씨는 탁월한연주솜씨를 보여주어 이협주곡의 마지막 절정을 더욱 진한 감명으로 끝내주었다.

휴식이 있은후 3번째로 연주된것이 베토벤의 교향곡 제7번이다.

1악장은 무난히 연주를 하였으나 듣는이로 하여금 마음이 끌리기에는 좀더박력과 자신감이 있는 연주가 되어야 되겠다. 쉼표다음에 시작되는 음이 지휘자의 싸인에 맞추어 똑같이, 알맞는 크기로 잘 나와줄것인지 조마조마하며 듣게하는것은 아직도 앙상불로서 가야할길이 멀리남아있는것을 말해준다. 3악장의 스케조와 마지막 악장에서는 지휘자와 단원들이 한 호흡으로 발랄한 리듬과 결정적인 표현을 잘해 주었다. 필자가 두번째 로 본 이번 한인교향악단 연주회에서 지휘자 김승순씨는 보다 섬세한 내용에 유의한 흔적을 보여주었으며 지휘자로서의 확고한 실력을 과시하였다. 앞으로 단원들 하나하나의 실력이쌓아올려져, 기술적인 면에걱정이 없어지고, 음악해석면에 지휘자로서의 개성을보여줄수 있을때 이 교향악단은 어느교향악단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것이 라고 자랑할때가 오리라 생각된다.

〈첼리스트 정명화와의 인터뷰〉

깊고 다양한 맛 지닌연주가

음악과 가정의 조화에 힘써

직업존중해주는 남편자랑스럽고

재미 표표시인 마종기의 〈첼리스트·I〉이란 시의 한 구절에 "안아도 안아도/비어있는/여인의 눈…"이란 것이 있다.

그러나 한국이 낳은 최대의 첼리스트 정명화의 눈은 결코 비어있는 여인의 눈이 아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음악으로 표출해 내려는 강한 집념이 충만한 눈인다.

20대부터 첼리스트로서, 혹은 동생인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씨와 피아니스트 명훈씨와 더불어 트리오(정삼남매)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굳히기 시작한 명화씨는 요요마, 린·해롤과 더불어 장래가 주목되는 주요 첼리스트로 손꼽힌다.

최근 메카레코드사 제작으로 차이콥스키의 로코코변주곡을 LA교향악단과의 협연으로 취입한 그는 백악관 연주, 스위스국제음악제 연주를 비롯, 수많은 연주경력과 더불어 "대단히 기교적이며 깊고 다양한 맛을 지닌 완벽한 대연주가"라는 찬사를 뉴욕·타임즈지등으로 부터 들었다.

제4회 한인교향악단과의 공연을 하루 앞둔 지난 28일 교향악단이사인 이상수씨 댁에서 기자를 맞은 정씨는 묵직하고도 날카로운 첼리스트의 면모와 알뜰하고 섬세한 30대 주부의 조화된 인상을 풍겼다. 서글서글한 매너는 오랜 친구를 만난듯한 친근감을 준다.

"토론토한인교향악단의 출연교섭을 받았을 때 호기심을 느꼈어요. 대피아니스트 루빈스타인이 조그만 시골에서의 연주를 수락하면서 의아해 하는 사람들에게 「여기도 사람사는데가 아닙니까?」하는 얘기를 했다잖아요? 직업연주인들과 연주할 때보다 한인교향악단은 순수하고 열정적일 것같아 기대가 큽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연주는 73년 런던 메뉴때 동생 정경화(바이올리니스트)씨와 함께 로열·필하모닉과 부르호의 「첼로와 바이올린을 위한 2중협주곡」을 연주한 것. 이날 연주회는 평론가들의 극찬을 들었을뿐아니라 BBC방송으로 전파에 중계되었다.

71년 제네바콩쿨에서 1등한 것은 피아노나 바이올린과는 달리 수년만에 한번씩 열리는 첼로의 국제경연대회라는 점, 세계 각지의 내노라하는 연주가 백여명이 치열히 경합한 대회란 점에서 영광스러웠다.

정씨는 5살쯤부터 피아노로 음악에 발 디디어, 11살 때 첼로를 시작했다. 당시 한국에서는 센세이셔널한 꼬마 첼리스트였지만 이화여중·예고를 졸업하고 미국 줄리아드음악대학에 유학하고 보니 11살이란 나이가 결코 이른 시기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당시 줄리아드에서 같이 공부한 중국계 요요·마(Yoyo Ma)만해도 5살때 프랑스토 가서 첼로를 시작했다. 정씨가 전하는 현대의 첼로 대가들은 5년전 작고한 정씨의 스승 피아티콜스키 이후 로스트로포비치가 있으나 그는 지금은 워싱턴·내셔널의 지휘자로서 더욱 활약하고 있고 피에르·푸르니에는 75살로 고령이며, 그다음이 정씨의 동년배인 요요마, 린·해롤 정도. 프랑스의 쟈크리느·드·푸레는 10년전부터 지병으로 휠체어를 타고 다닐 정도의 폐인이 되다시피 했다. 요요마는 기교도 탁월하지만 부르기쉽고 외기쉬운 이름 때문에 더욱 명성을 누리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민 2세들의 이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결혼 11년째인 명화씨는 1년중 3분의 1은 40여회의 연주여행으로 나머지는 AP통신 교황청특파원인 남편 구삼열(Samuel Koo)씨와 4살반, 7살짜리 두딸과 함께 로마에서 지낸다.

결혼 초기 몇년간은 연주생활에 지장이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아무런 후회나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집안일에 가정부의 도움을 받으며 하루중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철저히 연습한다.

작년 교황저격사건을 특종 보도한 남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남편직업을 따라 저널리스트에 관한 것도 조예가 깊다. 남편과는 "서로의 직업을 존중하고 신뢰한다". 틈시 바쁜 둘이 함께 여행할 기회를 가지면 "신혼여행하는 듯한 기분"을 만끽한다.

정씨의 가족은 이버지 정준채(사업가)씨, 자녀의 교육에 공이 큰 어머니 이원숙씨 밑으로 4남3녀가 있는데 큰딸 명소씨는 LA거주 플롯주자·교회성가대지휘자로, 둘째 명근씨는 비지니스맨, 세째, 네째가 명화·경화씨, 다섯째가 플라리넷의 명철씨, 여섯째가 피아니스트겸 지휘자 명훈씨, 막내가 닥터지망의 인턴인 명규씨이다.

대개의 연주가처럼 "버는 돈도 많고 쓰는 돈도 많다"는 정씨의 취미는 요리. 연주회 때문에 특별히 미장원에 가는 일은 없다. 노후에는 후배양성에 전념하고 싶다고 밝혔다.

〈조미태기자〉

한인민족상 규약

캐나다 한인사회 및 이땅 문화창달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일보사는 이질문화권인 캐나다사회에서 한국문화를 보전하고 한인사회의 지위향상을 위한 촉매작용을 사명으로 삼으며, 더 한층의 봉사를 위해「한인민족상」을 제정한다.

제1조 목 적

캐나다사회 각분야에서 공이 큰 인사에게 매년 시상함으로써 그 노고를 상찬하고, 정진에 촉진력 구실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시상부문

(가)예술상-캐나다 한인사회에서 문학및 예술분야에 특출한 공로자나 특기자.
(나)학술상-학술 과학분야에서 공이 큰 인사.
(다)봉사상-한인 또는 캐나다사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인사.
(라)공로상-한인 또는 캐나다사회 발전에 공로가 큰 인사.
(마)필요에 따라서는 새로운 부문의 상을 제정할 수 있다.

제3조 수상자격

(가)캐나다 거주 한인계 개인 또는 단체.
(나)비한국계 캐나다인 또는 단체.
(다)도의적, 법적으로 큰 결함이 없는 개인 또는 단체.

제4조 추천방법

전국의 각단체가 1명씩 소정양식에 따라 해당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추천할 경우, 추천인 10명 이상을 요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

(가)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운영과 필요한 제반기능을 담당하는 최고의결기관이다.
(나)운영위원은 약20명으로 하며 임기는 1년. 중임할 수 있다.
(다)차기 운영위원은 회장단및 한국일보사측 협의로 선정한다.
(라)운영위원회는 위원장1명, 부위원장1명, 사무국장1명을 둔다. 기타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마)운영위원회의 모든 의결은 위원5명이상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바)운영위원회는 사무국을 한국일보사내에 두고, 그 사원이 사무직을 담당한다.
(사)운영위원회는 연2회의 정기모임과 회장단과 한국일보사가 필요로 할 때에 소집한다.

제6조 재 정

시상및 운영 기금은 일반찬조와 한국일보사의 후원으로 충당한다.

제7조 심 사

(가)운영위원회는 추천된 수상후보를 심사하며, 필요에 따라 낭해년도에 한해 전문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나)수상후보가 된 위원은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심사에 필요한 규정은 별도 제정할 수 있다.

제8조 개 정

본 규약의 개정은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3/2이상 찬성으로 한다.

프로축구 벨리차드를 즐기자
입장권 한국일보사 533-2361
예매처 브램톤스포츠 598-3732

축
일간지발행 1주년기념
—나날이 발전해가는 한국일보·토론토사의 성장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편견에 흐르지 않는 신문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건투를 빕니다.
다우스꽃집
464 DAWES RD
751—5851· 이동환

Everybody's talking about WAGNER..
BECAUSE OF THE SOUND THE QUALITY AND THE VALUE

WAGNER PIANO는
*품질의 높음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구라파와, 미국은 물론 카나다에서 수많은 음악전문가들의 호평을 받고 있으며
*카나다의 최우수 대학인 몬트리올의 McGill University 음악대학, University of Alberta 음악대학, Humber College 음악과 등에는 이미 Wagner Piano를 다량 애용중이며,
*상당수의 U of T음악교수들, 카나디안음악인들, 토론토한인음악인들이 Wagner Piano를 소유하고 있읍니다.
*Wagner Grand Piano는 카나다 전체 Grand Piano 판매량의3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일로에 있읍니다.
*Wagner Piano는 12년간 본사에서 품질을 보증합니다.
*Clear and Precise Sound, Uncompromised Quality and Unbelievable Price는 Wagner의 자랑입니다.
WAGNER HOUSE OF MUSIC
JASTOM TRADING COMPANY LIMITED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ARIO M3B 1Z3
☎ (B) 446-1431, 449-8644 (H) 286-1548 대표 박 성 희

인삼이 암치료에 특효

서울대연구팀 쥐대상실험

(서울 1일=연합)인삼이 암세포 확산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사실이 서울대학의료연구팀에 의해 밝혀졌다.

한국암연구협회 제9회 연차대회에서 발표된 김진만교수와 황만동박사의 보고서는 인삼의 추출물을 82마리의 쥐에 실험한 결과 위와 십이지장암을 억제하는데 효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실험쥐들은 3그룹으로 나뉘어져 1째그룹은 보통 물만, 2째그룹은 물과 함께 암유발을 촉진하는 화학물질, 3째그룹은 물속에 암유발물질과 인삼추출물을 한데 섞어 공급됐다.

37주간 계속된 실험결과 1째그룹은 정상으로 판명됐으나 2,3째그룹의 위와 십이지장에서 암이 발견됐다.

그러나 2,3째그룹이 다른 점은 2째그룹이 3째그룹보다 암발생율이 6~10배 더 높으며 종양도 3째그룹보다 더 컸다.

보고서에 의하면 소련의 화학자 미로노바가 1963년 인삼의 알코올성분 추출물이 암치료에 효과적이라고 말해 인삼과 암과의 관계를 최초로 밝힌 사람이었다.

그후 이에 대한 연구가 계속돼 이제까지 각기 다른 30개의 연구결과 20개가 인삼이 항암물질로 효과가 있음을 지지했고 나머지는 이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새로 문연 마야미용실

6월말까지 특별세일

마야미용실이 블루어한인거리에 새로 개업했다.

헤어스타일리스트로 14년간의 경력을 자랑하는 김영주씨가 토론토 메이크·업학교(1년 코스)를 졸업한 룰라라·홍씨와 손잡고 차린 마야미용실은 개업기념 세일을 6월말까지 실시한다.

위치는 631 Bloor St. W.(한국관 맞은편 서울여행사2층)이며 전화는 588-1480(B) 243-8026(R)이다.

해밀턴한인교회 5주년 기념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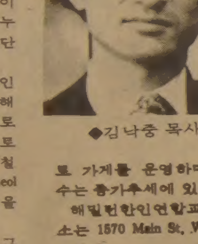
해밀턴한인연합교회(담임 김낙중목사)는 창립5주년을 맞아 오는 6일 하오3시30분 기념예배와 아울러 윤치복, 최태호집사의 장로장립식을 갖는다.

동교회는 5년전 전한인교회 지교회로 시작된 이후 김낙중 목사가 임마누엘신학교에 다니면서 강단을 지켜왔다.

현재 70여명의 재적교인으로 발전한 동교회는 해밀턴의 유일한 한인교회로 담임인 김목사는 현재 토론토대학 신학부에서 "철학적 신학(Philosophical Theology)" 로 박사학위과정을 밟고 있다.

김목사는 해밀턴과 그 주위 벌링턴지역에 사는 교민수는 1백여세대로 주로 가게를 운영하며 교민수는 증가추세에 있다.

해밀턴한인연합교회 주소는 1570 Main St. W. Hamilton이다.



◆김낙중 목사

소매경영강좌

로스만회사서 재개

로스만스·오브·팔멀담배회사 소속 소매경영학연구소(RSI: Retail Service Institute)는 7일부터 소매경영강좌를 연다.

매주 3일밤 2~3시간씩 총 4주간 계속되는 이 강좌는 상품진열법, 부기법, 재고정리법등에 대해 강의한다. 이 강좌는 최근 3개월간 중단됐다.

지금까지는 교포만을 위해 따로 반을 편성했으나 이번부터는 캐네디안과 합쳐진다. 수강자격은 상점경영자 또는 상점경영에 흥미있는 사람.

수강료는 없으나 예약금 25달러(강의 종료후 반환)가 필요하다. 수강처: 토론토 75 Dufflaw Rd.

연락처: 차영신 661-1921
피터·테사 789-771

◆25일 오타와에 들른 국정자문위원들. 오른쪽부터 이규현대사, 민복기 전대법원장, 박충훈 전국무총리등.

국정자문위원 · 오타와교민 환담

(오타와=이태은지국장) 지난 24일~26일까지 오타와를 방문했던 전한국국무총리 박충훈씨등 국정자문위원일행은 26일 캐나다 국회방문등 오타와 일정을 마치고 몬트리얼로 떠났다.

다음은 박충훈씨의 연설요지를 이태은기자가 간추린 것이다.

다음은 박충훈씨와 민복기 전대법원장의 연설요지를 이태은기자가 간추린 것이다.

1)박충훈 위원 :

작년에 한국과 캐나다의 무역량이 US$10억을 넘었으며, Balance Payment=약 $4,000이다.

최근 한카의원연맹 상호방문과, 지난해 트루도수상 방한을 계기로 한카관계가 일층더 밀접하게 되어가고 있다.

앞으로 여러가지 면에서 우리나라는 자원이 많이 필요하므로, 자원개발에 참여하게 되고, 캐나다는 현재 한국의 원자력발전소 10시설 계획중 1개를(월성) 건설중이나 장차 추가로 한국의 구입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다.

오타와 교민은 미국이나 일본교포들과 달리 대학교수, 연방정부 공무원등 특종직업면에서 활약, 우리정부에서는 크게 기대하고 있다.

제5공화국은 문호개방정책하에서 이민을 적극 장려하고, $10만까지 허용하고 있다.

지난번 미국 뉴욕교민회좌담시에 교민청 신설 건의를 받고, 그것을 건의, 또 해외교포들의 활동이 거의 국력의 반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해외교포들도 국가발전에 참여하게 할 수 있지않느냐하는 것을 고려, 정부에서 영세상점등에 지원을 한다면 더 빠른 시일에 발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1월5일 통금해제도 되었고 멀지 않아 해외여행 자유화에 따라 부부 관광여행도 할 수 있게 되었고, 고등학교 교복·두발 자유화등 엄격한 사회에서 점차 자유화된 사회로 되어가고 있다.

남북문제에 있어도, 이데올로기가 다른 공산국가라 할지라도 통상교류등도 이미 천명했고, 또 남북동시 유엔가입도 쌍방인정으로 쏘련 중공이 한국승인을 하는 경우 미국과 일본이 북괴를 승인해도 좋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1.9일 대통령의 국회시정방침에 천명한 남북대회재개를 촉구하고, 민족통일협의회에서 헌법기초를 만들자고 제안했고, 남북통일이 그 임기동안에 무슨 형태로든지 진전을 해야겠다는 것과, 그러한 남북통일 대화의 우리측 성의껏 제의에도 불구, 북한에서 거부하고 그들은 유엔에도 단일 한국으로 가입과 고려연방제를 주장하고 있다.

공산국가와 민주국가가 연방을 만들수 없으며, 또 외교정책도 다르다. 결국 우리는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기다려서 기초작업을 통해 평화통일을 바라는 방침인데, 북한은 평화통일 제안에 응하지 않고, 고려연방제만 주장, 군비강화를 계속함은 적화통일을 하겠다는 해석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캐나다교민의 일부는 북한에 갔다온 사람도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반공주의자가 되었다는 얘기도 듣고 있다. 그중에는 매수되어 돈을 받다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심지어 대통령을 살해하려는 음모사건에 가담하는 자들도 없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포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지지, 자유주의를 신봉하고 공산주의자들이 북괴에 갔다와서 접촉하려고 해도 그것을 단호히 거부했다는 얘기도 듣고 있다. 그러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평화통일을 열망하는 대한민국의 정부와 정책을, 비록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

민복기 위원:

요즈음 의령사건은 웬만큼 수습이 되었다고 본다. 이철희·장영자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의아심을 가지는 것은 장여인의 형부 되는 사람이 고위층과 관련되어 있다. 처음 검찰수사가 미지근해서 국민들은 의아심을 가졌지만 법률을 한 사람으로서 볼 때 납득이 가는 수사를 했다고 본다.

검찰수사 결과를 보면 이규광씨(대통령부인 작은아버지)가 장여인의 형부가 되는데, 장여인의 결혼식때 친족대표로 나와서 인사를 했으며, 은행장에 대해서도 3-4번 방문인사차 은행에 갔다는 검찰수사가 나왔다.

일반적으로 볼때 이규광씨가 배경을 믿고 압력을 가해 은행에서 대출한게 아니냐는 의아심을 짙게 만들었다.

사실적으로 이규광씨가 뚜렷이 누구에게 또 장여인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하는 뚜렷한 것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 검찰에서도 그것을 밝혀내지 못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무개 잘 부탁한다" 고 할수는 없다고 본다.

은행장들이 스스로 뒤배경이 있으므로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출세이용을 위해 선을 베풀면 좋지 않겠느냐고 하는 생각에서 그와 같은 큰 대출을 하지 않았느냐 생각하지만 검찰의 수사결과는 이규광씨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단지 추리에 불과하며 구체적으로 은행에 와서 압력을 가했다든지, 또 무엇을 했다는 뚜렷한 것이 나오지 않았다. 검찰이 불철주야 몇주동안 수십명을 조사했지만 밝히지 못했으며, 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풍토가 거의 특권층에 너무 약하다고 본다.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 것같으면 아첨하는 습성을 갖고 이번 사건도 그와 같은데서 금융기관이 오신을 했다. 법률가는 법률가 나름대로 그렇게 보며 가령 경찰에서 그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했다해도 그 정도의 증거만 가지고 기소, 그것으로만 유죄증거로 삼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 결과로 내각의 큰 변동도 있었고, 국내에서는 큰 반응이 일어났지만 이젠 개각도 되었고 국민의 의혹도 많이 풀려서 그것으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바바라」에게 물으세요

북미생활 에티켓 안내

북미생활의 에티켓이나 일상생활의 작은 궁금증등을 풀어주는 『바바라에 물으세요』를 본보 미주본사의 협조로 주1회씩 연재한다.

상담은 LA·한국일보의 영문판 담당기자인 바바라·엥거(Mrs. Barbara Enger)씨가 맡는다.

영어학석사인 엥거여사는 한국에 4년간 머물면서 외대, 성균관대, 동아대등에서 영어강사직을 맡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습성, 모르는 점등을 잘 파악하고 있다.

특히 우리들이 평소 알고 싶었던 점, 갑갑했던 점, 혼동됐던 점등을 잘 설명해 줄 것으로 큰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한다.

◆필자 : 바바라여사

이사후 이웃과는 자연스럽게 접근

무작정 방문 · 파티초청은 부담감

귀찮은 아동은 부모찾아가 협조 구해

○문 : 시내 아파트에서 살다가 최근 교외지역의 조용한 곳으로 이사왔읍니다. 그런데 이민온지 얼마 안되는데다 집을 처음 갖고보니 이웃사람들에 대해 신경이 쓰여집니다. 이사를 했을 경우 새로운 사람이 옆집을 찾아가 먼저 인사를 해야하는지요? 이웃사람들을 모두 초대해 파티를 베풀까하는 생각도 해봅니다마는, 미국풍습을 잘 몰라 주저하고 있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 : 이 질문은 제가 대만에 살고 있었을때 겪은 경험을 생각나게 하는군요.

당시 외국인촌에 한국분이 이사왔는데 이분은 이사오자 마자, 부인과 함께 이웃을 방문, 『새로 이사왔다』고 인사를 하자 인사를 받은 외국인들이 약간 당황해 저에게 한국인들의 관습을 물어온적이 있었읍니다.

우선 이사를 새로하셨으면 이웃집 문을 두드리거나 파티를 베푸는 일은 보류하십시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인사할 수 있는 때를 기다리십시요.

잔디에 물을 주다가 서로 눈이 마주치거나 집앞에서 우연히 만나면 『나도 댁의 정원나무처럼 가꾸어 놓고 싶어요』라던가 등의 대화를 꺼내시면서 얘기끝에 서로 인사하게 됩니다.

문을 노크하면 판매원이 찾아온줄 알고 상대방이 귀찮아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 인사하게되어 분위기가 어색해질수도 있으며 인사도 없는데 집에 초청하면 오히려 부담감을 줄 가능성이 있읍니다. 파티에는 동네사람들이 새로 이사온 사람을 초청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문 : 새로 이사왔는데 이웃집 아이가 우리집아이를 자꾸 건드려 못살게 굴고 있읍니다. 한두번은 참았는데 몇번 계속되니까 부모된 마음에 분하기까지 해집니다(둘이 모두 5학년입니다). 새로 이사온 입장에 화낼수도 없고…무슨 현명한 방법이 없을까요?

●답 : 이런 문제는 잘 해결하셔야지 잘못하면 말썽이 더 커지는 케이스입니다.

먼저 그 아이의 부모들을 찾아가십시요.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협조를 구하세요. 그후에도 이웃집 아이가 계속 거친 행동을 하면 귀하의 아이에게 이웃아이와 놀지말도록 타이르십시요. 만약 학교에서나 학교에 가는길에 말썽이 일어나면 학교당국에 이일을 리포트하셔야 합니다. 학교에서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도 문제가 해결안될때는 어떻게 하느냐구요? 그 이상은 더 참으실 필요가 없읍니다. 귀댁의 아이에게 태권도를 가르쳐줘서라도 상대방아이를 실력으로 혼내주십시요. 그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당방위에 속하는 성격입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대판 싸우고나면 아이들은 오히려 꿀 친해지는 수가 있기때문입니다.

<시>

"강둑에서"

남궁 평

내 기억으로, 어릴 때에는
나는 강둑의 갈대가 되었다.

밤이면 더 푸르게 불어났던 강물은
은빛 비늘의 아침을
뗏목들이 떠갔다.

모자를 썼었던 강둑 옆의 모자공장
창포꽃들이 강물에 흘러가며
모자들을 날렸다.

타는 듯한, 그러나 다 탈 수 없는
시간들이 있어
나는 노예처럼 그을리고
잠이 모자라 강둑에서 조는가!

실뱀들은 이글거리며 서로 뭉쳐서
서로의 존재를 증명하려
몸들을 비틀고,

그 때 그 일이 일어났을 밤이 되자
너는 어디에 있었나.
강물은 탁한 홍수가 되고,
뗏목들이 모자공장 굴뚝에서 맴돌았을 때

너의 눈은 경이에 충혈되어
쑥대밭에 매달리고 울부짖고,
아침이 되자 모든 기억들은
하늘에 떠있는 한 마리 새.

지금 좁아진 이 모래톱과
그곳에 있었던 강둑, 지금은 없지만
내 기억들은 지금 한 마리 새도 없는 것을….

조금도 초조하지 않아도
교각 위론 전철이 실뱀처럼 지나간다.
하지만 차들이 있어 강은 흐르지 않는다.

서녘하늘에서 조개구름,
밤이면 떠있어 빛이 없어진 곳,
나는 새벽에 깰 수 없고
퇴색한 강을 토해낸다.

강들이, 소리내어 흐르던
그 강들이 합치는 곳에 조개들이 살고 있던
그래도 넌 당당한 아침을 맞을 권리가 있다.
네가 살고 있었을
그 때에도 저 나무는 거기 서있었다.

하지만 일요일은 계절마다 다르고,
교회의 종은 녹이 쓸고
잿빛 비둘기
높게 나는 철새가 되었다.

지금이 여름철인가,
내 시력으론 구별할 수 없는 철새가
강가에서 서성대고
모자공장 굴뚝엔 연기도 뗏목도 없다.

그곳은 아주 형벌의 땅
그 강이 길게 누워있다 해도
나는 강으로 갈 수 없는 것.

지금 무거운 구두끝에 비가 내린다.
시간이 없는 비,
저 따스한 물오리의 알을
굴리지도 못하는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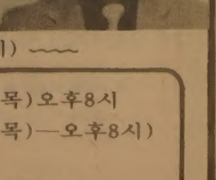
그래서 강둑엔 지금 빠르게
차들이 지나간다.

(토론토의 벗 장성에게 서울에서)

1980. 11.

※이 시는 토론토교포 이장섭씨의 친구가 서울서 보내온 편지의 일부이다.

(한인)특별하기 체력연마 및 호신술과정



아래와 같이 저희 도장에서 특별하기 훈련을 실시하오니 교포 여러분 및 자녀분들의 건강 및 호신술 연마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이면 꼭 알아야만 될 무술기본 연마!

1) 어린이 반(9세~13세)
시 작 : 1982. 6. 12(토)12시
기 간 : 15주(매주(토)혹은(일)) —오전 · 오후
수련료 : $150
인 원 : 20명(선착순—남 · 녀)
사범 : 손 명철(3단)
조교 : 정 명주(13세 · 태권도 신동)

2) 학생반(14~17세)
시 작 : 1982. 6. 13(일)오후2 : 00시
기 간 : 15주(매주(토)혹은(일))오후
수련료 : $180
인 원 : 15명
사범 : 손 명철(23 ")
조교 : 글렌 · 사무엘(대회우승 다수)

3) 대학생 및 청년반(18~22세)
시 작 : 1982. 6. 13(일)오전11시
기 간 : 15주(매주(토)혹은(일)) 오전 · 오후
수련료 : $ 200
인 원 : 12명(선착순—남 · 녀)
사범 : 손 명수
조사범 : 손 명철(시범권위자)

4) 일반부(23세~53세)
시 작 : 1982. 6. 10(목)오후8시
기 간 : 15주(매주(목)—오후8시)
수련료 : $300
인 원 : 8명(선착순—남 · 녀)
관장 : 손 명수(41세) 태권도 · 합기도사범(6단) 정평있는 지도력

◎장 소 : ●손명수태권도장(2188 BlOOR ST. W at RUNNYMEDE SUBWAY—JANE 과 HIGHPARK사이)
●공원 혹은 CAMP SITE—새벽일 경우

〈혜 택〉
1.단기간에 많은 기술 습득
2.단기간에 많은 체력 향상
3.책임 및 권위있는 지도
4.도복·띠($40.)및 음료수 포함
5.승급(단) 심사시 참작
6.과정수료후 성과 좋으면 재수련 및 도장 입관시 우대

〈참 고〉
1)시간은 일주일-1회(1시간 30분 가량)
2)가족 2인 이상은 20% 공제혜택
3)수련장소, 일자및 시간등은 도장행사, 공휴일등 관계로 편의상 변경 또는 연기될 수도 있음.
4)유단자 및 유경험자 대환영
5)무 경험자일수록 과정에 임하여 진보빠름.

★일년내내 즐길수 있는 자기 운동으로 공부·독서를 계속하듯이 신체단련, 무술 연마도 계속하면 건강에 매우 좋으며 특히 바쁜 생활과 피로를 쉽게 느끼는 분들, 허리에 통증을 느끼는 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한국인이면 필수적인 무술기본 연마
★지금 묻는것은 순간적인 챙피, 일체 묻지않으면 영원한 수치
★친절하고 정성껏 지도할것 입니다.

현재접수중(전화로도 접수받음)

연락처 : 손명수태권도장(SON BROS. TAEKWON—DO CENTRE)
전화시 : B)763-1155(주중—2시~8시) (토)—2시~4시 R)245-7527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
(선금) 年$99, 月$9, 영구구독 $50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나브라틸로바 美國籍갖고 뛴다

82년 페데레이션컵大會 美代表로 선발

지금은 매력적인 25세의 淑女…올시즌서 8번우승

7년전 18세때 체코서亡命 작년 市民權얻고 安定찾아

무국적선수 마르티나·나브라틸로바(25)가 나라를 찾았다. 75년 『자유의 몸으로 테니스를 하고싶다』고 조국 체코를떠나서 미국으로 망명했던 나브라틸로바가 미국시민권을 획득한것은 작년2월.

그는 그동안 세계톱플레이어들이 총망라 출전하는 여자테니스 국가대항전 페더레이션컵대회에는 참가할수없었다.

그러나 나브라틸로바는 금년여름 미국 샌타클레라에서 개최되는 82년 페더레이션컵대회에 미국대표선수로 선발돼 이제는 당당한 미국인으로 인정받게된 것이다. 연패를 방어하게되는 미국대표팀의 주전은 크리스·에버트·로이드와 나브라틸로바로 역대어느 대회보다도 최강팀을 구성했다. 7년전인 18세때 가족과 조국을 버리고 테니스를 택한 나브라틸로바는 이제서야 정신적 안정을 찾았다.

금시즌 나브라틸로바의 활약이 그의 생활안정을 입증해주고있다. 9개대회에 출전해서 8번우승했다. 상금만도 이미 22만달러를 벌어들여 여자선수중 최고액을 기록하고있으며 현재까지 생애통산상금은 3백80만달러로 크리스·에버트·로이드다음이다.

수위와의차액은 1만달러로 현재의 레이스대로 나가면 생애통산상금랭킹1위는 시간문제이다.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은 나브라틸로바는 이미지쇄신을 꾀하고있다. 1m71, 61kg의 체구와 다이내믹한 플레이로 남성같은 이미지를 주었던 그는 부드럽고 성숙한 여성으로 변신하고있다. 동구특유의 빨간색을 블론드로 물들인 머리를 게임에 임할때는 소녀스럽게 포니테일로 묶는다. 그리고 눈화장이 고운데 텍사스주 댈라스자택에서는 헐리웃에서 훈련받은 미용사를 고용하고있다. 나브라틸로바는 『입술연지와 눈화장은 텔리비전을 위한것이다. 귀찮지만 할수없다』고 말해 용모에 무심했던 예전과는 많은 차이를나타냈다.

또 최근에는 프로미식축구팀 댈라스·카우보이의선수인 남자친구와 정답게 얘기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고있다.

25세의 원숙한 플레이와 이미지 쇄신에의한 여성다운 분위기 조성으로 마르티나·나브라틸로바는 매력적인 숙녀로 변신해가고있다.

그는 75년 미국오픈참가중 망명을 한후 78, 79년연속 윔블던에서 우승, 테니스의 여왕이 되었다. 지난해에는 미국오픈준우승, 윔블던 4강에 진출했으며 78년부터 4년연속 상금최고 획득선수로 성공했다고 할수있다.

그러나 체코에 살고있는 가족이 항상걱정이다. 한달에 두번정도 국제전화로 서로의 근황을 알리고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지만 나브라틸로바에게도 망명자의 그늘이 어딘가 스며있음을 부인할수없다.

로미·슈나이더 급사

아들 죽음 비관 자살설도

◆로미·슈나이더

오스트리아 태생의 여우 로미·슈나이더(43)가 29일 파리의 아파트에서 자연사했다. 경찰은 그녀의 죽음이 자살이었다는 애초의 발표를 수정했다.

30년간의 경력동안 60여편의 영화에 출연한 로미·슈나이더는 미국에서 보다 유럽에 더욱 잘 알려진 배우로 한국 팬들에게는 70년대 알랭·드롱과 공연한 영화"태양은 살아있다"로 낯이익었다.

단단한 몸매, 귀족적인 자태의 유럽여우로서 로미·슈나이더가 최근 출연한 작품은 지끄·루피오감독의 영화. 이 영화에서 그녀는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어머니로 나왔는데 그녀의 아들 데이빗도 14세의 나이로 작년7월 사고로 사망했다. 오스트리아 배우를 어머니로, 독일태생 가수겸 배우를 아버지로 태어난 로미(로즈마리의 약칭)는 61년도 루치노·비콘디감독의 "보카치오'70"에서 국제적 명성을 얻었다. 이 작품에서 그는 결혼을 지키기위해 섹스행위에 호의를 베풀때마다 남편으로부터 돈을받는 사랑스런 아내역을 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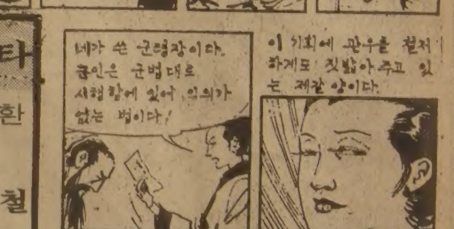
66년 결혼한 첫번째 남편 해리는 서독의 감독겸 배우로 79년 자살했고, 두번째 남편인 사진작가 다니엘과는 별거중. 유가족엔 4살난딸 사라가 있다.

한국일보
533·2361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봉사합니다.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三國志 387



빅·세븐선물센타
각종한약. 우황청심환
화장품등.
533-7966 김 영 철

〈장편연재〉

영원의 방랑객 ㊾

고 마태오

제4장 딴따라 미사의 파동

"나는 다 짐작하고 있어요. 물론 부리노가 가두 복음전도를 계획했겠으나 그것을 정신적으로 밀어준 사람은 바로 당신이오. 당신이 없었던들 부리노는 감히 그런 사도적 사업을 해낼 수 없었을거요. 그리고 신문사나 티비방송을 동원한 것도 틀림없이 당신의 창안이었음을 주교님께서도 짐작하고 계십디다. 하여튼 잘한일이오."

"사실은 지금까지 본당신부님께 말씀 드리지 않고 있었으나 신문사를 동원시킨 죄는 제 탓 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부리노의 사도적 사업을 밀어줄 길이 없다고 저는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 일이 주교님의 마음을 상해드리지나 않았을까요?"

나는 조심스레 기이에 본당신부의 동정을 살피며 말했다.

"그분의 마음을 상해드리기는…" 오히려 그분께서는 그일을 통쾌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당신을「사도적 쇄신의 사나이」라고 까지 칭찬하시면서 당신의 사목적 정열과 이니시아티브를 축복하셨다오. 당신도 이미 짐작하고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우리 모래알 교구의 지도급에 있는 본당신부들의 보수성에 주교님들도 이만저만 고통을 받고 있는게 아니라오. 그래서 부리노가 시작한 그러한 복음전도 방법도 교구신부들 사이에 찬반의 토론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언론과 백성에게 받아들여졌음을 주교님께서는 얼마나 통쾌하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른다오."

"그럼, 주교님께서 저에게 주신다는 훈장이 어떤 것입니까?"

나는 주교님의 칭찬에 다소 으쓱해진 기분속에 명랑하게 물었다.

"그것은 15일간의 특별휴가요!"

그분은 농담어린 말투로 말했다.

"뭐, 15일간의 특별휴가라고요? 이 본당에 부임한지 3개월도 채 못되는 저에게 벌써 휴가라고요? 그것은 훈장이라기 보담은 일종의 벌인 추방이군요."

나는 특별휴가라는 말에 다소 놀랐으나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추방도 추방나름이지, 추방도 영예로운 추방이 있으니까…."

기이에 본당신부는 여전히 명랑한 음성으로 말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에게 15일간의 특별휴가를 주시는 이유가 뭣입니까?"

"그 이유는 당신을 아끼는 주교님의 어버이다운 심정 때문이라오."

"…."

나에 대한 주교님의 마음씀이 한편 황송하면서도 나는 기이에 본당신부의 말이 선뜻 이해가 안되어 묵묵히 있었다.

"태오신부, 한번 신중히 생각해 봐요. 아직도 새 신부의 몸으로, 게다가 외국인의 입장에서 언론에나 사람들의 화제의 대상이 되어봐요. 그것은 여러면으로 당신에게 분명히 좋은 일만은 아닐거요. 남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분명 당신의 장래를 위해 현명하지 못한 일일거요. 지금 언론계에서는 부리노가 시작한 가두복음전도의 대부적인 인물을 찾고 있는데, 대충 그 인물이 당신일 거라는 추측을 하고 있다오. 그래서 당신을 잠정적으로 모래알로부터 피신해 있으라는 뜻에서 15일간의 특별휴가를 결정한거요."

"잘 알겠읍니다. 본당신부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읍니다."

나에대한 주교님과 기이에 본당신부의 배려가 너무고마워 황송한 마음 금할길 없었다.

"당신이 이해하고 주교님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니 나도 고마워요. 사람이 갑자기 유명해진다든지, 혹은 인기가 높아진다면 흔히거기에는 남들이 시기하게되는 악과 또 교만해지기 쉬운 유혹이 뒤따르게 마련이라오. 이러한 악과 교만의 희생이 되지않도록 이번의 휴가를 결정한거요."

"두분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겠읍니다. 그뜻에 순종하겠읍니다. 그런데 부리노가 시작한 가두전도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읍니까?"

(계속)

한국일보
533-2361

제3회 김용순무용발표회

★초호화판 RYERSON극장 무대위에 펼쳐지는 5천년 한민족의 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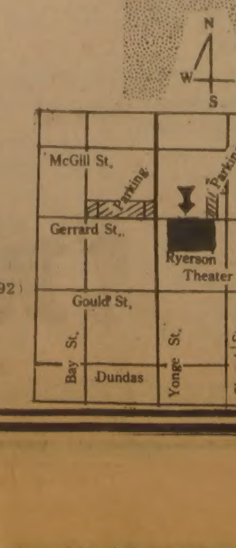
★2년의 노력끝에 보여드리는 우리 자녀들의 자랑스러운 민족의 제전!

★남녀노소 우리 온 가족은 물론 이웃의 캐네디안 친구들에게도 우리의 문화를 자랑하자!

●일 시: 1982년6월12일(토) 오후7시30분
●장소: : Ryerson Theater 43 Gerrard St. E (Yonge & Gerrard)

★입장료: A석 $8.00 B석 $6.00

판 매 처: ⊙킴스카메라(534-1085) ⊙미도파백화점(536-1692)
⊙노년회(755-8079)
(노년회 회원에 한해선 A석을 $6.00에드림)
⊙각 식품점 ⊙각 음식점



출 연: 김지현, 이민경, 서은정, 송유미, 박소나, 이은미, 김미라, 장진이, 김영임, 김소영, 서혜승, 이경, 이숙경, 정은미, 최후로라, 김영희, 곽아나, 곽수미, 박정화, 손스지, 강윤숙, 강진경, 강명진, 김은정, 김은진, 장쥬리아, 매소진, 김용순, 김순이

찬조출연: 박미애, 오재윤, 김정숙

도움주신분: 유영갑 100불 서준경 100불 이기천 100불 김병권 NORH YORK CHEV. 100불 최우덕 100불 곽정열 100불 김춘탁(킴스카메라) 100불 한용식 50불 강우석 100불 정태호 100불 손명수(손·BROS) 100불 장필규 100불 김만구(ECOSYS가구점) 100불 김현모(연합상사) 100불 이기홍(무나미 트로피) 100불 이창복(팬·아시아) 100불 서형석 50불 유재영 100불 Peel Club. $200 이병귀(체육회장) $300 쌈방울메리아스 $50 미도파백화점 $100 제일여행사 $50 송창섭(ANCHOR AUTOBODY) 박인순(한인회장) $200 아세아한약방 $30 브랜든스포츠(이건영) $100 김종조(종합보험) $50 조규혁종합보험 윤호영(SUN LIFE)

도움주신단체: 실업인협회 200불 숭공문화협회 200불 배재동창회 200불 라이온스클럽 200불 코리아타운번영회 $200 총영사관 $300 동우회 200불

총 감 독: 장기철

주 최: 한국민속예술후원회(주소: 619 Bloor St. W. Tor. Ont. M6G 1K8) ☎: (416)534-1085

후 원: 토론토총영사관, 토론토한인회, 노년회, 코리아타운번영회, 대한체육회캐나다지부, 대한부인회, 라이온즈클럽, 영리무역, 서울여행사, 배재동창회, "88올림픽후원회, 숭공문화협회 동우회

李圭光씨 非理 계속 搜査

임시國會開會 政府、「張여인事件」보고

"李·張압류財産은 피해자 補償에" 정부

"檢察의 수사발표 修正된 이유는" 질문

국회는 28일하오 본회의를 열고 劉彰順총리 金埈成부총리 鄭致根법무장관으로부터 張여인사건의 수사결과와 대책에 관해 보고를 들은뒤 李聖秀(국민) 劉沃祐(民韓) 李亮雨의원(民正)이 나서 질의를 벌였다. 국회는 29일상오 本會議를 속개, 對정부질의를 계속할 예정인데 이날 對정부질의가 끝난뒤 野黨측이 제출한 副總理및 財務、法務장관에대한 解任결의안을 처리한다. 국회는 또한 오는31일 운영위에서 野黨이낸 國政調査特別委구성 결의안과 국무총리 解任권고결의안을 처리키로했다.

劉彰順국무총리는 이날「最近의경제·사회문제에 관한 보고」를통해『巨額어음사기사건은특히제5공화국國政지표의 하나인정의사회구현을위해의식개혁운동이 범국민적으로 일어나고있고 당면한 경제難局타개를위해 정부와 국민이 안간힘을 쓰고있는때에 일어났다는점에서 그충격은 참으로 크다고하겠으며 정부로서는 국민여러분과 의원여러분에게 더없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謝過의뜻을 밝혔다.

劉총리는 또『이번 사건이 발생케된 큰원인은 일부기업인과 사채업자、금융인등의 의식구조가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금력과 권력지향적으로 돼있었고 制度금융의기능이 자금시장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해온 제도적결함때문 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정부는 이사건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惡영향을 最小化하기위해 우선短期대책을수립 시행 중이며 이와竝行하여 類似사건의 再發방지를위해 金融제도의 근원적인개선등 長期的인 대책도 아울러 강구중에있다』고 밝혔다.

鄭致根법무장관은 보고를 통해『이번사건은 李哲熙가 주동한 조직적 계획적 사기사건이라고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는『李는 75년 中情次長在職중 中東을 방문, 中東오일달러의 국내誘致 가능성을 타진하고 호의적반응을 얻은적이 있는데 79년 韓·中東合作은행을 설립 운영하거나미국회사와 석탄가스化공장 중장비공장등을 경영하면 재벌이 될수있다는 꿈을 꾸던중 張여인을 알게되어 張여인이 고위층의 인척인 李圭光의처제라는 사실을 알고 끈질긴 구혼끝에 결혼했다』면서『張여인의 배경과시 자신의前歷등을이용 교묘하게 入手한대기업어음을 유통시켜 高利貸金投機등으로 合作은행 설립등에 필요한 자금조성의 가능성을 갖게되었다』고 말했다.

그는『中情차장、維政會의원등을 역임하다 일정한직업없이 消日하던 李는 자신이 세운 사기계획을 張여인에게 그럴듯하게 설명하고 사파리클럽결혼식장에도 前現職의원、재벌급회사대표、은행장등을 초청, 李圭光씨로하여금 친족대표로 인사케해 과시하여 배후영향력이 있는것처럼 시했다』고 밝히고『그후 자금난에 허덕이는 기업체에접근, 張여인을 하수인으로하여 거액의 어음을사기, 이를 자금화한후 해외합작사업을 추진하는한편 여의치 못할경우 재산을 해외로 도피코자한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鄭장관은 李圭光씨의 관련사실에 대해『李씨가 韓·中東합작은행 설립인가와관련, 관계部處에 지금까지 청탁한사실은 없으며 어음사기행위와 은행장의 부정대출행위에 법률상으로보아 공범으로 인정될만한 적극적인 행위사실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히고『그러나 李圭光씨는 평소 자신의 신분을과시, 연중 세도가 행세를해 각종 非理에 관련된 사실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계속수사중에있다』고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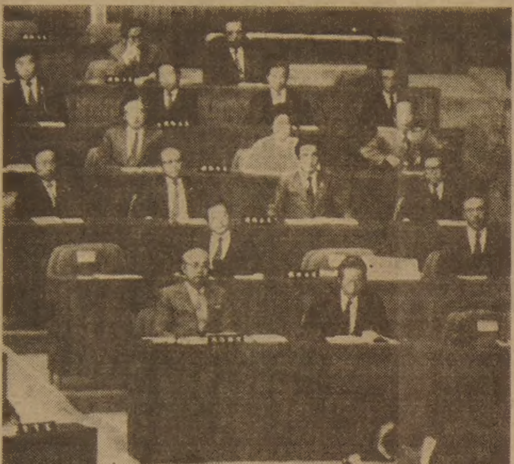
鄭장관은 이어 배후관계에 대해『權正達의원이 이사건에 관련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정치자금관련여부에대한 남… 榮士建감사로서 邊康雨사장의 매제인 金東燮과 同鄕인이기때문』이라고 말했다.

鄭장관은 검찰이 權의원을 직접소환 조사치않은것은 조사결과 權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하는등 부정행위를 한사실이 일체없음이 밝혀졌고 투서나 世論을 수사의단서로해 고급공무원이나 저명인사를 소환조사할 경우 허무맹랑한 투서내용이 진실인것처럼 왜곡돼 전파되는 예가많은점등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鄭장관은 또 李·張부부의 재산처리부분에 관해 이들부부가 포기할의사를 표명했고 李圭光씨와 張여인의 아버지등 李·張부부로부터 재산을받은 사람들이 증여재산에 대해 소유권포기의사를 표명했기때문에 이들재산은 法의 허용범위내에서 관계당국과 협의해 선의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장에 제공되도록하겠다고 밝혔다.

鄭장관은『李·張부부가 81년2월부터 82년4월까지 관련회사로부터 취득한 어음延액면총액은 모두 7천1백11억원이며 이중공영토건등에 보관용이나 담보로 제공한것과검찰에 압수된 7백7억원등할인치않은 어음액면을 제외하면 모두 6천4백4억원이 남게되고 이를 할인해 사용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날 정책질의를 통해▲검찰의 1차발표부터 최종발표에 이르는 과정에서 관련자의 범위와 범죄사실을 수정발표한 이유▲사취 어음의 총계가 발표때마다 틀리는 이유등을 들고 자금의 行方에대해 추궁했다.



◇鄭法務의 정중한 新任인사 國政조사권발동문제로 與野가 팽팽히 맞선가운데 28일하오개회된「張여인國會」。국무위원들의 보고에앞서 새로入閣한 鄭致根법무장관이 머리숙여 신임인사를 하는동안 이를지켜보고있는 국무위원석의 착잡한표정을 어느때보다도 침울하다。

國政조사特委案 제출

民韓·국민·議政同友會

總理·관계3長官 解任案도

民韓黨과 국민당및 議政同友會는 28일하오 3政派공동으로「張여인사건에대한 國政調査特別委구성결의안」과 劉彰順국무총리해임권고결의안및 金埈成부총리、羅雄培재무、鄭致根법무장관등에대한 해임안을 국회에 각각 제출, 이날본회의서발의됐다.

特委구성결의안은 林鍾基民韓、李東鎭국민당총무와金正秀議政同友會총무등 1백23명의 이름으로, 총리解任권고결의안, 부총리、재무장관解任안은 1백21명의 이름으로, 법무장관해임안은 1백20명의 이름으로 각각제출됐다.

特委구성결의안은 特委위원수를 10명으로하고 비율은 與野동수로 할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안이유에서『검찰은 이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李圭光씨외에 배후는없다고 밝혔으나 6천억원에 달하는 자금의 행방과 이엄청난 사건이 정치자금과의 관련이 없었나하는 측면에서 국민의 의혹을 더욱 짙게하고있다. 이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國政조사권을발동, 조사를 철저히하여 국민의 의혹을 풀어주어야할 책무가 있기때문』이라고 밝혔다.

野圈의 총리및 관계장관 해임요구이유는 다음과같다.

◀劉彰順국무총리=지난1월3일 국무총리로 임명된이후발생한 美文化院방화사건, 신부구속사건, 기독교인선언문사건, 지하철붕괴사건、宜寧사건과 張여인사건등으로 국민의분노와 충격을 다소라도 수습하고 책임정치의 구현과 국민화합을 이룩하기 위해서도 모든책임을 지고 마땅히 해임되어야 한다.

◀金埈成부총리=취임이후 각종엄청난 사건과 특히최근에발생한 張玲子여인의 거액어음사기사건은 가뜩이나 우리나라경제가 근4년간이나 불황의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있는이때 우리경제에 던져준충격은 엄청난 것이다. 이나라경제에 총책임을 지고있는 부총리겸 기획원장관은이에마땅히 책임을지고 물러났어야 책임정치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도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健在함은 용납할수없는일로서 해임을 의결하고자한다.

◀羅雄培재무부장관=최근에 발생한 張여인의 거액어음사기사건으로 우리 경제는 엄청난 충격을 입고있다. 이나라 재정·금융을 총괄해서 직접 책임을 질 위치에 있으며 특히 엄청난 규모의 부정대출 부분만 하더라도 직접감독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정부가 책임정치를 구현하겠다는 정신으로 본다해도 마땅히 해임되어야한다고 思料된다.

◀鄭致根법무장관=지난5월20일 검찰총장자격으로 張여인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사건의 배후세력으로 정치권력의 庇護가 전혀 없었다고 밝힘으로써 검찰이 의도적으로 사건의 진실을 은폐시키려는 底意를 나타낸바 있고, 국민의 기대와는 거리가 먼 수사발표를 함으로써 국민의 불신과 의혹을 낳게하고 정부가 표방하는 정의사회건설에도 逆行하게 됐다. 이에 검찰총장은 검찰수사의 總帥로서 검찰총장마저도 물러나야 마땅한 일인데도 법무장관으로 榮轉된 국민이 도저히 묵과할수 없는일로해임되어야한다.

아르헨軍 완강한抵抗

【뉴욕28日UPI=聯合】 포클랜드의 수도 포트스탠리와 다른 주요지역에 주둔하고있는 아르헨티나 수비대에의한 협공작전을 전개하면서 진격중인 영국군 해병대와 공정대는 현재 아르헨티나군의맹렬한저항에 부딪치고있다고 영국의보도들이 28일 전했다. 영국의 BBC방송은 이날 비공식보도를 인용, 영국 공정대원들이 산카를로스의 교두보로부터 남쪽으로 16km 떨어진 포트다윈에 주둔하고 있던 약 6백명의 아르헨티나군에 폭격을 가했으나 아르헨티나군의 맹렬한 저항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羅財務등 책임져야"

民正일부議員 주장

어제議總

民正黨의 일부의원들은 28일 의원총회에서 張여인사건의 국회대책을 논의하는도중 최근 改閣관련 재무장관등 經濟각료들을 비판하고 나와 주목을 끌었다.

이날 총회에서 韓炳寀·李珍雨·金鍾基의원등은 財務장관을 포함한 경제장관들은 張여인사건에 應分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총회는 野黨이 제출한 국무총리와 부총리·재무·법무등 解任권고및 결의안은 일단 否決시키고 이날 나온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선 黨職者들이 추후 결론을 내리기로했다고 金泰大변인이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韓炳寀의원은『아무잘못도 없는 民正黨이 黨職을 개편했는데 內閣도 응분의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고 金鍾基의원은 관계장관들은 마땅히 責任을져야한다고 말했으며 李珍雨의원은 검찰이 당초 이사건에 外換관리법을 적용한 것이나 수사발표시간을 연기한것등 일련의 처사는 不信을사는요인이었다고 지적했다.

"主犯을 李哲熙로 바꾼것은 배후焦點 흐릴素地 남긴것"

金民韓대변인 聲明

金珍培民韓黨대변인은 28일 성명을 발표,『법무장관은 국회보고중 이사건의 主犯을 張의 남편인 李哲熙로 바꾼것은 이들의 배후를 밝히려는 국민적인요구를 더욱迷宮으로 끌고가려는 것이아닌가하는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20여일동안 張여인부부를 수속수사한 검찰이 主犯이 누구인지도 몰랐단말인가。『이는 배후의 초점을 흐리려는 또하나의 소지를 남기는것』이라고 주장하고『검찰당국은 지금이라도 납득키어려운 구구한 백마디말보다도 분명히 그배후를밝히기를촉구한다』고말했다。

國調委案강력추진 民韓議總

民韓黨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임시국회에서 國政조사特委구성만이 張여인사건의 의혹을 푸는 길임을 강력히 주장하는 한편 5일간의 會期중 張여인사건의 배경、배후와 자금행방등을 철저히 추궁키로했다.

의원들은 이날 당지도부및 원내총무에대해『국정조사권발동에 실패할때 黨의대책을 밝히라』고 요구했으며 특히 일부의원들은『特調委결의안이 폐기됐을때의 대책을 밝히지않고는 국회에 들어갈수 없으며 국정조사권발동을 위해 82명소속의원의 의석을걸고 비장한 각오로 싸워야한다』고 주장했다。

全대통령、接見환담 在日民團 간부15명

全斗煥 대통령은 28일 하오 청와대에서 在日한국居留民團중앙본부의 張聰明단장、朴成準의장、許允道감찰위원장등 간부15명을 접견하고 환담했다。

全대통령은 이에앞서 西部오스트레일리아의 레이먼드·오코너 수상을 접견했다。

이자리에는 鄭寅用기획원차관、梁正模국제그룹회장、피터·버논·존스西部오스트레일리아 動資部장관、포코크駐韓오스트레일리아대사등이 배석했다。

제도金融 활성화 私債수요를 축소

金埈成 부총리는 이날보고에서『私債시장이 갖고있는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韓國開發研究院이 중심이되어 관련전문가를 총망라한 특별작업반을 구성하여 충분히 연구토록하고 그결과를 토대로장기대책을 마련하는등 立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제도금융자체를활성화하여 사채에대한 수요를줄여나가는 한편 기존의 금융기관외에도 새로운 금융기관의 설립을 허용하는 방향을 연구하겠다』면서『사채의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를납부하면서 하도록하는 방안을검토중』이라고 밝혔다.

金부총리는 또『그동안의 성장위주 개발전략이 가져온 경제의 구조적인문제와 단기 경기적인 요인을 동시에해결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社会漫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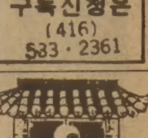
자! 풀수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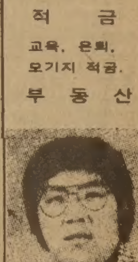
地平線

좀 묵은 얘기를 해야겠다. 69년10월 필리핀의 작은섬에서、오노다(小野田寬郞)라는 일본군 육군소위가 붙들렸다. 전쟁이 끝나던 해, 게릴라戰의 지도자로, 敗退뒤에는 敵後방에 남아 첩보활동을 계속하는「殘置諜者」로 현지에 파견됐던 장교다. ▼그는 명령을 받들어 28년간이나 밀림속에 숨어 살았던「텐노·(日皇의 호칭)의 마지막 충성스런 군인」이라고 해서, 일본은 물론 온세상의 화제를 모았었다. 그가 바로 일본군의 첩보학교인「육군 나까노(中野)학교」출신이다. 전쟁 때의 구식총을 말끔하게 지니고, 끝까지 총격전을 벌였던 그의 「군인정신」은 나까노학교의 「전설」을 다시 일깨웠다. ▼나까노학교의 역사는 그리 길지않다. 전쟁을 앞둔 첩보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 학교가 발족된 것은 37년。 그래도 우수한 장교만을 뽑아 첩보의 기법을 집중훈련시켜, 여러戰線에서 큰 구실을 했다。 사병출신인 오노다 소위는 이 스파이학교의 정규코스가 아닌,「후따마따(二俣)분교」출신이다。▼분교의 발족은 44년。 패색이 짙어지자, 게릴라戰요원의 대량양성을위해 3개월 단기코스를설치한것이다。 교과목에는「僞裝法(變裝등)」「候察法(深層정찰)」「開鎖法(열쇠따기)」등이 들어 있었으나, 첩보보다는 유격전과「殘置」에 중점을 두어「파괴·殺傷法」「格鬪術」등을 주로했다。 오노다 소위는 이코스의 제1기생。▼전쟁이 끝날때까지의 후따마따 졸업생은 모두 3기뿐이다。 제1기가 1백여명 이었다니까, 통틀어 그 수는 3백남짓일 것이다。 그 가운데 하나인가 둘뿐이라는 한국인으로, 李哲熙란 이름이 오르내린다。 그러나 나까노는 본디가 장교코스다。 후따마따는 見習사관중에서 우수한 자만을 뽑았다。 사병중에서 시험을 거쳐 단기 사관교육을 받은사람들이다。▼이들틈에 일본군의 한국인 伍長(下士)、소학교만 나온 사람이 어떻게 끼었을까。 더구나 그는 전쟁이 한창이던 43년 우편환을 훔쳐 위조한 죄로、1년을 옥살이한 소년범임이 밝혀졌다。 그가 伍長이었다는 얘기마저 의심해야 할판이다。▼검찰은 이제야 그의 나까노 경력을 조회중이라고한다。 수사란 그렇게 더딘것인가。 싫기도 하지만, 막강했던 그의 경력을 돌이켜, 세상은 이토록 어수룩했던가 생각하게된다。

한국일보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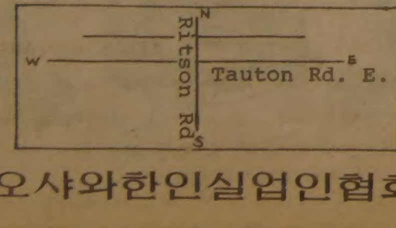
김신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건물
• R·R·S·P.
922－3111 (B)
793－5531 (R)
791－8196 (R)

공고

아버지날을 계기로 하여 당협회에서는 골프대회를 갖고저 하오니 참가하여 하루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일 시: 1982년 6월19일(토) 11시 30분
◉장 소: KEDRON DELLS GULF COUNTRY CLUB
◉연락처: 666－1727
회장 이영민

1 Mile N. of Taunton Rd.



오샤와한인실업인협회

마야 미용실

개업인사 및 특별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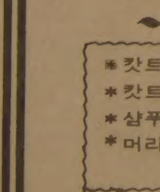
교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저희가 블로아에 미용실을 새로 개업하고 여러분을 모시고 특별봉사로 성심 성의껏 모시고자 하오니 한번 꼭 찾아 주시면 더없는 영광으로 모시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개업일 : 1982년5월1일
봉사기간 : 5월초～6월말까지(2개월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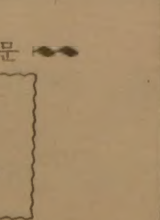
HAIR 부문
* 캇트, 파마및 스타일 $25 & up
* 캇트 및 스타일 $9
* 샴푸 및 스타일 $8
* 머리염색 $12 & up

MAKE UP 부문
* 신부화장
* 파티화장
* 스테이지화장
* 심는 속눈섭 전문
* 신부드레스 대여

※머리가 상하신분 또는 헤어 스타일에 항상 불만스러워 하시는 분은 한번나와 주세요.
미용경력 : 14년


헤어스타일이스트 김영주

63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서울여행사2층)
588－1480(B) 243－8026(R)


화장스페샬이스트 클라라 홍

LEON'S 가구점

캐나다 최대규모의 WHOLE SALER (SINCE 1909～)

○FURNITURE
CARPETS
APPLIANCES
각종전자제품
(T.V, STEREO, 냉장고, 후리저, WASHER, DRYER, DISHWASHER, AIR CONDITIONER, VIDEO 등)

※오시기전에 미리 전화하십시오.
월～토(10 : 00am—10 : 00pm)

20 MC LEVIN AVE.
(셰퍼드×마캄)
B)291－3818
R)749－9687, 746－0981
KEVIN CHO(조석민)

정부、國會대책論議
劉총리주재 관계長官회의

정부는 27일낮 중앙청후생관에서 劉彰順국무총리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제113회 임시국회 대책을논의했다。

수警을겸한 이날 회의에서는 주로 張玲子여인사건과관련한 수사결과、경제활성화대책、금융제도개선책등 對國會보고방안및 野黨측질의에 대한 답변대책등을 논의한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金俊成부총리、羅雄培재무、鄭致根법무、李官基동자、金東輝상공부장관과 金在益靑瓦臺경제수석비서관등이 참석했다。

景氣 7개월만에 "꿈틀"
4월指數、3월보다 0·6%늘어
出荷·가동률 다소증가
先行지수는 0·1%증가에머물러

작년 10월이래 계속내리막길로 악화일로에 있던 경기동향이 지난 4월들어 7개월만에 처음으로 하강세를멈추고 회복세로 微動하는 기미를보였다。

27일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지난 4월중의 경기지수는기업의 제품출하、가동률、제조업고용、도소매판매액의 완만한 증가에 힘입어 전달보다0·6% 증가했다。

그러나 2~3개월후의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는張여인사건의 전조로 證市에이미 파다했던 유수건설업체부도설로 株價가 크게떨어지고 수출신용장 내도실적도부진、3월중의 증가세1·3%보다는 크게뒤진 0·1%의 증가에 머물렀다。

경제기획은 불황기의 경기선행지수가 실물경제에 영향을 파급시키는 기간은 평상시와는달리 1~2개월로 단축되는 경향이라고 지적하고 5·6월중의 경기동향도 계속 완만하나마 상승세를 계속할수 있을것으로전망했다。

4월중의 산업생산、건축、투자등 주요경제지표동향은 다음과같다。

▲생산=시멘트 전기냉장고등이 호조를보여 3월중에는 원지수가 2·7%감소를 보였으나 3·4%증가로 반전됐으며 계절적 요인을 감안한 조정치로도 2·6%가 증가。

▲出荷=전기냉장고 57·5% 승용차 56% 농업용트랙터 6백56·1%씩이나 크게 증가한데 힘입어 지난3월의 보합세에서 원지수나 계절조정지수가 모두 4·7%와 2·9%등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작년같은달과 작년동기대비로도 9%와 2·5%가 늘어났다。

▲재고=3월중의 보합수준에서 實物在庫는 0·5%증가에서 0·2%증가로 둔화됐으나 계정조정지수는 1·9%로 약간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서울도소매거래=3월의 10%증가에서 4월중에는 1·5%증가로 증가세가 둔화됐으나 여전히 증가세를 유지하고있다。

도매액지수는 전월대비 7·1%늘어난데반해 소매액지수는 3·7%가 줄어들었다。

▲건축허가면적=지난3월중 1백10·8%의 대폭적인 증가에도 불구、4월중에도 7·6%의 증가세를 보였는데 공업용이 26·3% 늘어는데 반해 주거용과 상업용、기타는 13·3%、10·8% 4·2%가 각각 늘어났다。

신임 駐韓칠레大使 劉총리、接見환담

劉彰順국무총리는 27일 카롤·로피시·다피도손 新任駐韓칠레대사의 예방을 받고 환담했다。

今世紀최장 皆旣月蝕
美천문학자 예측 7월초에 2시간동안

【마이애미26日UPI=聯】오는 7월초 금세기들어 최장기의 개기월식현상이 일어나 극적인 장관을 이루게될 것이라고 미국의 한 천체전문가가 26일 예측했다。

마이애미 우주 자오선천문관의 재크·호크하이머 소장은 금세기들어 가장 오랫동안 지속될 개기월식현상이오는 7월6일 하오3시38분부터 5시24분(한국시간)까지 나타날 것이라면서 날씨가맑을경우 서반구 전체는 물론 서쪽끝 뉴질랜드에서도 이현상이 관측될수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개기월식동안 대기권의 먼지때문에 달이 붉은색을 띨 것이라면서 대기오염이 심할수록 달빛이 더욱 붉게 보일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컴에 명예會員證
金鍾煥 향군회장

재향군인회 金鍾煥회장은 27일 미육군참모차장으로 영전하는 주한유엔군사령관 위컴대장에게 재향군인회 명예회원증을 전달했다。(사진)

尹河珽 駐濠洲대사
5分間 인터뷰
태평양頂上회담 제의로 國力신장 과시
濠、白人위주정책철폐 한국인進出 유망

『全대통령이 제의한 太平洋頂上회담案에 대해 프레이저수상은 원칙적인 贊意를 표시하고 깊은관심을 보였읍니다。프레이저수상 자신도 수년전부터 태평양沿岸국가들이 지역 안정과 발전문제에관해 흉금을 털어놓고이야기할수있는기구의필요성을역설해왔지요』

맬컴·프레이저濠洲수상의 訪韓관계로 一時귀국중인 尹河珽駐濠大使는『태평양頂上회담제의는 한국의 國力신장을 對外的으로 과시하는 또하나의 外交的이니셔티브』라고 풀이했다。

—이번 프레이저 수상이 한국을 다녀간 배경은。

『10·26사태를겪은 한국이 빠른시일내에 경제와사회적인 안정을 되찾게된데 관심을 갖고 직접 한국의 지도층과 국민들을 만나보고 싶다고 생각했던것이지요。그동안 몇명의 濠洲각료들이 우리나라를 다녀갔읍니다만 그들로 부터 들은한국보다 직접 눈으로 본 한국이 훨씬 발전됐고 활기에 차있다고 측근들에게 소감을 밝혔다는 얘깁니다』

—프레이저 수상은 韓濠간의 交易에서 우리측의 무역逆調가 당연한것처럼 말했는데。

『우리나라가 濠洲로부터 原資材를 수입하여 加工수출하기때문에 정부가 개입하기보다는 민간레벨에 맡겨야한다는 의미인것 같습니다。우리가 수출하는 신발류나 衣類에 관한 쿼터는 있지만 이것은 한국뿐만아니라 어느 나라에도 적용하는 것이지요』

尹대사는 濠洲는 우리나라 鐵鑛石수입의 40%、석탄의 60%、양모의 80%를 공급하는 주요資源國。내년부터는 우라늄도 들여오기 때문에 우리工業발전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있다면서 반면에 우리의 對濠수출액도 작년의 2억9천만달러에서 금년에는 3억5천만달러로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한국인의 移民에 대한 濠洲의 門戶開放가능성은。

『과거의 白人위주의 移民정책(白濠主義)을 철폐하고 지금은 人種차별없이 年7만명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지난3년간 한국인移民數는 1천5백여명으로 다른 아시아국가들에 비해 편입니다。濠洲는 자유주의 국가중에서는 캐나다에 이어 두번째로 넓은 國土를 가지고있지만 인구는 1천4백여만명에 불과하여 산업개발과 경제발전을 위해 더많은 인구를 필요로 하고 있지요。한국이민들이 교육수준이 높아 濠洲의 발전에 寄與度가 높을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문호가 확대될 가능성이많습니다』

—濠洲와 北傀관계가 다시 再開될 가능성은。

『가까운 장래에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75년 북괴가 濠洲정부에 사전통고없이 일방적으로 철수한후 79년이후 관계재개를 시도하고 있으나 濠洲정부는 南北대화에 응하고 소련과 중공및 東歐공산국들이 한국을 승인할때까지는 외교관계를 재개하지 않겠다고분명히 밝힌바 있읍니다』【李在武기자】

蘇KGB 신임議長 페도르추크
얼굴
39년첫발… 40여년 몸담아
波사태등 관련 對西方강경

소련의 막강한 비밀경찰인 국가보안위원회(KGB)의장으로 26일 임명된 비탈리·페도르추크(64)는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지지않은 회색머리에 땅딸막한 키를 가진 우크라이나태생의 직업 KGB간부출신이나 서방 외교관들은 그를 대 강경주의자인 것으로 보고 있다。

20대 청년의 공산당원으로 지난1939년 KGB에 몸을 담은 페도르추크는 1970년 고향 우크라이나 KGB 지부장으로 임명됐다。서방외교관들은 그가 이자리에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에대한 KGB의 빈틈없는 통제를 감독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서방이 소련및 동맹국 특히 폴란드에 이념적 사보타지를 벌이고 있다는 작년 10월의 강경한 대서방경고에서 그의 사고의 방향을 점칠수 있다。

페도르추크는 우크라이나의 한 공산이론지에서 폴란드가 反사회주의 세력에 의한 활발한 사회주의전복의 광장으로 변했으며 이들 반소세력들은 소련과 복활동이 이념적·정치적으로 확고한 사상을 갖추지 못하고 민족적편견이나 종교적마약에 오염되거나 또는 도덕적으로 부패한 일부 소련시민들 사이에 효과를 내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페도르추크는 미국과 다른 나토(北大西洋조약기구)국들이 폴란드위기를 이용、사회주의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자본주의를 회복시키려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의 전임자 안드로포프를 계승함으로보드였던 2명의 KGB수석부위원장 게오르기·치네프(74)와 빅토르·체브리코프(59)를 물리치고 의장에 임명됐다。【외신=聯】

통일교 文鮮明목사
美地法、증인출두령

【뉴욕AP=聯】뉴욕 맨해턴의 연방지법은 통일교 교주 文鮮明목사에게 한 통일교신도가 신앙을 부인토록 강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9백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두하라고 명령。

통일교신자인 앤터니·콜럼브리토는 자기부모들의 요청을 받은 갤린·켈리란 사람이 지난79년 킴스턴근처의 한 농가로 강제납치、18시간 억류하고 통일교를 거부하도록 강요했다면서 켈리와 하수인2명을 걸어 소송을 제기했었다。

켈리의 변호인은 통일교가 文목사와 주변인물들을 위한 영리단체가 아니라 진짜종교단체임을 입증하도록 법정에 나와 증언해야된다고 요구、담당판사가 이를 허가했다。

農機생산업체 전문화

상공부는 농촌인력의 도시진출로인해 수요가 늘어나게될 농기계의 원활한 공급과 사후봉사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機種別전문생산업체를 지정육성키로하는 한편 신규업체의 참여를 일체 불허키로 했다。

27일 상공부에의하면 이같은 조치는 각종 기계생산업체들이 앞으로 수요가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이앙기·바인더·트랙터·콤바인등의 생산에 참여할 움직임을보임으로써 과당경쟁에의한 부작용을 사전에막기위해 취해진것이다。

內外動靜

▲全斗煥 대통령은 27일 도미니카공화국의 살바도르·호르헤·블랑코대통령당선자(지난16일당선)에게 축전을 보냈다。

▲李在煥국회商工위원장과 柳在熙(民韓)·金順圭의원(議政會)은美國녹스빌에서 열린 세계에너지박람회의「한국의 날」행사와 韓美修交1백년 기념행사에 참석한뒤 27일하오 귀국했다。

人事異動

▲監事 鄭 [illegible] (27日字) 農組聯合會

本社來訪

▲鄭漢株씨(勞動部長官) 新任人事次

社說

治安解弛 없어야
—잇단事件·事故에 集中對策바란다

宣寧사건의 총소리가 벌써 아득한 것같다。李哲熙·張玲子씨부부 사기사건에 모두가 휩쓸린 탓이다。

「건국이래 최대의 사기사건」이 회오리치는동안 크고 작은 많은 사건·사고가 그그늘에 가려버렸다。連打를 당해 어리둥절했던 뉴스感覺이、다른 사건·사고에 눈돌릴 겨를이 없었다고 해야할지 모른다。그만큼 張여인사건은 컸다。

하지만 그사이에도 간과못할 사건·사고는 많았다。宣寧사건이난 무렵을 살펴보면、한달사이 光州와 東海등지에서 은행갱이 2건이나 발생했다。훔친 차를몰아 잠시사이 3군데를털던「번개강도」란것도 있었다。그밖의「식칼강도」「복면강도」따위 1단짜리사건은 하나하나 꼽기가 어렵게 많다。

그러더니、급기야 신문에『대낮凶器강도잇달아』라는 큰 제목(한국일보27일자11면)이 꼽혀 나올 지경이 되었다。副題는『제집 드나들듯 유유히 가정집 털어』라、ㅁ 차게하고있다。

사고 또한 많다。관광버스가 벼랑을 구르고、시내버스는 도랑에 처박히고、해상에서는 쾌속정끼리 맞부딪치기도했다。

李哲熙·張玲子씨 사건은 경제를 온통 뒤흔들었다고 하지만、꼬리를 문 사건·사고는 시민생활을 직접위협한다。잇단 사건으로 불안정해 진마음을 더욱 어수선하게 만든다。

걱정스럽기는、큰 사건의 후유증으로 남는 解弛다。충격을 받아 멍해지는 大腦生理的 현상이、행정의 治安感覺이나、시민들의 自衛意識에 미치고 있다면 큰일이다。

宣寧사건이 난 직후、경찰관과 시민간의 路上 시비가 잦았었다。李哲熙·張玲子씨 사건뒤에는 점잖한 법이를 부끄러워하는 自嘲섞인 언동을 자주 듣고 보게되었다。이런 것들이 秩序편에 선 사람들의 기를 죽이고、그에 대적하는 사람들을 담대하게 만들 것은 틀림이없다。게다가 불경기의 꼬리가길다 보면…。그사이의 사건·사고를 꼽아 보며 걱정이 더해짐은、신경이여린 탓만은 아니다。

엄청난 사건들을 겪으며、가장 흔히 들린 말중의 하나가「民心收拾」이었다。아마 그 뜻은 民心을 가라앉히고、신뢰감을 되살리게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가장 초보적이고、요긴한 것중의 하나가 완벽한 치안의 확보일 줄안다。재산과 생명을 불안해 하거나、치안상태를 믿음직하게 느끼지 못하면、별달리 큰 사건이 없다고 해도 民心이 차분해질수는 없다。

그런만큼 통계숫자를 들어、요즘 사건·사고가 예년보다 많은것은 아니라든가、검거율이 어떻고、외국도시의 경우가 어떻고를 들먹일 것은 아니다。

치안을 책임진 사람들은 요즘의사건 사고 추세를、통계숫자 아닌「民心」의 거울로 살필줄을 알아야 한다。

그런 안목에서볼때、지금 가장아쉬운 것은 秩序에 대한 신뢰회복이며、그 1차적인 책무는경찰에 돌아갈수밖에 없다。그 책무의 막중함을 아는 시민들은 宣寧사건뒤 경찰은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궁금해한다。

경찰스스로도、과연 경찰은무엇이달라졌는가를 생각해 볼때다。경찰관의 봉급을 어떻게 하고、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한 住民申告網을 만들고하는 따위의 거창한 얘기들은、오히려 시민들 처지에서는 거리가먼 얘기에지나지 않는다。

그 보다야、「대낮강도」를 막아주는 경찰、「식칼강도」를 잡아주는경찰이 피부에 와 닿는 고마움이다。實績이 꼭 그래야한다는 것이 아니라、그를 위해서 전보다 더 노력하는 경찰像이 아쉬운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개혁의 거창한구상이 있어야 하거나、그 성취를 기다릴 것은 없을줄안다。「대낮강도」의 빈발을 생각하여、한낮 방범활동에 허점이없는지 살피며、도보순찰을 강화하는등의 기초적인 대책이 더 급하다。

바야흐로 여름철에 접어들어、생활이 개방적으로 되면、시민스스로의 범죄방비가 허술하기 쉽다。여름의 자극이 커지면「충동범죄」「짜증범죄」가 늘어난다。뒤이어 닥칠 장마철의 대형사고도 걱정이다。여름마저 어수선하지 않게、경찰은 물론、우리 모두에게 만전한 대비가 있어야 할것을 생각한다。

잊혀진 騷音의 消音策
—조용한 市民生活 보장할수 없나

세상이 너무 시끄럽다。어처구니없는 사건들이 꼬리를물고 일어나는 지금의 세태를 갖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밤낮을 가리지 않는 생활주변의소음을 두고 하고픈 말이다。

서울은 말할나위도 없고 웬만한 중소도시까지 쉴새없이 달리는 자동차의 소음에 시달리게 된지 오래다。

시민생활의 영위를 위해서는 버스와 트럭같은 대형차량은 물론 승용차·택시등 소형차량의 운행도 필수적이니 그 자동차들로 인한 소음을 전적으로 없앨방도는 당장 없다。

서울시내 4대문 안의 중심가와 간선도로변 주택가의 소음치는 거의65데시벨이 넘어선지 한참 되었고 한강변 아파트지역은 75데시벨 이상의 소음속에서 살고 있는 곳도 있는 형편이다。

국제표준기구가 제시하고 있는 소음기준치는 55데시벨이고 65데시벨이상이면 주거지역으론 부적합하다는것이다。그러고보면 이제 우리의 환경권 가운데서 일조권에 못지않게 방음권도 무거운비중을 차지하게 된것임을 깨닫게 한다。

따라서 환경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각종자동차의 소음을 제도적으로 규제하기위한 조치를 강구하려하고있다。현재 자동차에대한 소음규제는 도심지역에서의 클랙슨사용금지규정 뿐이나 앞으로는 각차종별로 주행소음의 상한을 규정하고 이를 초과할경우 단속할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도시의 소음원은 자동차만이 아니다。새벽 단잠을 설치게하는 사찰이나 성당 또는 교회의 종소리에 보태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새없이 이어지는 각종 마이크소리등 각양각색이다。

특히 행상인들의 마이크소리는 그것이 아무리 생계의 수단이라고는하나 주택가의 고요를 뒤흔들어 짜증을 가중하고 심지어 어린이들이 경기에 걸리게하며 병약자와 노인에게 고통을 유발시키는 사단까지 빚으니 무시할수 없는 소음원으로 등장하고있다。

거기다가 동사무소와 무슨회관 또는 심지어 시내공원 사적지 같은곳에서도 고지사항을 알리는 수단이나 야유용으로 흥을 확성기를 쓰고 사찰에서 조차 송경소리의 녹음을 확성기로 흘리는 판국이다。공휴일에는 공원의 소음이 유독심하여 인근주민들의 고요하고 안정된 생활 환경을 짓밟는 실정이다。

이제 바람소리와 풀벌레며 새가우짖는 소리、물 흐르는 소리와같은 자연의 그윽한 숨결 소리를 들을수 있는 귀는 차츰 무디어져 조용한 소리와 나지막한 말소리가 발붙일곳을 잃은듯한 느낌이다。

소음의 공해 속에서 삶을 영위하고 스스로의 생존을 확인하는 발돋움으로지 남보다 더 높은 고함을 터뜨리고 보다 날카로운 금속음을 내는것만이 유일한 방도이기라도 한듯 거리에는 우정 소음기를 뗀 오토바이를 전속력으로 몰아대는 사람이 많아졌다。그들은 굉음에 보람을 느끼지언정 이웃의 곤혹엔 아랑곳없는 무뢰한들이다。당국의 엄한 단속이 따라야 할것은 물론이다。

생활주변의 지나친 소음은 중추신경을 늘 긴장케 하고 고혈압과 신경질환등 현대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거니와 이제는 쾌적한 생활을 위협하는 원흉으로서 그 대응책이 시급한 시점에 이르렀다。

환경청당국에 의한 행정적인 대응책도 있어야 하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제마다 스스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일상생활 속의 소음들을 줄이는 노력과 배려가 있어야한다는 것이다。이같은 노력과 배려가 속히 생활화 되어야 할것은 말할나위도 없고 한걸음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공동으로 유기적인 유대를 지니며 외적소음공해의 여러 요인들을 고발하고 추방하는 시민운동이 전개되어야 하겠다。

그것만이 우리의 쾌적해야할 삶을 시끄러운 세상으로 만든는 소음공해를 추방하는 첫걸음인가 싶다。무더위와 더불어 이제는 집집마다 창문을 개방하고 문밖에서 이뤄지는 사람들의 행동량 또한 크게 부푼다。이경우 소음은 더욱 생활의 公敵으로 되게마련이다。

與野총무「國政조사特委」놓고 한치의 양보없는 接戰

政局往來

◆無關밝혀진이상 자신갖고 일해야

民正黨총재인 全斗煥대통령은 26일저녁 丁來赫국회의장과 [illegible] 대표위원、權翊鉉사무총장、李鍾贊총무、陳懿鍾정책위의장등 民正黨의 5役들을 靑瓦臺로 불러 만찬을 나누며 환담。

최근의 黨職개편으로 신임당직자들을 격려하기위해 마련된 이날 만찬에서는 주로 張여인사건에 관련된 얘기가 오갔는데 특히 民正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 검찰의 철저한 수사결과로 밝혀진 만큼 당직자들은 [illegible]

[illegible]

◆民正…질문原稿사전검열않을터

民正黨은 26일하오 국회對정부질문에 나설 의원들의 간담회를 갖고 질문범위를 조정한데이어 27일하오에는 李鍾贊총무및 총무단과 함께 질문의重點을 어디에 두느냐는 문제를 논의。

[illegible]

◆黨內여론따라 看板질문자 格上

[illegible]

◆閣僚引責싸고 共同戰線에混線

[illegible]

MLS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HWANG

금주의 새리스팅

1.(버라이어티 스토아)
주매상 13,500
8,000
6,500
6,000
4,000(일요일 닫음)

2.(버라이어티 스토아와 건물)
다운타운 바쁜 네기리 위치
코너 스토아
주매상 7,000~8,000(2,3층에 아파트 4개 달린 건물)
가격 43만불

3. 도낫츠·숍
• 일요일 닫고 하루 12시간만 영업
년 순수익 52,000불
가격 13,5000불
• 주매상 8,500, 7,500불 이외에 쇼핑센타내에 있는 몇몇 Gift 및 Smoke Shop도 있음.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5 (B), 286-1548(R) M3B 1Z3

축
일간발행 1주년

토론토 · 한국일보의
무한한 발전과 성장을 축원하오며,
더욱 교민사회를 위해 일해주는 신문이
되어주기를 기원합니다.

최상봉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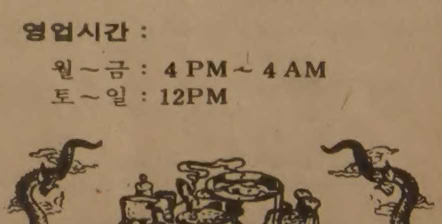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4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4 PM ~ 4 AM
토~일 : 12P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 와 Chestnut 코너)
977-9734

"交通사고 多發업체라도 免許취소조치 不當하다"

"不利益 고려안한 制裁는 재량권 限界넘어선 違法"

光州高法

【光州】光州고법특별부(재판장尹錫命부장판사)는 최근 光州태광운수와 서광교통등이 전남도지사를 상대로낸 행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도가 두회사소속택시 4대에대해 운수사업면허취소(감차)처분을 내린것은 이를 취소한다』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자동차운수사업면허와 같은 수익처분에대한 축소는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이유만으로 취소할수없고 취소해야할 공익상의필요와 취소로 인해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결정해야한다. 그런데 위의 취소처분은 공익상 필요보다도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막대하다 할것이므로 그재량권을 이탈내지 남용한 위법』이라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태광등 두 운수회사는 난해1월부터 6개월사이에 행정처분을 받았던 택시 4대를 비롯한 회사차량들이 각각 10회와 12회의 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지난해11월10일 면허를 취소당하자 이에 불응, 소를 제기했었다.

한편 이같은내용의 행정소송은 28일현재 서울고법특별부에도 경기城南시내 合同운수(대표 최차량)등 7개회사가 소를 제기해놓고있으며 서울시도 사고지수가 7이상의 면허취소대상업체가 2개있으나 보류하고있다.

서울시의 한간부는 교통사고요인이 많은 서울지역에대해 다른지방도시와 똑같은사고지수를 적용하는것은 무리라고지적, 수정적용 해야할 것이라고 밝히고있다.

한편 光州고법은물론 서울고법의 많은 판사들도『면허취소의 근거가되는 교통부훈령680호7조는행정청내부의 행정규칙 또는 명령에 불과할뿐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는견해를보이고있다.

이밖에『행정부처의 훈령은 국민에 대해 불이익을 가져다줄 기속력을 가지는것은 아니며 내부 지침에 불과하다』는 견해도 나오고있다.

설사 취소처분의 정신을 인정한다해도 교통사고가 많았다고 해도 ▲불가항력적이었는지 ▲사고의 경중 ▲피해자 과실의 경합여부등을 감안해야지 무조건 1건1점주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교통부는 지난해5월 연평균 15·6%씩 증가하는 교통사고율을 10%미만으로 낮추기위해 사고다발업체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 버스와 택시회사의 경우 사고건수(×10)에 따라 ▲1단계는 경고와 함께 1년간 증차나 노선증설을 해주지않고 보유대수의 5분의1을10일간 운행정지 ▲2단계는 수익성이 가장 큰 운행계통의 인가를 취소함과 동시에 업체 명단을 공개하며 ▲2차 처분업체가 다음해에도 2차사고지수(시내버스15·택시9)에 달하면 사업면허를 취소키로하고 각 도지사에게 이의 시행을 위임했었다.

「輪禍王國」오명씻기 정책에 制動

세계제일의 자동차사고王國이라는 오명을 벗기위해 교통부가 마련한「사고다발업체 면허취소」라는 강경책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잇달아「사고를 자주 냈다는 이유만으로 면허를 취소하는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선 위법행위」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리고 있기 때문. 이것은 교통부가 교통사고 다발업체에 대한「엄포정책」을 후퇴시키거나 관계법규를 개정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된것을 의미해 늘 피해자이게 마련인 시민들만 어리둥절하기만 하다.

내년 公休日 모두 63일

이틀·사흘連休 각 두차례씩

새해에 쉴수있는 공휴일은 모두 63일이다. 28일 국립천문대가 밝힌 83년월력(月歷)에 따르면 새해에는 52일의 일요일과 15일의 법정공휴일(신정연휴 3일포함)등 67일의 공휴일이 있는데 이가운데 신정연휴중 하루(1월2일)와 제헌절(7월17일), 한글날(10월9일) 성탄절(12월 25일)등이 일요일과 겹쳐 결국 실제 공휴일은 63일이된다.

새해는 돼지해(癸亥年)로 단군개국 4316년이 되는 해인데 현충일(6월6일)과 광복절(8월15일)이 월요일이어서 2일의 연휴가 2회, 국군의 날(10월1일)이 토요일인데다 개천절(10월3일)이 월요일이어서 신정연휴(1월1~3일)와 함께 3일간의 황금 연휴가 2차례나 포함돼있다.

"여관은 投宿客생명 保護의무"

釜山地法 2명燒死에 5천8백만원 賠償판결

【釜山】부산지법제5민사부(李永一부장판사)는 28일 방화안전장치 미비로 투숙객2명을 질식사하게한 西區岩南洞131 松和여관 주인李弼守씨(62)에게 5천8백7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유가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관주인인 피고가 불의의 화재발생을 예상, 투숙객들의 생명과 신체에 안전을 보호하기위한 제반조치를 사전에 강구할 주의의무를 태만히 했기때문에 모든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판시, 숨진 김연진씨(37·여·부산진시장 상인) 가족에게 3천2백70만원, 김창영씨(45·제일사교장 악단장) 가족에게 2천6백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숨진 두남녀의 가족들은 월간수입이 37만8천원~40만원이었다며 1억1천1백5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소장을 냈었다.

불륜의 관계를 맺어온 두 남녀는 지난해 8월31일 하오2시30분께 이여관 201호실에 투숙했다가 누전에의한 화재로 탈출하지 못하고 숨졌었다.【釜】

韓·中東銀 추진 과정에서 三星·럭키·現代등과 접촉

李·張부부

李哲熙·張玲子부부는 韓·中東합작은행설립을 추진하는과정에서 현대 삼성 럭키 코오롱 삼익 삼부등 10개 대기업체의 대표들과 접촉, 자금을 끌어들이려 했던것으로 검찰수사결과 밝혀졌다.

28일 검찰에따르면 鄭周永현대그룹 대기업체대표들을 李씨가 직접만나 韓中합작은행설립자금조성을위해 1~2%의자금을 투자해줄 것을요청했으나 이들기업체간부들은 실현가능성이 희박해 거절했다는것.

李씨부부는 또 지난해 연말께 자신들의 사기행각이 탄로나게되자 코오롱그룹과 접촉, 코오롱건설과 코오롱 慶州호텔을 90억원에 인수, 코오롱회사의 신용을 담보로 어음을 발행, 이를 막으려했음도 드러났다.

검찰의 한간부는 李哲熙는 주로 어음사기를위해 대기업체 간부들을 접촉하고 張여인은 사채시장에서 어음할인과 사채동원을 맡는형식으로 역할이 분담됐다고 밝혔다.

서울大生 3명令狀 校內示威선동 혐의

서울冠岳경찰서는 28일 서울大 鄭光哲군(22·전산공학과 4년), 金昌洪군(22·기계설비과4년), 金甲植군(22·수학과4년)등 3명을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27일 상오11시40분께 인문사회관1동3층 난간에서「우리는 승리한다」「시국선언문」등 2종의 유인물 2백여장을 뿌려 시위를 주동했다는 것이다.

女學生의날 연기 서울大, 示威관련

서울大는 27일의 冠岳캠퍼스내 학생시위사태와관련, 학도호국단 여학생부주최로 29일 열릴 예정이던 여학생의 날 행사를 무기한연기했다. 당초 서울大는 29일을 제1회 여학생의날로 정하고 마라톤 피구등 체육대회와 탈춤강습등의 행사를 가질계획이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83-2881

비타민·한약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B536-1692 H245-3539

大清湖에 남자 토막屍

팔·몸통만… 다리·머리는 못찾아

【清州】大清湖토막시체 유기사건을 수사중인 清州경찰서는 28일상오11시께 大清湖부근 文義面德留里에서 피살자의것으로 보이는 가죽혁대와 구두를 태운흔적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어 이날낮12시5분께 최초로 팔이 발견됐던 大清湖순환관광도로변 자갈밭에서 핏자국과 타다남은 대형종이박스1개를 찾아냈다.

호수에서 북쪽1백80m의 관광도로 하수구에서 다리와머리가 잘린 몸통부분시체도발견했는데 시체는 옷이 모두 벗겨있었으나 부패가 심하지는않았다.

또 경찰은 이날 하오2시 몸통발견지점에서 新灘津쪽으로 8m떨어진 관광도로변 시멘트방책 2곳에 흥건히핀 핏자국을 발견하고 이 일대를 중심으로 나머지 다리와 머리부분을 찾고있다.

경찰은 범인이 인근 숲이 울창한 산속에서 범행한 다음 토막낸 시체를 박스에 넣어 차에 싣고 핏자국이 발견된 2개장소를 중심으로 토막난 부위를 나눠 버렸을 것으로 보고 범행흔적을 추적하고있다.

한편 이피살자의 양쪽팔은 27일 文義面德留里 수경상회 주인 송병억씨(40)와 송씨의 신고를받은 경찰에의해 大清湖에서 발견됐는데 왼쪽팔에는 영문자로 OINSEM이라는 문신과 담뱃불로 지진 자국, 칼자국 등이 있었다.

◇대청호 토막살인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호수주변 도로 암거속에서 팔·다리없는 몸통부위를 찾아내고있다. 【28일 清州=鮎】

叔母, 通話사실부인 鄭載巴군 6회公判

【崔奎植기자】 여대생 朴尙恩양 피살사건의 鄭載巴피고인에대한 6회공판이 28일상오10시 서울지법 東部지원형사합의부(재판장 梁基俊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이날공판에는 검찰측과 변호인측이 신청한 11명의 증인이 나와 증언을했다. 첫째번 증인으로나온 鄭피고인의 숙모張斗慶씨(32)는『사건당일인 지난해 9월18일 鄭피고인이 집에와서 尙恩양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한적이 있느냐』는 검찰심문에 대해『그날집에 온일이 전혀없다』고 張씨는『鄭피고인이 나에게 전화해줄것을 부탁했다고 검찰에서 자백한것은 이해할수없다』며『鄭피고인이 어떤상황에서 사실과 다른진술을했는지 알수없다』고 진술했다.

올빼미 精神

서울大병원 看護감독 崔哲熙여사

僞善의 그림자없는 "48時의 시어머니"

서울大병원의 밤은「올빼미 시어머니」가 나타나면서 시작된다. 담당의사의 야간회진과 간호원의 최종체크로 끝나 긴밤에 잠든 적막이 깃드는 밤11시, 간호감독 崔哲熙씨(42)의 「올빼미 업무」는 짓을 서서히 편다.

1천명이 넘는 입원환자와 2백여명의 간호원을 한눈에 보살피는 밤의순찰이 있다는것을 곤히 잠든 환자가 알리는 없다. 그러나 3층에서 12층까지 54개의 병동을 돌며 간호원의 근무상태와 환자의용태를 동시에 보살피는 그녀의「감지않은 눈」이 있기때문에 병원은 무사한 밤을 보내게 되는것이다.

간호원들은 그녀를 시어머니라부른다. 밤10시30분이면 어김없이 출근, 업무인계를받은뒤 곧장 병동을 돌며 간호의눈길을 번득이지만, 결코 귀찮은 시어머니랄수는없다.

崔감독이 밤잠을자지않기 시작한 것은 5년전.

서울大병원이 동양최대의 새병동으로 옮긴직후부터 였다.

간호원들을 감독하는게 일뿐이지만 기록을헤매는 응급환자와 중환자에게는 의사가되기도하며 응급실을찾아온 환자들의 보호자역할도 맡아야한다.

그래서 바쁘기만한 그녀의 밤은 짧게 느껴지나 그렇다고 한번 도는데 2시간30분 걸리는 순회를 두번 이상 반복하는 일을 게을리할 수도 없다. 남들이 마다하는 밤근무를 자원한 崔감독을 두고 처음엔 말도 많았다. 아마 가정불화가 심한 모양이라느니, 부부관계가 원만치못한것같다느니 별별 쑥덕거림이 다 있었다.

그러나 이제 崔감독을 보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은없다. 오랜세월 밤을 밝히면서도 흐트러지지않는 자세, 2명의 대학생과 고교생1명의 세아들을 소홀히하지않게 길러내는 자상한 어머니의 모습이 모두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든것이리라.

하루를 48시간으로 늘려 사는 이 「올빼미」의 모습이 나타나면 졸음과 씨름하던 후배간호원들은 누구나 긴장한다.

崔감독이 병원에 발을들여놓은것은 지난57년, 서울大간호학과의 전신인 서울의대부속 간호학교를 졸업하면서 부터다. 東草기독병원과 시립병원등을 거쳐 지난68년부터 서울大병원에서 근무해왔다.

쉴사이 없이 병동을 돌면서도 사고의 위험성이 많은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더 찾아가 어려운 환자를 직접 보살피며 병원수속까지 도맡아 해주는 모습은 분명 25년간 스며든 나이팅게일정신의 자연스런 표현인지모른다. 거기에는 이사회에서 그다지도 흔타하는「위선」의 그림자가 없다.

젊음을 바친 간호원생활중 지난 60년 홀트아동복지회에 근무할때 혼혈아동을 국내에서 기르지못하고 외국에 입양시켰을때 가장 가슴아팠다는 崔감독은 참다운 의료의 不在를 고발하는 선구자의 한사람일듯하다.【鄭在龍기자】

잔치집에서 떡먹은 賀客

40여명 집단食中毒

시장에서 주문해온 떡을먹은 주민 40여명이 집단 식중독을 일으켰다.

27일 하오7시께 서울鍾路區 嘉會洞88 崔학만씨(33) 李榮在씨(28)부부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친척들에게 떡1말을 답례로 돌렸는데이 떡을먹은사람 40여명이 고열·설사·구토가 나고 수족이 마비되는등 식중독을 일으켜 그중 14명은 28일현재 서울大병원등에서 치료를 받고있다. 이 떡은 신부의 언니 李和子씨(40)가 지난 26일서울中區 仁峴洞1街110 平壤떡집(주인 蔡秋子·40)에 주문, 이날 상오 10시께가져와 양가에 나누어 주었다.

두客船社 6개월營業정지

釜山쥐섬앞 快速船충돌사건

해운항만청은 28일 부산多大浦앞 해상에서 쾌속여객선 충돌사고를 일으킨 世吉해운(대표 金吉洙)과 巨濟개발(대표 朴洪辰)등 2개회사에 6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는 한편 피닉스호선장金正泰씨와 에어페리호선장 高春男씨에 대해서는 경찰의수사결과 과실이 드러나는대로 가중처벌규정을 적용, 해기사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다.

한만청은 또 사고의 책임을 물어 陸榮昊馬山지방해운항만청장을 직위해제 했다.

軍事훈련 참관 거듭提議

軍事停戰委 유엔側대표단

【板門店=韓隆기자】군사정전위 유엔측 대표단은 28일판문점에서열린 제4백13차 본회의에서 남북한에서 실시되는 각종 군사훈련을 정전위 양측대표들이 상호 참관토록 하자고 공산측에 거듭 제의했다.

유엔군측 대표단은 또 지난15일 동해안에 침투했다가 사살되어 그 시체가 북송됐던 북괴군이 남긴 6백39점의 휴대품중 일부를 무장침투의 증거물로 제시하고 북괴의 무력도발 행위를 규탄했다.

유치장 피의자變死 갑자기 신음…숨져

【大邱】28일새벽2시30분께 경북義城경찰서 유치장 3호감방에수감돼 잠자던 金憲星씨(30·義城邑道西洞191의3)가 갑자기 큰소리를 내며 신음하다 곧 숨졌다.

金씨는 내연의처 權모씨(25)와 싸움을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되어 수감중이었는데 21일저녁8시께 유치장세면장에서 냉수마찰을하고 평소와같이 아무이상없이 밤9시께 잠자리에 들었다는것.

경찰은 정확한사인을 캐기위해 김씨의시체를 부검키로했다.【鮎】

정신착란 國校선생 老母·부인때려重傷

【木浦】28일낮 12시께전남海南郡黃山面 N국민학교사택에서이학교李均一교사(28)가 부인 김모씨(25)와 노모씨(65)를 흉기로 때려중상을 입힌뒤 자신의 몸에 석유를 뿌려 분신자살을 기도했으나 중태이다.

李교사는 이날 점심시간에 식사를하려고 사택으로 갔다가 부인과 말다툼을 한뒤 이같은일을 저질렀는데 경찰은 평소 李교사가 정신착란증세가 있었다는 교사들의진술에 따라 이날 착란증이 갑작스레 발병해 범행을저지른것으로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조사중이다.【鮎】

開途國에 한국紹介 姉妹결연 적극推進

내무부는 28일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앞두고 한국의 예술·문화·체육·관광등을 해외에 널리소개하기위해 개발도상국 도시와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각 시도에 지시했다.

내무부는 현재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있는 44개지역이 대부분 미국·일본에만 치우치고 있어 앞으로 중동·아프리카·중남미등의 도시와도 자매결연을 확대키로한 것이다.

YOUNG SOOK '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야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 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민영숙
(B)368-7961 (R)690-5217

축
1주년 기념
한국일보
◉선과 정의의 길잡이, 민중의 진실을 지켜 용기를갖춘
〈토론토·한국일보〉.
메시아한인교회 조창환목사

女子핸드볼 「헝가리 티킷」 따냈다

「지남철丁順福」 22개슛 막아
豫選 2차전서도 中共 제쳐
33—24

【東京=鄭東書특파원】 한국 여자 핸드볼이 사상처음으로 세계핸드볼 선수권대회 출전권을 획득했다. 28일 하오 東京체육관서 속행된 제8회 세계여자핸드볼 선수권대회 (12월·헝가리) 아시아지역 예선 2차리그 中共과의 두번째 대결서 GK 丁順福의 선방과 尹秉順을 비롯한 주전들의 고른슛으로 中共를 33—24로 격파하고 1·2차리그통산 3연승을 기록, 29일 日本과의 대전승패에 관계없이 우승이 확정되었다.

모스크바五輪이후 快擧 對日戰관계없이 우승

한국여자핸드볼이 국제대회 출전권을 얻은것은 80년 모스크바·올림픽예선전을 통과한후 두번째의 쾌거이다. 이날 한국은 日本에 패하여 의욕을 상실한 中共을 초반부터 맹공, 金順淑이 선제골을 터뜨린후 尹秉順 柳京美 金玉花가 슛세례를 퍼부어 10—2, 일방적인 리드를 잡았다. 中共은 단순한 중앙돌파와 공격만을 시도, 한국의 집중마크와 GK丁順福의 선방에 막혀 게임의 실마리를 풀지못했다. 柳京美와 尹秉順이 사이드공격을 성공시키고 尹秉順과 金玉花가 중앙공격에 가담하여 12—3, 9점차로 스코어를 벌였다. 中共은 李蘭 楊萍 楊淑江의 슛으로 추격하여 15—10, 한때 5골차까지 따라붙었으나 尹秉順의 기습속공을 막지못해 18—11로 뒤진가운데 전반을 마쳤다. 한국의丁順福은 전반 11개의 슛을 블로킹했다. 후반서도 한국은 확실한 팀·플레이와 주전 전원의 고른슛으로 15—13으로 완승했다.

◇2차리그 제2일
한국 33 (15—18 / 18—11) 24 중공
(3승) (1승3패)

◇1차리그서 한국의 尹秉順이 中共 王明星㊧와 楊萍의 집중마크를 뚫고 슛하고있다.【=徐鍾道특파원찍음】

종별陸上첫날 투원반·百m허들서 한국新
洪淳模·宋連植선수 기염

제11회 전국종별 육상경기대회겸 印度 아시안·게임파견 선수선발전이 28일 서울운동장서 개막되었다. 첫날 남일반투원반서 韓國體大의 洪淳模는 51m30을 던져 한국신기록을 수립, 부동의 강자임을 과시했다. 洪은 지난4월18일 열린 시즌 오픈 기록회서 51m를 기록, 자신의 한국기록을 경신한후 1개월10일만에 80cm를 더 던졌다. 또한 남자1백10m 허들서 宋連植 (成均館大)은 수동계시로 14초5, 전자계시로 14초64를 기록,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수동계시 종전 한국기록은 14초6이었고, 전자계시 종전기록은 14초98이었다.

여일반 높이뛰기서 金希官 (梨花女大)은 1m78을 뛰어넘어 자신이 시즌 오픈대회서 수립한 한국기록 1m78과 한국타이기록을마크했다. 여고넓이뛰기서처음6m를 돌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金美淑 (이화여고)은 6m03을 뛰었으나 시즌오픈기록회서 세운 자신의 한국기록 6m05에 2cm미달했다. 남고 1천5백m서 장거리의 호프 李相根(釜山體高)은 3분55초2의 호기록을 보여주었다.

선수생활 여부 6개월 뒤에나
레너드會見

【워싱턴27日AP=聯】 망막박리수술을 받은 프로복싱 웰터급 통합챔피언 슈거·레이·레너드는 27일 수술후 최초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은 정상적 시력을 회복했으나 선수생활계속여부는 앞으로 6개월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9일 왼쪽 눈의 수술을 받은 레너드는 『접합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은퇴여부는 6개월후 결정할 문제이나 자신의 진퇴를 말할 사람은 자신밖에 없으며 누구로부터도 충고를 받지않을 것이라고 강조, WBC (세계권투평의회) 측의 은퇴권고에 간접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亞洲卓球연맹에 한국、加入 좌절
내년 東京大會결정

【자카르타27日AP=聯】 中共과 日本이 주도하고있는 아시아탁구연합 (ATTU)은 27일 한국의 ATTU 가입문제를 내년5월 도쿄 (東京)의 국제탁구연맹(ITTF) 총회로 넘겨 한국의 가입시도를 또다시 좌절시켰으나 앞으로 열리는 모든 아시아 대회에 한국의 참가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자카르타에서 열린 ATTU총회는 이날 23개회원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한국가입문제를 토의한끝에 내년 5월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함께 日本에서개최되는 ITTF총회에서 이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결정, 75년이후 계속돼온 한국의 ATTU 가입노력을 무산시켰다.

ATTU사무국장겸 中共수석대표인 종·충은 이날 회의가 끝난후 ATTU총회가 한국의 ATTU가입을 보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열리는 모든 아시아선수권대회에 한국의 참가를 허용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밝혔다.

그는 한국의 ATTU가입여부가 내년5월의 ITTF총회에서 결정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가입이 봉쇄된 이유는 밝히지 않았는데 한 정통한 소식통은 한국의 가입이 이란의 강력한 반대로 좌절됐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이날 총회가 ATTU정관에서 회원가입에 필요한 만장일치 조항을 삭제하자는 집행위의 건의를 원칙적으로 승인했다고 전하고 내년5월 도쿄회의에서 정관개정이 이뤄질 경우 신규회원 가입조건이 회원국단순과반수나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바뀔것이라고 덧붙였다.

亞洲都市대항 女子농구 창설
來10월 홍콩서大會

【홍콩27日=聯】 홍콩농구협회는 오는10월24일부터 30일까지 홍콩에서 서울과 東京 北京등 11개도시의 농구팀이 참가하는 『제1회아시아도시대항여자농구대회』를 주최한다고 27일 홍콩체육계소식통이 밝혔다.

7일간 계속될 이대회에는 서울, 도오쿄외에도 콸라룸푸르 마카오 쿠칭 자카르타 싱가포르등의 참가가 확실시되고있고 中共에서는 北京팀 또는 上海팀이 파견되며 臺灣도 臺北팀을 참가시킬것이라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이 소식통들은 또 경기장문제가 해결되면 방콕 자카르타 쿠웨이트도 초청할것이라고 덧붙였다.

極東 아시아 射擊聯 창설

한국을 비롯하여 中共 日本 필리핀 홍콩 마카오등 6개국은 지난9일 마닐라에서 極東아시아사격연맹을 창설, 회장에 파비안·C·베르씨(필리핀3군총사령관)를 선출했다고 이회의에 참석했던 韓基旭아시아사격연맹사무총장이 밝혔다.

아시아사격연맹은 산하에 極東·中아시아 中東아시아등 3개지역연맹을 결성키로 방침을 세움에따라 우선6개국이 참가한가운데 極東연맹을 결성케 했다는것.

이번에 결성된 極東연맹은 83년2월 제1회 極東아시아사격선수권대회를 마닐라에서 개최키로 결정했고 경기종목은 남녀 11종목이상으로 합의를 보았다고.

極東연맹부회장은 中共·日本이 맡았고 韓基旭씨는 사무총장에 선출됐다. 그런데 北韓은 이번極東연맹창립총회에서 제외됐다.

話題의 대결 名人戰2局
31일 한국棋院서

棋界안테나

○…19일 운당여관에서 曺薰鉉名人과 도전자 徐奉洙7단간에 벌어진 제13기 名人戰도전5번기 제1국은 근래 보기드문 血戰으로서 아직까지도 기계의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들은 동갑나기 호적수답게 포석을 하는둥 마는둥 우상귀에서 대뜸 치열한 접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권투선수로 치면 최소한의 탐색전도없이 마구 치고받는격이어서 금방이라도 어느한쪽이 KO승(불계승)을 거둘것같았지만 그 예상은 벗어나 밤10시까지 싸움은 계속됐다. 피차간 초읽기까지 하면서 분선했는데 曺名人이 4시간57분, 徐7단이 4시간59분을 소비했으니 길고도격렬한 타격전을 벌인 셈이다. 1백99수만에 徐7단이 집부족으로 돌을 던졌다. 名人戰 제2국은 31일 한국기원서 열린다.

바둑의 「女性上位시대」 아직은 멀어
和氣찬 男女對局

○…지난 2월부터 사회단체나 직장인들과 매달한번씩 친선대국을 가져온 한국여성기우회는 지난22일 韓國洋灰協會와 세번째 친선대국을벌였다. 이날 대국에서 여성기우회는 필승의 기세로 맞섰으나 결과는 6승9패로 뒤져 바둑에 관한한 女性上位時代가 아직 멀었음을실감했다. 그러나 이날 대국은남녀의 친선대국이어서인지 극심한 라이벌의식보다는 마치그룹미팅을한듯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으며 대국을 마치자 양희협회는 저녁을대접하기도했다.

曺薰鉉、徐奉洙에 王位戰2敗후 1勝
名人戰 여세몰아

○…曺薰鉉名人은 25일 大田일관특별대국실에서열린 제16기 王位戰도전7번기 제3국에서 徐奉洙王位에게 불계승을거뒀다. 曺名人의집흑으로 시작된 이날 대국에서 두 기사는 초반부터 격전을 벌였다. 徐王位는 하변에서白大馬를잡자 만회하기위해 분전했지만 끝내 집부족을만회할수없어 2백45수만에 돌을 던졌다.

국내7개타이틀중 6개를 차지하여 재작년에이어 天下再統一을 노리고있는 曺9단은 마지막관문인 王位戰에서 2연패하여 全冠王으로부터 일단 멀어지는 느낌이었으나 지난19일의 名人戰에서 도전자인 徐7단을깬 여세를몰아 王位戰에도 귀중한1승을 올리게된것이다.

金寅8단 반집승

○…지난20일 열린 제18기 覇王戰본선 제3국에서 金寅8단이 白成豪5단에게 집백으로 2백64수만에 반집승을 거두었으며 제4국에서는 姜勳4단이 역시 집백으로 徐能旭6단에게 2백64수만에 한집반을 이겼다.

金秀英기사 12년만에 6단으로 올라
萬年5단 면해

◇金秀英6단

○…명쾌한 바둑해설로 팬들의 사랑을 받고있는 金秀英5단이 12년만에 6단으로 올라갔다. 金6단은 지난18일 제55회 승단대회 제3국에서 河燦錫7단에게 집흑으로 1백93수만에 불계승을 거두고 승단한것. 趙治勳名人의 대국등 중요한 대국이 있으면 TV를 통해 구수하면서도 입담좋게해설해주는 金6단은 그 유명도와는 달리 승단운은 극히 더디었다. 1970년9월 제32회 승단대회에서 5단이된 이후 승단을 못해 스스로'만년5단'이라고 넋두리를 하기도했다.

결과적으로볼때 그의 유명도는 그의 승단을 더디게했다. TV와 일간지의 바둑해설로 차분히 연구할 틈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승단대회에서도 그는 바둑을두면서 옆방에서 열리는 王位戰관전평을 쓰기위해 수시로 자리를 떠야했다. 曺薰鉉9단과 입단동기인 그는 「해설용기사」가 돼버린 자신을 따르지말고 「전투용기사」가 되도록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해왔는데 이번승단대회에서는 심기일전한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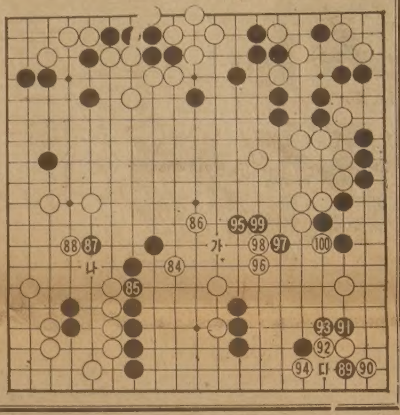
崔信慧양 3위에

○…22·23양일간 해태본사강당에서열린 제3회 해태배 전국어린이바둑왕전에서 3백20명의 꼬마기사들이 각축을 벌였다. 이번대회는 참가자가 예년보다 크게 늘어났을뿐아니라 여자로서는 처음으로 바둑3급의崔信慧양(경기驪州郡 오학국교5년)이 3등으로 입상하여 주목을 끌었다. 대도시도 아닌 지방의 어린이인 崔양의 입상은 바둑이 경향을 막론하고 남녀노소가 두루 즐기는 오락이 되고 있음을 말해준셈.

농장을 경영하는 최수호씨의 장녀인 崔양은 8세때부터 아버지(1급)에게 바둑을 배웠다. 그의 남동생 崔旭군 (오학국교3년)도 이번 대회에서 9위를 차지했다. 【梁平기자】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21局 第8譜 83~100 (각5시간·덤5집반)
白(7段) 徐奉洙 〈4勝1敗〉
黑(4段) 姜 勳 〈4勝1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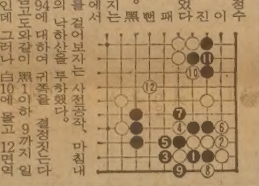
黑、決死의 勝負手

白84를 선수하고 86으로 중앙에 달려나간수에 대하여 趙南哲8단은 86은 87자리에 두어 좌하변을 확보할수도 있는 곳이었다. 다만 그때 黑이 「가」에서부터 아래쪽 白에 총공격을 가해오면 일이 까다롭게 될지도 모른다」고 해설했다. 白은 굳이 위험을 부를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그리고 黑이 그 87자리에 달려올때 白88은 강수. 물론, 黑「나」면 黑2점을 살아가게 하는 대신 선수를 뽑는 계산이다.

黑은 선수는 안주겠다고 우하귀에 89. 다음 黑91은 보통 「다」로 끌어내야 정수지만 그대로 진행되었다면 白이 가는 때 배가 뻔하다. 黑93까지는 黑이 중앙에서 승부를 걸어보자는 사전공작, 마침내 黑95의 낙하산을 투하했다.

白94에 대하여 귀쪽을 결정짓는다면 참고도와같이 黑1이하 9까지 일단인데 그러나 白10에 몰고 12면 역시 승산이 없다.



黑95의 승부수가 떨어지자 白96은 거의 노타임. 당연한 반격인지라 생각할 여지가 없는 곳이다. 이하 黑99까지에서 白은 일단 100으로 단수하고 黑의 응수를 기다린다. 자, 어떻게 할것인가. 【一凡】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22〉
朴婉緖 作 / 金光培 畵

응달 ②

붙드는 기색이 없자 문간에서 잠깐 뒤돌아본 두 사람은 오목이가 자리를 떴다는 것조차 모르는것 같았다.

목이를 이런데서 만날줄은 정말 뜻밖이야. 더군다나 자기 친구라니. 세상이 넓고도 좁다는 소리가 무슨 뜻인지 알만해. 목이가 내 학교후배냐구? 아냐, 내가 돌봐주던 고아원 아이야. 그래 목이가 고아였다니까. 「오누이 집」이라구 지금은 없어진 고아원에서 없어지기 바로 전까지 있던 고아야. 그때 잰 다자랐기 때문에 아마 취직을 시켜 내보냈을걸. 자기 뭘 그렇게 놀라? 그럼 그것도 모르고 사귀었어? 사귀고 말고도 없는사이라고? 그런사이가 이런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해? 알았어. 그렇게 열올릴 거 없어. 믿어줄테니까…。

수지는 신바람이 나서 고자질과 탐색을 계속하고 있었고, 인재는 뭐가 그렇게 재미 있는지 바보처럼 입을벌리고 듣고 있었다.

오목이는 자신의 보잘것없는 정체와 신산한 지난날이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를 양념처럼 맛갈스럽게 하고있다는데 분격했다. 그러나 어쩔것인가.

꿈이었으면。못된 꿈이었으면.

그녀의 어리석은 마음은 엄연한 현실을 꿈으로 돌리고, 아직도 미진한 꿈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단 한번 피어본 젊음과 사랑이 그렇게 허망하게 사라진 걸 차마 믿고싶지가 않았다.

헤매어도 헤매어도 서울장안은 끝없이 망막했다. 오목이는 인재를 만나려할때마다 그녀 앞을 가로막던 낭떠러지의 의미를 알것 같았다. 속임수를 낀 사귐이란 아무리 그 마음이 진실해도 그렇게 조마조마할수 밖에 없었다.

좀 전까지의 그런 위기의식조차 그립게 여겨졌다.

이젠 숨길 것도 아슬아슬할 것도 없었다. 이미 낭떠러지를 뛰어내린 것이다. 아무 때 뛰어내려도 뛰어내려야할 낭떠러지였다. 다만 스스로 뛰어내리지 못하고 하필 수지한테 떠다밀릴 게 뭐였을까? 그게 생각할수록 억울했지만 돌이킬순없었다.

드디어 낭떠러지 밑바닥까지 가버렸다는 건 위에서 보는 사람의 눈엔 끔찍하고 안돼보일 일이나 당해보니 도리어 편했다. 그 밑바닥에도 자포자기라는 돌파구 하나는 있었다.

오목이는 일부러 통금시간을 꽉꽉 넘기고나서 집에 들어갔는데도 집안식구들은 다 깨어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식구들의 기색이 심상치 않았다.

『이년、네가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분수가있지 그래。이럴수가 있는게냐?』

미순이 아버지 최사장이 대뜸 주먹으로 땅바닥을 치면서 호령을 했다. 최사장뿐 아니라 식구 모두의 눈이 경멸과 증오로 번들대고 있었다. 육년동안이나 한방、한 이불을 쓰면서 소곤소곤 온갖 비밀과 정을 주고받었던 미순이의 눈도마찬가지였다.

그들은 한패고 오목이는 혼자였다. 육년동안 한솥밥을 먹었지만 한식구와 남과의 차이가 그렇게 명료하게 드러나보이긴처음이었다. 혼자 맞서기에는 너무 여럿의、너무도 동등한 기세에 오목이는 차라리 태연할수가있었다.

그날은 좀 특별한 날이었다. 박군과의 혼인말을 더이상 피할수 없게 된 오목이가 아버지 마음대로 하시라고까지 말한 게 승낙이 되어 그날 박군은 사주(四柱)를가져오고、최사장은 두 사람의 앞날을 축하해주기위해 음식을 장만하고 딴 점원들까지 불러들여 잔치를 벌이게 돼있었다.

流星의 賊 〈394〉
李炳注 作 / 李友範 畵

勇名 天下에 떨치다 ⑫

홍계남의 이름이 처음으로 왕조실록 (王朝實錄)에 등장하는 대목은 선조 25년 임진년 8월이다.

『上曰 他無畢義者乎。申点曰 安城義兵 洪季男之事。陪特人、盛言之、其軍不過一百而殺賊頗多云』

(상왈 타무거의자호。신점왈 안성의병 홍계남지사。배특인 성언지、기군 불과 일백이살적파다운)

임금이 또 달리 의거한 자가 없느냐고 물었더니 신점이 홍계남의 얘기를 했다. 그러자 배석한 어떤 사람도 홍계남의 얘기를 열심히 했다. 그 군사가 백명에 불과한데도 적을 굉장하게 많이 죽였다는 것이다.

그 다음 홍계남이 실록에 등장하는 대목은 그해 즉 임진년의 9월 무진일 (戊辰日)이다. 그 달의 삭(朔)은 초하루가 무오이니 무진일이면 20일이다. 실록엔

「戊辰以洪季男爲水原判官(무진이홍계남위수원판관)」

9월20일에 홍계남을 수원판관으로 임명했다는 것이다.

임금이 8월에사 홍계남의 존재를 알고 9월20일에 비로소 그에게 관직을 주었다는 얘긴데 이 대목을 소상하게 적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남양홍씨의 족보를 비롯해서 유포되어있는 홍계남장군에 관한 문서를 보면 홍자수와 이덕남이 전사할 무렵 홍계남이 수원판관으로 있다가、그 전사 통지를 받고 급거 안성으로 간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 (史實)관 그 점이 어긋나 있지 않을까 한다. 안성의 전투는 7월말에 있었다. 그런데 홍계남의 임관일 (任官日)은 9월20일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오일 (庚午日) 대목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備邊司啓曰 水原倉穀軍民 最優且多 爲京城藩蔽、賊徒屢入而物力不減、須得驍勇著名之人以守之。與楊州牧使高彦伯掎角 可責恢復之效、洪季男遇賊輒殺、名聲大振請季男爲判官 上從之」

이것을 대략 의역하면

「비변사가 아뢰길、수원의 물자와 군민들은 우수할뿐 아니라 풍부하고、서울을 엄호하는 요지이기도 합니다。적도가 빈번히 드나드는데도 물력이 조금도 감하지 않습니다. 모름지기 용맹이 있고 저명한 자를 골라 이곳을 지키게 해야할 줄 압니다. 그렇게 해서 양주목사 고언백과 더불어 기각의 태세 즉 앞뒤를 지키는 태세로 만들어 중앙을 회복하는 보람을 다하도록 책임 지우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홍계남은 적을 만나기만 하면 이를 죽여 그 이름은 널리 떨쳐 있읍니다. 청하옵건대 계남으로 하여금 수원판관에 임명하도록 하옵소서. 임금은 이 청에 따랐다」로 된다.

20일에 임명했다고 했으니 22일의 이 대목은 이상하다고 할수있으나 비변사가 상감께 아첨하느라고 이런 장계를 올렸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러나 저러나 안성전투이전엔 홍계남이 조정의 인정을 받지못했을 뿐만아니라 수원판관이 되질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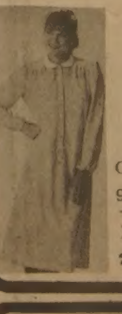
그런데 수원판관이란 무엇이냐. 부사나 목사가 부재중에 수령으로서의 직권을 행사하는 지방관을 말한다.

난중이라고는 하나 천첩의 자식이라고 해서 냉대 받던 홍계남이 비로소 영지의 문턱에 들어선 셈이다.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 2361

오리엔탈·파레스
일요일 영업개시 오후 3 시부터
북경식 요리, 소고기 철판구이,
각종 홍콩식 요리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내고향통닭집
냉면 칼국수 전문
658½ BLOOR ST. W.
☎ : 537—0432

Maximode

○ 숙녀를 위한 수입품 불란서, 이태리 햇손 옷을 전시한 현대식 쇼우룸.
○ 가격이 저렴합니다.
OPEN : MON(월)~SAT(토)
9 a.m.~5 p.m (오전 9 시~오후 5 시)
147 Spadina Ave. #200(2층)
☎ : 596—1413

MODERN FURNITURE
ecosys
왜 에코시스 가구가 인기 있을까요?
◆그것은 최고급회사 제품들로서 물건이 특이하고
◆일반 가구점에서 볼수없는 차원높은 가구들이고
◆양심적으로 거래하며
◆사신후에 문제점을 책임지고
◆교포들 에게는 특별염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2360 YONGE ST. TOR. (In Yonge—Eglinton Centre)
TEL. 486-0397 김만구

MR. CHOI'S RESTAURANT
주중 : 월~수 낮12시~밤12시
목, 금 : 12시~밤1시
토 : 4시반~11시
2432 Eglinton Ave. E. Scarborough
☎ : 759—8512
최 영 호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개업 특별봉사
숙녀복(Ladys Wear) 전문
공장생산가격으로 직매합니다.
→상세한 바느질과 고급제품
월~금 : 10시~6시, 토~일 : 10시~4시30분
BOSCHE CO.
292 Parliament St.(at Dundas)
☎ : 362—2300 MR.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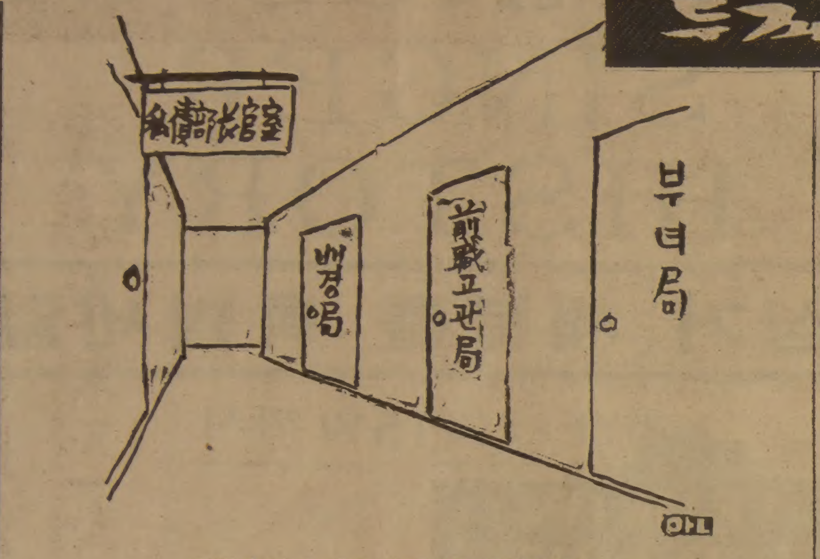
JAGUAR 종합보험
*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 자동차보험.
* 비지네스 보험.
* 집보험.
* 생명, 상해보험, 등
◎영어를 할수있는 한국학생 (파타임) 구합니다.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INCOME TAX Service
※개인 세무및 보고서 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ST. W.(한국관 건너편)
☎ (B) 533-7573. (R) 699-3591 최 태 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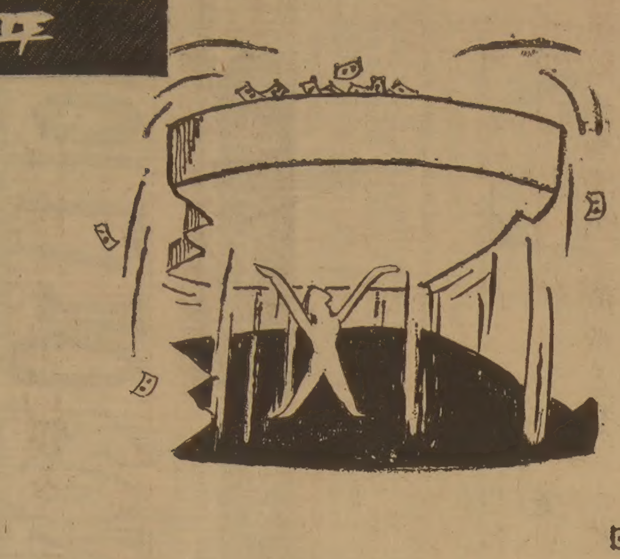
週刊한국

※언어 학습기구를 이용해서, 당신은 영어나 다른 외국어를 당신집에서 3개월간 배울 수 있읍니다. 이것은 일하거나 바빠 학교에 다닐수 없는 사람을 위해 이루어진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
SAVE-O-WAY AD. CO. 533-7324, 533-4966

두꺼비 漫評



私債가 판자 애젠 알았자에 政府까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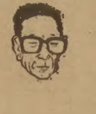


계집 하마가 들었다 났다 했음니다—.

海 外 걸 작 漫 畵

「내년엔 보트를 살까해요.」
"Next year we plan to get a boat!"

朴承薰교수 特講



섹스의 社会学 ③

●마누라와 娼女

사람 사는 동안 조심할 네 뿌리가 있다. 입과 손,발과 가운데 뿌리다. 섹스상징인 가운데 뿌리는 외설과 사랑 사이에서 계속 방황한다. 이 혼란을 막기 위해 사르트르 선생은 「존재와 무」라는 책에서 이런 정의를 내렸다. 가운데 뿌리가 잘 안서는 성욕, 혹은 사랑을 할수 없는 성욕이 바로 외설이라고 했다. 매춘부의 경우, 사랑과 희열보다는 금전수단으로만 섹스를 제공한다. 그런데도 많은 남성들이 자기 마누라나 애인을 두고도 그 곳으로 돌진, 성병을 얻어온다.

성병에도 네 가지가 있다. 첫째 임질 (Gonorrhea), 둘째 매독 (Syphilis), 세째 당창 (Chancroid), 그리고 양초 닳아들듯 뿌리가 자꾸 오그라들어 끝내 꼭지가 똑 떨어지고 마는 급성 국제양초병, 또는 숲을 기는 근질벌레병까지 합쳐서 비·디(Veneral Disease)「즉 하나님이 몹시 분노하시는 병이라는 뜻이 된다.

사실 따지고 보면 별미 아닌데도 마누라나 애인에게 이런 병 옮겨주는 남성들이 많다.

만성과 급성. 급성에서는 순석간에 목숨 잃는 꼴을 미군 제 15야전병원 근무시 나는 수없이 내 눈으로 보았다. 만성도 대두증, 하반신마비, 청각장애, 결핵, 심장병, 시각장애, 정박아동을 낳아 일산에 있는 홀트재단의 신세를 져야 하는 불구가 된다.

윤락 여성수는 지난 7년동안 2배로 늘었다. 지난 75년의 성병 보유 접객부가 5천6백3명인데 비해 81년에는 9천4백60명으로 는거다.

어느 도시 보건소 검진 통계를 보자.

20세~29세=매독 22·1%, 임질 35·3%, 당창 1·2%.
30세~39세=매독 16·7%, 임질 13·1%, 당창 0%.
40세~45세=매독 10·7%, 임질 23%, 당창 0%.

물론 어제 검진 OK이니 어서 컴온, 당장 해도 된다는 경우, 맨 정신 아닌 때도 극구 사양하는 쪽이 현명하다. 방금 전에 보균자가 스치고 간 경우는 1백% 감염되기 때문이다.

이 숫자의 20대 여인 52%중 매독과 임질이 겸비한 아가씨가 9명이나 된다. 섹스에 굶은 늑대 한 마리가 노상에서 얻은 아가씨, 두 명중 하나 꼴로 귀한 뿌리에 병균을 전달해 줄수 있는 매체라는 거다.

물론 『저는 병 없어요. 조금 전에 검진하고 왔거든요. 빨리 컴온해요』 하는 경우, 고무장화(콘돔) 없이 술김에 돌진하면 거의 1백% 임질은 틀림없다.

특히 30대·40대 여인층은 매독환자가 임질을 앞서고 있기 때문에 고무장화 정도로는 매독에는 전연 무방비다.

20대 어린쪽 서비스보다 30대·40대 나이 든쪽 서비스가 농도 짙고 기분도 더 좋다는 뿌리는 매독 요(要) 조심이다.

실로 인간 정신구조는 묘한 반역성이 있다. 계속 「노」다. 남은 동신으로 보아도 자기는 클레오파트라 정도로, 남은 썩은 진도 개로 보이는데도 자기는 양귀비로 보이는 거다.

제 눈의 안경은 계속 진짜 보편성은 등지고 살려고 한다. 인간 정신—자기 뇌수 속에서만이 미녀는 창조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우시고 그 갈비뼈 하나로 이브를 생산하셨을 때 인간 정신이란 「노」가 된거다. 그래서 남의 눈에는 제 수준급 여인을 안방에 두고도 588번지 일대와 청계천 살롱 변두리를 기웃댄다.

바로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외설과 사랑이라는 문제다. 만일 자기 마나님이나 애인에게 가운데 뿌리가 잘 안서는 경우는 외설이 된다는 말이다. 마누라가 외설이 되고, 거리의 여인이 외설 아닌게 될수도 있다는 묘한 역설의 견해가 나오게 된다.

수많은 지붕 밑에 숨쉬고, 안고, 뒹굴고, 깨고, 낳고, 가고, 오고, 잠든 부부 상당수가 외설인생을 살고 있는 꼴이 된다. 결혼후 싸 입 맞가는 성욕 유발을 마이너스 시킨 중성화가 되었기 때문이다. 결혼전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기의 합선이었던것이 결혼후는 어느 덧 둘 다가 플러스 전기화했다는 점이다.

이 점에 주부나 애인된 이들이 눈 뜨기 전에는 성병후방은 아득하다. 리듬 달린 멋진 누드 쇼가 예술이지만 일단 무대 마룻바닥에 미끄러져 꽝 소리 내고 나자빠진 노출된 엉덩이, 확 발겨든 그 항문 사이로 호된 방비가 발사된 경우는 이미 예술은 아니고 외설이다.

상대방 인격을 인정 안한, 오로지 금전만을 인정하는 진짜 외설인 거리의 여인들에게 남자 성욕이 약동하게 된다면 문제는 아내된 이와 애인된 이에게 1백% 책임이 있게 된다.

이유는 간단하다. 남편을 월급과 보너스 벌어오는 금전 제작자로만 보고 인격을 인정 안해 주는데서 오는 동질성이기 때문이다.

실로 공짜 쌍 시옷·비읍 값이 세상에서 제일 비싸게 다시 없다는 것이 외도를 일삼는 남성들의 비슷한 잠재의식 구호이다.

돼지고기 두 근 값으로 끝나는 섹스가 온갖 짜증을 몰고 오는 마누라 섹스보다 성욕을 일으키게 한다~하게 될 때는 그 남편이 성병 들고 와도 마누라는 분낼 수 없다. 똑같은 수갑을 찬 것이기 때문이다. 합심하여 번갈아 피부비노과를 찾아야 한다.

속할수록 좋다. 그 병이 나은 후는 아닌 밤중의 홍두깨·도깨비방망이가 지니고 있는 신비성을 그 뿌리 속 깊은 남성 정신 속에서 찾고 이해해야만 한다.

자기 이빨 사이에 낀 큰 고추는 없나, 밥상 놓고 화장실 들어가 출근때까지 안나오는 일은 없나, 입맛 떨어지는 돈 바가지를 계속 긁지는 않았나, 남성정신 뿌리와 가장 밀착한 가운데 뿌리에게 공짜 섹스값 같이 비싸게 이 세상에 다신 없구나. 자꾸 큰 한숨 짓고 낯 가리게 한 일은 없었나.

실로 그 뿌리의 병과 신비성을 제대로 아는 이가 의외로 우리나라 여성측에는 극소수라는게 바로 이 성병의 가정침투를 막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일 거다. <계속>

"영화의 밤"

6.25 ! 32주년

본 회에서는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영화를 상영코자 하오니 교민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제 목

1. 최홍희,최덕신 북한방문 기자회견
(꼭 보시라 ! 김일성을 어버이 수령으로 여기는 배반자들의 반항을…)
2. 달려라 ! 풍선아(최신 인기 한국영화)(1시간30분상영)

일시시 : 1982년6월19일(토) 오후7시
장 소 : 한인회관
입장료 : 무료

주최 : 승공문화협회

알립니다

지난 4월10일 부인회 창립총회시 본회를 위해서 적극 아래와 같이 찬조해주신 여러 분께 지상을 통해 감사를 드립니다.

〈찬조금 내역〉

- 영사관 $300
- 황대연 $500
- 배형도 $200
- 옥구현 $200
- 실 협 $300
- 한국일보사 $50
- 김사만 $40
- 강대길 $20
- 서동준 $10
- 유영갑 $20
- 김윤정 $10
- 한국관(나옥녀)$50
- 구진모 $10
- 서춘봉 $50
- 코리아하우스 $20
- 우영애 $10
- 원재훈 $20
- 박찬도 $10
- 해더·킴 $20
- 김명자 $50
- 유좌석 $30
- 외환은행 $50
- 장영채 $50
- 이훈모 $50
- 김웅일 $50
- 전택균 $50
- 김문량 $100
- 신영식 $100
- 성낙윤 $50
- 이영일 $60
- 김종태 $50

〈꽃다발〉

- 한인회
- 김학규
- 총영사관
- 안병호
- 한인총연합회
- 실업인협회
- 캐나다체육회
- 다우스꽃집
- 성용창
- 동우회
- 서울사대동창회
- 칠성인쇄소

〈케이크〉

- 박옥선

82년도 부인회 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원명단〉

회 장 : 양혜신
부회장 : 오정숙
총 무 : 박형자
교 육 : 김혜숙,조정자
사회·봉사:김상환,박옥남
섭 외 : 이칠영,김청자
조 직 : 이웅옥,윤명자
홍 보 : 정승원,송유미
예 능 : 김용순

젊은이들의 단골

異色地帶탐방

디스코·하드·록 음악다방 성황

요란한 속에 넋잃고 춤도 추고

젊은이들만이 드나드는 다방이 있다. 「음악다방」으로 불리는 곳이다. 귀청을 때리는 요란한 하드 로크음악과 디스크자키의 재치있는 말솜씨, 그리고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없는 그들만의 분위기. 10대 후반, 20대 초반이 주 고객인 이들 다방엔 굳이 「성인절대사절」의 표어를 붙이지 않아도 「어른」들은 배겨날수 없는 그들만의 세계가 되고 있다.

□熱氣 넘쳐 흘러

종로1가 新新백화점옆 H음악다방. 낮 1시께 인데도 실내엔 심야의 디스코텍과 같은 열기가 넘친다.

30여평의 실내는 캄캄한 가운데 오색깜박이등이 현란하다. 얼핏보아 18~19세쯤으로 보이는 청소년들이 너댓명씩 둘러앉아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디스크자키의 재담에 넋을 잃고있다.

H다방에 들어서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대형 뮤직박스. 손님들과 거의 같은 또래로 보이는 디스크 자키가 투명유리로 칸막이가 되어 있는 뮤직박스속에 앉아 한창 재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부분 음악다방들의 특징은 실내장식이나 가구들이 과히 청결하지않다는 점이다. 어른들의 눈으로 보면 실내구조나 장식들이 일반다방에 비해 무척 어설프고 불안정하게 느껴진다.

『염병할곡만 적어 주셨는데…』

소위 인기디스크자키인 J군이 손님 하나가 뮤직박스속으로 들이민 신청곡을 적은 용지를 보며 하는 말이다.

『이걸 틀어주어 말어.』

고개를 갸웃거리며 J군이 고민스런 표정을 짓자,

『못먹어도 고!』

다방 한쪽구석에서 친구들과 함께 디스크자키의 익살에 킥킥대던 더벅머리소년 하나가 냅다 고함을 지른다.

여기저기서 낄낄대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오자 디스크자키 J군은 실내를 이리 저리 둘러보다가 그 더벅머리 소년을 발견하고는 고개를 끄덕거리며,

『곰발바닥 왔구나. 그럴줄 알았어. 너 아니면 그럴 사람이 없지.』

나이어린 동생이나 친구에게 하는듯한 반말투다. 어른들에겐 받아들일수 없는 무례한 언사가 스피커를 통해 확성돼 나와도 이들 어린 고객들은 전혀 이상을 느끼지 않는다.

얼핏 들으면 욕설에 가까운 디스크자키의 반말에 항의를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손님이 하나도 없다.

무엇에 홀려있는듯한 모습이다. 이들 어린 손님들에겐 디스크자키가 우상인지도 모른다. 다방내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디스크자키의 모습은 어찌보면 군왕처럼 보이기도 한다.

난삽하달정도의 이런 재담이 오간후에는 다시 귀청을 찢을듯한 음악이 이어진다. 하드로크뮤직과 디스코뮤직이 주를 이룬다.

이때 디스크자키의 기분이 고조되면 1평반 남짓의 뮤직박스속에서 추는 디스크자키의 디스코춤도 구경할수 있다.

유리관속에서 무엇에 도취된듯 눈을 반쯤 내리감고 흔들어대는 디스크자키의 모습은 실내의 엉성한 분위기와 대조를 이루어 묘한 느낌을 준다.

지난14일 하오5시께 역시 H다방.

「成人절대사절」은 없지만 시끄러워 못견뎌

◇음악다방에선 디스크자키가 제왕。그의 매력은 바로 다방의 인기도와 직결된다。디스크자키옆에 컬러TV가 놓여있다。

□춤출사람 없나

한창 신이 나서 몸을 흔들어대던 디스크자키 J군은 혼자선 심심하다고 느꼈던가보다.

많은 손님들앞에서 자신과 함께 춤솜씨를 보여줄 동지를 구한다.

『춤출 사람 없어요?』

사방에서 「애요, 애요」하며 곁의 친구를 손가락질한다.

『지가 못하고 왜 애요는 애요야. 용감하게 나설 사람 없어?』

디스크자키의 부추김에 한 소년이 벌떡 일어섰다. 차림새로보아 많이들어야 20세정도. 예쁘장한 용모에 몸에 꼭 끼는 흰색와이셔츠와 회색바지를 입었다.

서슴없이 뮤직박스에 들어선 소년은 디스크자키가 건네준 헤드폰을 머리에 쓰고 요란한 디스코음악에 맞춰 세련된 춤을 보여준다.

한눈에도 많이 추어본 솜씨라는걸 알수있다.

DJ 『언제부터 이 다방 드나들었죠?』

손님 『두어달됐어요. 그동안 하루도 거르지않고 개근했어요.』

DJ 『그래 어쩐지 어제도 본것 같더라. 그런데 춤은 어디서 배웠니?』

손님 『고고장에 다니다보니 자연히 도가 튼거죠. 특별히 배우진 않았어요.』

DJ 『고고장에 가면 술마셔야 하잖아. 돈은 어디서 났냐?』

손님 『여자들 꼬셔서 뜯어낸걸로 놀고 마시고 했죠.』

조용하던 실내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일었지만 디스크자키는 이에대해 초연.

『그 얼굴에 여자를 꼬셔. 여자들 정신차려야겠어』

정도로 넘어간다.

성인들의 다방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면 다방관리자들중의 누군가가 분명히 게재를 가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에겐 무리없이 받아 들여진다. 당황해하거나 경계하는 빛없이 그냥 웃고 넘어가는것이다. 10대들 사이에서 허용되는 윤리나 도덕의 한계를 눈으로 보는듯하다.

서울시내에 이런 유의 음악다방이 있는 곳은 용산구 남영동일대, 동대문, 종로일대등 수십곳에 이른다. 규모와 스타일은 각 영업장에 따라 약간씩 다르다.

이들 다방의 주고객은 재수생을 비롯한 대학 저학년생이지만 근래에 들어 고등학생손님도 부쩍 늘었다. 머리모양 자율화에 힘입어 외상도 사회인과 거의 구별할 수 없을정도로 자유로와졌기 때문에 사실상 고등학생의 다방출입이 허용되고있는셈이다.

海外토픽

英 南大西洋 해병에 女子用 타이즈 보내

영국의 한 스타킹제조회사는 혹독한 남대서양의 추위에 시달리고 있는 영국기동함대 해병들에게 여자들이 입는 겨울용 타이즈 4백켤레를 보낼 예정이라고.

이 타이즈들은 이미 플리머드에 있는 해병본부에 전달됐는데 한 해군 장교는 군인들이 이같은 선물에 크게 기뻐할것이 틀림없다면서 추운 겨울 갑판위에서 근무하는데는 발과 다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여자용 타이즈가 최고라고 한마디. 【外】

훔친 資材로 주택新築한 국수집 종업원 쇠고랑

꿈속에 그려온 멋있는 집을 장만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자칭 목수가 수십만 달러어치의 건축자재를 훔쳐 손수 집을 짓다가 쇠고랑을 찼다.

일본경찰 당국은 하마나까·마나히로(43)라는 국수가게 종업원이 도오꾜 북부 48㎞지점인 끼사라즈에 짓고 있는 집이 거의 완공단계에 들어 돈이 떨어지자 건재상들을 찾아다니며 새시 장식 유리 큰짝등을 훔쳐 집을 짓다가 들통이 났다고 밝혔다. 【外】

長時間통화 격분해 엽총으로 머리 쏴 죽여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한청년이 공중전화에서 장시간 통화는 하지 말라는 항의 한 마디를 하다가 그만 황천길로 가게 됐다고.

경찰에 따르면 장·폴·제스·헨이라는 30세의 이 청년은 전화를 걸기 위해 공중전화통에서 기다리다 앞선 두 사람의 남자가 그들 애인에게 장시간의 통화를 하자 격분한 나머지 항의. 이에 화가 난 한남자가 엽총으로 제스·헨씨의 머리를 쏴 즉사케 했다는것. 【外】

印尼에 女子만 골라서 괴롭힌 드라큘라怪物

인도네시아의 시파나스라는 한 휴양지에서 최근 드라큘라를 닮은 괴물이 나타나 거리를 배회하면서 주로 여자만을 골라 괴롭히고 있어 현지 주민들이 공포속에 떨고 있다고.

한 부인의 목격담에 따르면 검은 옷차림에 날카로운 송곳니가 달린 복면을 쓴 키큰 남자와 흡사한 이 괴물은 어느날 저녁 남편과 함께 나란히 앉아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의 목을 조르려고 해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더니 홀연히 사라졌다는것.

어젯밤에도 다른 한 여자는 괴물의 습격을 받아 얼굴과 가슴에 할퀸 상처가 나는등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때문에 이 곳에는 최근 관광객이 급격히 줄고있는 실정. 【外】

THE BIGGEST SAVINGS OF SINGER HISTORY

싱거 재봉틀 특별세일

기간 : 6월15일 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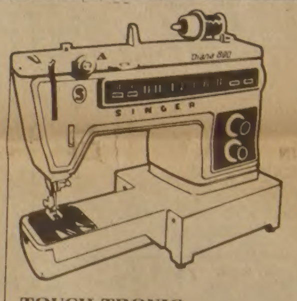
SAVE $50 ON SINGER* 247

SALE $119.95
REG. $169.95

The Fashion Mate* ZIG-ZAG machine

A great performer at a great Singer price! Features front drop-in bobbin, sews buttonholes and stretch fabrics.
Model 247

SAVE $200 ON SINGER ELECTRONIC 8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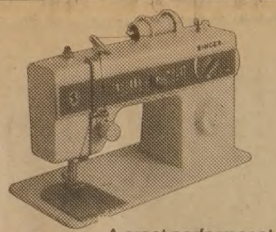


TOUCH-TRONIC MODEL 860

This Canadian-made Touch-Tronic machine also provides push-button selection of 14 stitch patterns, built-in buttonholer, twin needle sewing, automatic pattern start and many other features for smooth, easy sewing.

SALE $499.95
REG. $699.95

SAVE $120 ON SINGER 5137



Stretch Stitch
Model 5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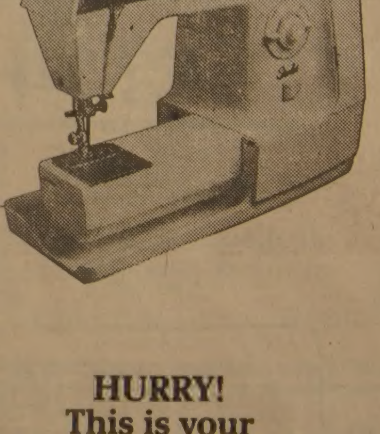
A great performer at a great Singer price! With buttonholer and 7 stitches built in; lightweight and easy to operate.
carrying case or cabinet not included

SALE $169.95
REG. $289.95

SAVE $90 ON SINGER 496

- Portable design makes this machine easy to carry and store but still gives you "big" machine capability.
- Free Arm makes sewing hard-to-reach places extra easy.
- Sew faster and smoother with electronic needle control.

SALE $299.95
REG. $389.95



※어떤 종류의 재봉틀이든 고칠 수 있읍니다.

SINGER APPROVED DEALER

HURRY! This is your last week to save!

EAST
SINGER CENTRE
GERRARD SQUARE
1000 GERRARD ST. E (& PAPE)
☎ : 461－9764

VISA
MasterCard

WEST
SINGER SQUARE ONE
MISSISSAUGA
☎ : 277－0341

連載소설

스물세살의 자서전

金洪信 作
崔然石 畵

76

첫마디부터 겁주는 투였다.
『선생은 물적면보다 정신면에 명성을 얻어야 합니다. 선생은 직장을 버리고 사업을 해야 합니다. 선생은 신경계통과 두뇌계통에 위험신호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선생은 하고자하는 소망을 장애물이 있어 늦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칠월에는 매사가 형통이라 만인이 우러러 볼 폐입니다. 처액이 생기니 조심하고 팔월에 관재수, 즉 경찰이나 법원에 다닐 수가 있으니 손위 사람을 주의해야 합니다. 잃은 재물은 귀인이 나서서 보상하니 너무 집착말고 금전거래는 금물입니다. 그리고…。』
마치 녹음기를 한박자 빨리 돌리는 것처럼 말이 빨라졌다. 그러나 한마디도 거침없었다.
『먹고 사는 재주도 여러가지올시다。』
내가 얘기를 듣다말고 이렇게 투정을 부렸다.
『뭐요?』
『먹고 사는 재주가 용타고 했읍니다. 삼천원 날리고 일어납니다.』

지난줄거리
다혜가 답답했는지 점이나 보러 가자고 졸랐다. 총찬은 그녀의 귀신같은 친구에게 서울 시내의 유명하다는 점장이집 이십여개를 알아냈다. 아씨만신은 이름만 그럴듯한 마귀 마누라같은 늙은이였다. 다혜와 총찬이를 싸잡아 부부 취급하며 점사를 봐주었다. 기분 나쁜 소리도 많았고 기분 좋은 소리도 많았다. 총찬은 남들이 어떻게 보든지 미래를 확인하고 싶은 호기심이 폭발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 스스로 컴퓨터철학사라고 할만큼 너무 많은 대목을 외고 있는것 같았다.
『여보 선생。무슨 말요?』
컴퓨터 철학사가 역정을 냈다.
『내가 선생 신수나 한번 봐드리리다。이건 공짜요。선생은 초년 고생했고 사기술을 타고나서 공갈대회 나가면 틀림없는 장원급제요. 선생은…。』
컴퓨터철학사의 눈이 커졌다. 나는 씨익 웃고 나왔다.
『여보, 선생!』
『본전 못찾고 갑니다.』
나는 티격거리기 싫어 얼른 구두를 신고 뛰어나왔다.
하나님。보통 저런 걸 글로 푸는 점이라고 부릅니다. 본래 주역이란 중국의 주(周)나라의 역(易)이란 말로 천지만물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연현상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으로 그 조직은 양(陽)과 음(陰)으로 구분되는 본서법, 중서법, 약서법, 육변법, 구변법 등으로 점을 치는 것입니다.
주역을 풀어서 치는 점을 통상화두점, 동전점, 척사점(윷점)으로 대별되는게 보통인데 요즘은 그게 컴퓨터철학으로 변해 버렸읍니다.
하나님。하나님도 내려오셔서 점 한번 쳐보시죠.
하나님도 점장이 앞에 가면 별수 없읍니다。처액이 있으니 조심하고 장가 두번 갈 수니 조심하고 칠팔월엔 물가에 가지말며 여자조심하고… 그러다가 어 땅에 너무 많은 가짜 기독교도 조심하라고 할 겁니다。
삼룡 곰보만신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밥상을 펼쳤다。쌀은 한되가 넘게 부어놓고 나를 노려보았다。
음률에 맞춘 가락을 콧소리로 뽑았다。귀에 익은 우리 가락이었다。애간장 녹이는 회심곡 같기도 했고 상두꾼이 요령 흔들며 구성지게 망자를 떠나 보내는 상두가 같기도 했다。어찌 보면 동냥아치가 부르는 각설이타령 같기도 했고 템포빠른 자진모리로 들어서면 흥겨운 춤가락 같기도 했다。
『하날 계신 신령님, 산에 계신 산신님, 물에 계신 지신님, 바다 계신 용왕님, 물에 계신 해신님, 나무 계신 성황님, 일대 계신 단군님, 좌정하신 상봉님, 대문산 계신 최영장군님, 모든 신령님들, 대왕마마 들으소서…여기 동짓달 아호레 태어난 장씨 대주 전생 후생 밝히소서…。』
곰보만신의 가락에 얹힌 음률은 금명 굿거리 장단으로 넘어가며 숨이 넘어갈것 같았다。곰보만신은 계속 쌀을 흩었다。모은 쌀을 한 두톨 앞이빨로 깨물며 중얼거렸다。
눈을 지그시 감았다。화장기 없는 얼굴 본바닥은 고와 보였다。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며 지켜보고 있었지만 주절거리는 입은 쉬지 않았다。
『어이 어이, 어찌할거나。우리 대주님 부모 후덕 없고나아… 초년 고생, 자수성가 했고나아… 만경창파 헤치고 귀인을 얻었고나아… 죽을 고비 두번 넘기고도 질기게 살았고나아…한번 더 남았고나아… 어호 어호 불쌍토다 우리 대주님… 전생에 무슨 죄를 졌다고 이러시나아… 대왕마마 들으소서, 신령님네들 들으소서, 우리 대주님 앞길 밝혀주소서어…。』

어깨춤 추던 민족이지 한스레 살아온 민족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무당 한테 신수보고 올라 가십시요

서른 다섯살의 과부가 제법 소리를 익힌듯 주절주절 청을 늘어놓았다。이십여분 동안 나는 꿈쩍도 않고 지켜보았다。
점사가 끝나자 곰보만신은 땀을 닦았다。복채로 놓은 이천원이 너무 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천원을 더 놓았다。곰보만신이 씨익 웃었다。
『신령님네들, 대왕마마 모두 들으소서어…우리 장씨 대주님 후생 밝히소서어…맺힌 한 푸시고 몸 성하게 돌보소서어…하나님 믿으시고 엽떡을 쌓으소서어…지병 앗아가시고 심신이 편토록 살펴주소서어…。』
재용이 말대로 곰보만신은 해방논리가 있었다。절이든 교회든 열심히 믿어 신심을 가지면 누구나 복을 받는다며 신심을 강조하는 무당이었다。
아들의 시체를 안고 인(人)다리를 밟아 만신이 되었다는 곰보만신은 내가 올려 놓은 복채가 쑥쓰러울 만큼 축원을 해 주었다。
하나님。이런 무당도 있읍니다。하나님은 하나님 이외의 어떤 섬김도 거부했지요。저 보잘 것 없을 것같은 무당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게 소갈머리가 넓었읍니다。하나님을 가짜로 믿는 사람들처럼 헐레벌떡 벽돌집이나 짓고 종파 싸움이나 하고 자리다툼으로 거들먹거리지 않았읍니다。
무당을 미신이라는 미명 아래 무조전 때려잡은 것은 도대체 하나님의 소갈머리나 이땅의 뭐 좀 안다는 친구들이나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땅의 흐름은 모두 미개한 족속의 미개한 흐름이라고 떠드는 간악한 사학자들의 쓸개는 도대체 어디서 주워온 겁니까?
우리민족은 한 맺힌 민족이 아닙니다。무당이 헛소리나 하는 쓰잘데 없는 족속도 아닙니다。우리 민족은 흥에 겨워 어깨춤을 추던 민족이었지 한이 서려 살아온 민족이 아닙니다。
족바리들이 만든 식민지사관을 그대로 옮겨다 심은 사학자들이야 말로 우리 민족사에 전무후무한 매국노들입니다。
그놈의 늙은 것들은 아직도 정정하게 살아서 젊은 사학자들의 목줄을 쥐고 흔들면서 박사학위라는 미끼로 어눌하게 만들고 있읍니다。
하나님。당신은 압니다。명명백백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신라 중심주의의 사학으로 찬란한 백제문화를 피폐하게 만든 늙은 추물들과 장쾌한 고구려 정신을 조악스럽게 만든 게다짜 밑이나 핥을 추물들이 아직도 살아서 꾸물대고 있는 이 현실을 말입니다。
날 잡아잡수 하고 다리 뻗고 놉지 마시고 내려와서 우리나라 무당한테 신수나 한번 보고 올라가십쇼。
장구머리와 연목부리와 굴도리가 정연한 한옥집 앞에 섰다。개판과 구리대의 금단청이 빼어나 보이는 집이었다。파란 페인트 글씨의 청대문집이란 간판이 가로로 걸려 있었다。
지하실 계단을 지나 신당으로 들어섰다。꽤 웅장하고 풍치가 나는 규모였다。놋향로가 방 한가운데 놓여있고 그 좌우에 작은 향로들이 놓여서 있었다。놋촛대와 제기들이 청동 특유의 빛살을 뿜고 있었다。징, 시전, 향합, 바라가 놓여선 신당옆엔 깃털 달린 붉은 갓과 대감벙거지가 놓여 있었고 그 뒤엔 열두마지와 세필의 정교한 붓끝을 연상케하는 화분(불교에서는 탱화라고한다)이 걸려 있었다。신령님이 운집해 있다는 명두가 여러개 자리 잡은 벽에 월두창검、삼지창、대신칼、오방기가 꽂혀 있고 그 아래에 정통 무당들이 쓰던 매물이 주욱 진열되어 있었다。
이곳이 장안 귀신을 쩌렁쩌렁 때리고 논다는 박수무당집이었다。
아랫목엔 청남색의 보료와 방침과 안석의자가 있어서 마치 궁궐을 연상케하는 분위기였다。
박수무당이 자리잡고 앉아 붉은 융단을 바닥에 깔았다。점상을 놓고 촛불을 밝혔다。호족반인데 손때가 곱게 붙어서 반질거렸다。찹쌀이 되가웃 좀 되게 호족반 위에 부어졌다。
『생년월일과 시를 대주세요。』
청아한 목소리였다。어찌보면 고운 여자 목청같기도 했다。
박수무당이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미소년같은 살결과 준수한 용모였다。금이빨의 빛나는 반사가 없다면 손색없는 미남 배우의 모습이었다。
『복채요。』
잔잔한 목소리였다。
『얼맙니까?』
나는 주춤거리며 물었다。꾸밈새가 보통이 아니어서 복채가 상당히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천원입니다。』
나는 돈을 꺼내 점상 위에 얹었다。박수무당이 나를 노려보듯 훑어보았다。나도 지지않고 마주 노려보았다。미남이었다。사내치고는 너무 고운 이목구비였다。여자수난이 많았겠다 싶었다。
찹쌀을 쓸어모았다가 흩뿌리고 또 쓸어모으는 것을 반복하다가 무릎을 쳤다。가날프고 애절한 목소리였다。
『우리 대주 사줍니다。』
점상을 약간 옆으로 밀어놓고 그는 이렇게 시작했다。
『초년에 고생이 많았어요。여야홉에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 용케도 넘겼네요。부모님께 물려받은게 없어서 고군분투하셨구요。작년까지 십원 벌면 백원 쓰고 백원 벌면 천원쓰셨네요。올해부터 운수가 대통하여 대세가 불붙어 잡을 수네요。삼재는 꼈는데 복삼재가 껴서 걱정은 없으셔겠고 앞으로 죽을 고비가 두루하지만 신령이 있어서 잘 넘어가긴 하겠읍니다。서른 아홉과 마흔네살에 관운복이 있어요。호패 차셔겠네요。뱀띠여자는 항상 조심하세요。칠팔월에 관재수가 있고 장가는두번 갈 운세로군요。액을 면하면 팔십장수는 하시겠읍니다。힘이 헤프고 인정이 헤퍼서 산넘어 산이요 물건너 물이네요。살이 있어서 사람 몸에 손대는걸 조심하셔야겠고…。』
곱고 청아한 목소리가 유난히 은은했다。쌍꺼풀이 깊게 파인 눈으로 눈웃음을 살살 쳤다。헨말한 여자들이라면 간장이 녹게 생긴 사내였다。
점사가 끝나고 코피 한잔을 내왔다。나를 슬쩍 떠보았다。
『언제나 여복을 차겠읍니까?』
『섭지 않겠수。여자는 많아도 정이 넘치는 데는 하나요、그 여자 사주도 대가 세네요。』
『살이 붙었다고 했는데 사람 건들면 안됩니까?』
『될도 보여요。가급적 사람을 피하세요。이 풍진 세상 살자면 명끈이 길어야지요。』
『나도 점장이가 되고 싶은데 무슨 방법이 없읍니까?』
『나 굶어 죽겠수。』

사람 피하세요, 풍진세상 살라면 명끈이 길어야지요
장가 두번 간다거나 여자조심 하라는건 싫지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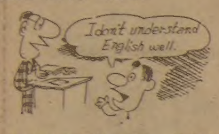
『그러지 말고 좀 알려주십쇼。밑에 와서 배우게 하든가 말입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신이 짚이면 절로 나오는 거지 꾸며대고 만들어 내는 일이 아니니까요。』
『좀 배워주십쇼。』
나는 이렇게 묻고 늘어졌다。박수무당은 손을 흔들며 사기점장이가 되긴 쉬워도 신이 짚이는 무당 되기는 어렵다고 했다。
『뭐러 무당 되려고 이러는 겁니까? 무슨 답답한 사연이라도 있나요?』
박수무당이 내 태도를 진지하게 보았는지 이렇게 물었다。
『이 땅덩어리 전체、이 땅덩어리에 사는 사람들 가슴을 몽땅 파헤쳐 보고 싶어서 그럽니다。도대체 무슨 꿍꿍이가 들어 앉아서 그렇게 아리송한지 알고 싶어서요。』
『모르는 게 약입니다。덮고 사는 게 젤 편하죠。』
『용한 사람은 세상 일 다 알겨 아닙니까?』
『세상 다 알면 뭐하러 이것 합디까?』
『사람이 점 치러 들어오면 뭔가 짚이게 되나요?』
『그럴 때가 있기도 하고 막막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척 봐서 할 애기가 있으면 그 사람은 제대로 보고 가지만 막막하게 막히는 사람은 대충 본 셈이죠。이상해요。어떤 사람은 들어오자마자 내가 막 지껄여요。그런 사람은 백발백중 맞는다고 해요。내가 머뭇거리고 꿍대면 틀린 거죠。』
『점장이는 다 사기꾼이라고 하잖아요。과학을 얼치기로 배운 사람들이 말예요。나도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점이라는 걸 의심하고 있어요。』
『그건 그래요。우리는 뭐가 좋률나게 알아서 하는 건 아니죠。신이 짚이니까 하는 거죠。전통 민속과 무속은 보전돼야 합니다。너무 미신이니 뭐니 해서 없애려고만 했었지요。높은 사람들도、돈이 억수로 많은 사람들도 내가 하는 공수(신이 전해주는 말)를 녹음해가고 그래요。내가 들려봐요。그렇게 하겠어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쉽게 안되잖아요?』
『그것도 맞아요。그러나 사람의 연약한 심성은 과학 가지고 설명안되는 거예요。종교도 그렇잖아요。』
이성이라는 현미경 밑에 놓고 종교를 한번 관찰해봐요。얼마나 터무니 없고 허랑한가。마음을 애기하는 걸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요。그런 걸 보셨는지 모르겠네요。시퍼렇게 선 작두 날 위에서 맨발로 춤추는 무당 말예요。』
『봤읍니다。어려서 여러번 봤어요。너무 신기했죠。지푸라기가 삭둑삭둑 잘려 나가는 그 작두날 위에서 춤추었는데도 자국밖에 안났어요。보통 사람이 그렇게 서기만 하면 삭둑 나갈텐데요。눈 속임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바로 그겁니다。서양 사람들이 마술사의 눈속임을 우리나라 무당들의 신명 받는 장면과 같이 취급하려고 하지요。인도의 요가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은 무슨 눈속임이라고만 생각하니까요。그들이 믿는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미개인이고 말입니다。나는 미국가서도 점 쳐주고 그랬어요。먹고 살만한 사람예요。배고파서 이런 것 하는 건 아녜요。내 생각엔 정통기법의 무속과 민속학적으로 보전될 가치가 많은 무당은 보호하고 개발해야 돼요。』
꽤 유식한 박수무당이었다。나는 그와 두어시간 동안 애기를 나누었다。그는 솔직한 심정을 제법 털어놓기도 했다。
매년 전국의 무당이 한자리에 모여 경신(敬神)대회를 갖는다。전국의 무당은 그 대회에서 기량을 겨루어 등수를 매기기도 한다。청대문집 박수무당은 그런 대회에서 몇년째 1등을 차지한 정통 박수무당이었다。
벽장 속에 가득찬 경찰서 발행의 감사패와 공로표창은 미궁에 빠진 사건을 해결해 주고 받은 것이었다。그는 그런 것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다。과학수사라고 애기하는 현대에 무당의 힘을 빌지 않으면 안되는 그 신명은 과연 무엇일까? 사업가나 정치가들이 현대문명의 첨단에 서 있는 생활을 하면서 박수무당의 점괘를 믿으며 그의 공수를 받아가는 이면은 어떤 것일까?
밖으로 나왔다。무당들의 애기가 귓가를 맴돌았다。내 몸에 살이 있으니 남에게 손을 대면 큰 일이 난다는 애기며 죽을 고비가 많으니 액땜을 하라는 것들은 영 개운치 않았다。
장가 두번 간다거나 여자를 조심하라는건 왜 그런지 싫지 않았다。나는 어려서부터 장가를 두번 쯤은 가게 될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해왔었다。
가마가 둘이면 장가 두번 가게된다는 것이었다。어렸을때 동네 어른들은 내 머리통을 가리키며 이 녀석은 장가 두번 가게 생겼다는 말을 했다。
우리 어머니는 외가에 가서 숟가락을 훔쳐왔다고 언젠가 내게 애기했다。장가 두번 가는 액을 면하려면 외가에 가서 수저를 훔쳐오는게 상책이라는 민간신앙을 어머니는 실천한 셈이었다。
나는 우리 어머니가 무엇이든、어떤 숭고한 목적에서든 남의 물건을 훔쳐왔다는걸 알았을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른다。장가 두번 가는게 그렇게도 나쁜것인지 모르면서의 일이었다。꼬마들과 신랑、각시놀이를 할때마다 나는 색시를 여러명씩 거느렸었다。다른 놀이를 하면 내버려 두던 어머니도 그런 놀이만 하면 내 동작을 때려주곤 했었다。
아버지가 서울 색시에게 반해서 어머니를 내팽개치고 다닌다는 걸 나는 모르고 있었다。그것이 어머니의 한이었기때문에 나만은 그렇게 키우지 않을 작정이었는지 모른다。
평소에 나는 점장이를 믿지 않았다。그런데 지금은 야릇한 기분이었다。좋은 애기를 믿고 싶었고 나쁜 애기는 미신이라는 너울을 씌워 붙실하고 싶었다。그런데도 좋은 애기보다 나쁜 애기가 강렬하게 내 뒤를 좇아다녔다。
하나님。점이 없어질 수 있는 딱 한가지 방법이 있읍니다。그것은 이 세상사람을 다시 예덴 동산으로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제발 모든 사람을 태어나기만 하면 행복하게 해버릴수 없읍니까? 화끈하게 봐주쇼。
〈다음호에 계속〉

新民과여행자를위한 생활英語

담당 민병철
【美 시카고 영어연구원장】

I DON'T UNDERSTAND ENGLISH WELL.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어학연수차 LA에 온 어느 한국대학생에게 하루는 ESL담당 미국인교수가 강의가 끝난후에 이렇게 물었다. How do you like your classes? (수업이 어때요)。이말은 이해를했으나 「교수의 강의를 잘 알아듣질 못했다」는 말을 My hearing is bad라고 대답 하였다。
그러자 교수가 Did you go see a doctor? (의사한테 가보았어요?)라고 묻게 되었다。수업에 대한 이야기도중 갑자기 doctor란 단어가 튀어나오자 I'm not sick. (아프지 않아요) 라고 대답, 두사람 사이의 대화는 끊기게 되었다。



영어를 공부하는 분들, 심지어는 영어를 가르치는 분들도 「영어를듣는 힘이 약하다」를 히어링이 안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학생도 그것을 그대로 영어로 옮겨서 말했던 것이다。My hearing is bad란 문장은 미국인이 들었을 경우에는 귀에 이상이 생겨서 「소리를 못듣는다」는 말이다。
이런경우는 I don't understand English well. 이라고 해야된다。
이와같이 우리말식영어때문에 미국인과 통하지않는 사례는 너무나 많이 있다。영어회화를 쉽게 터득할수있는 방법중의 하나는 그나라말로 생각하는힘 (Think in English) 을 기르는 것이다。

How do you like your classes, Mr. Gim.?
I like them but my hearing is bad.
Oh, you have a hearing problem?
Are you hard of hearing?
No, I can not understand your lecture.
Oh! You meant you have trouble understanding English not that you have a hearing problem.

민병철생활영어
책、카세트、비디오

강의가 어때요, Mr. Gim?
좋습니다만 히어링이 나쁩니다。
귀에 이상이 있나요?
무슨 말씀이시지요?
귀가 잘 안들리나요?
아닙니다。영어실력이 짧아서 교수님의 강의를 못알아 듣겠읍니다。
아! 귀에 이상이 있는것이 아니라 영어 강의를 알아듣기 어렵다는 말이군요。
※You have a hearing problem?: 서술문이지만 회화체에서는 끝만 올려주면 의문문이 된다。
hard of hearing : 귀에 이상이 생겨 잘들리지 않는경우。
예) He's hard of hearing (그는 귀가 어둡다)

구입처:
B. C. MIN
7037 BECKWITH
MORTON GROVE,
ILL. 60053
U. S. A.
전화: (312) 966-4050
책: 제1권(12불) 제2권(12불) 제3권(12불)
카세트: 1권용(33불) 2권용(38불) 3권용(38불)
비디오: BETA(60불). VHS(65불)
※U. S. 마니오더에 한합니다.

大長篇劇

프랑스의 소설가이며 극작가인 알렉상드르·뒤마가 『여사극장(歷史劇場)』의 개관기념을 위해 쓴 신작 『마르고 여왕』은 저녁6시반에 개막되었는데 최후의 막이 내린 시간은 이튿날 새벽3시였다。물경 8시간반에 걸친 대장편극이었는데 그의 대표작 「몽테·크리스트」를 완전히 상연하려면 무려 3일밤을 소비해야만 했다。

얘기의 샘

作家란?

미국의 작가 윌리엄·포크너에게 어떤 친구가 『작가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포크너왈 『작가란 것은 마치 넝마주이와 같은거지。자기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용하거든。게다가 도덕심이란게 없어서 다정한 친구가 구상한것까지 슬쩍하고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작자들이지。』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 2361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頂上의 신문 한국일보

앙케트 사랑의「매」는 必要한가?

千마디 말보다 敎育효과 클수도

학생·교사·학부모들 否定보다 긍정적 태도보여

◇존경받는 스승의 교육적인 사랑의 매라면 학생들은 마다 않는다.

「선생의 매」는 필요한 것인가? 교육을 위한 사랑의 매라면 얼마든지 감수하겠다는 학생도 있고 어떤 형편이든 체벌(體罰)은 삼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 입장은 학부모나 교사들간에도 엇갈린다. 올바른 사람을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는 사랑의 매, 학생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또 사랑의 매에 대한 학부모나 교사의 의견은 어떤가?

T고교 각학년서 1학급씩 골라 샘플조사
응답자 백76명중 안맞아본사람 1명도없어

서울에 있는 T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사의 매에 관한 설문조사를 해보았다.

1·2·3 각 학년중 한학급씩을 골라 1백76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조사결과 고교에 들어와 선생의 매를 한번도 맞아보지 않았다는 학생은 한사람도 없었다.

그것도 5번이상 맞아보았다는 학생이 1백44명으로 조사대상 전체학생의 81·8%나 되었고 2~4번 맞아보았다는 학생이 24명(13·6%), 한번밖에 안맞았다는 학생은 8명(4·6%)뿐이었다.

남자고등학생 모두가 매를 맞고 있으며 매의 횟수도 잦은것으로 밝혀졌다.

또 교사로부터 매를 맞은데 대해 전체학생중 94명(53·4%)이 매를 맞을 짓을 했기때문에 맞았다고 선생의 매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별로 잘못한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맞았다는 경우는 16명(9%)뿐.

그러나 80명(45·5%)이 꼭 매를 들것이 아니라 훈계 정도로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매를 맞게된 동기는 주로 숙제를 안해 왔거나 수업시간에 떠들거나 복장위반등 때문.

그중엔 성적이 나쁘거나 떨어졌다 해서 맞은 학생도 많았다.

무엇으로 맞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몽둥이로 맞은 경험이 있는 학생이 1백25명(71%)으로 가장 많았고 막대기가 77명(43·8%), 손바닥이 75명(42·6%).

그외에 회초리(41명), 주먹(34명), 발길질(29명)등으로 남자고교 학생들에대한 매질이 꽤나 매운것으로 나타났다.

의자로 맞았다는 학생도 4~5명이나 있었다. 아마 꽤나 난폭한 교사도 있는 모양이다.

그러면 학생들은 주로 어디를 맞고 있는걸까?

이 조사에 의하면 남고학생들은 주로 엉덩이, 손바닥, 종아리, 빰의 순으로 맞고있었다.

그런데 고2의 한 학생은 『선생들로부터 매를 수도없이 맞아 보았다』고 실토하고 있다.

매도 몽둥이, 막대기, 회초리, 주먹, 발길질 할것 없이 실로 다양했고 맞은 부위도 엉덩이, 빰, 머리, 종아리등 설문항목 전부에 동그라미를 표해 놓았다.

그리고 기타란에는 『선생의 매질은 순서없이 들어왔다』고 표현하고 『거시기(남성의 주요부분)까지 채여 혼났다』고 실토하고 있다.

수없이 그리고 다양하게 매를 맞은것으로 보아 상당히 문제학생인것 같은데도 『이렇게 맞아야할 이유는 하나도 없었다』고 딱 잡아떼고 사랑의 매이든 무엇이든 매질은 무조건 안해야 되며 말(훈계)로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었다.

나쁜짓은 골라 하면서 매타면 질색을 하는 엉뚱한 학생 같았다.

매를 맞고 난뒤의 학생들의 심경은 자기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게 되었다는 학생이 91명(51·7%)이나 되었고 매를 맞은후 때린 교사를 존경하게 되었다는 학생도 12명(6·8%)이 있었다.

배우고 있는 학생으로서 선생의 매를 교육적인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흐뭇한 일이다.

그러나 그중에는 때린 선생이 미워졌다는 학생도 상당수를 차지했고 잘때리는 선생이 무섭다는 학생도 더러 있어, 언짢은 생각도 없지않았다.

사랑의 매에 대해 학생들은 그리 큰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것 같았다.

1백1명(57·4%)의 학생이 선생의 매는 좋을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고 어중간한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사랑의 매는 잘못을 깨닫게 하고 학업에 열중하라는 채찍질로 보기때문에 필요한 것이라고 뚜렷한 주견을 강조한 학생도 45명(25·6%)이나 되었다.

또 어떤 경우이든 때려서는 안된다는 학생은 30명(17%).

경우에 따라 매는 필요한 것이라는 방향으로 학생들의 의견은 기울고 있었다.

배우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매가 필요한 것이라면 매를 맞는 입장의 학생들은 어떤 매를 원하고 있는 것일까.

때리는 방법에 대해 1백76명중 1백53명만이 응답했다. 나머지 23명의 학생은 때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학생이다.

매를 때릴 경우 적당한 막대기로 엉덩이를 때려줄것을 원하는 학생이 49명(32·7%)으로 가장 많았고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리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학생은 35명(22·9%), 막대기로 손바닥을 때리는것이 괜찮다는 경우는 31명(20·3%).

사내들이니까 엉덩이를 좀 맞는다해서 크게 흉될것이 없겠고 회초리로 종아리를 맞는것은 예부터 이어져온 전통이므로 허물될것이 없다는 얘기인것 같다.

그러면 여느정도 맞는것을 학생들은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이 설문에는 1백50명만 응답했다. 나머지는 맞지 않아야 하는 학생들이므로 매의 횟수에 응답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매의 횟수는 3번이 적당하다는 학생이 61명(40·7%)으로 가장 많았고 1번은 50명(33·3%), 2회는 33명(22%).

5번이상을 주장한 학생도 13명(8·6%)이나 되었는데 4번을 때려야 된다는 학생은 단 3명뿐. 죽을 사자라는 미신을 의식, 4번은 싫은 것 같다.

매대신 이마에 키스를 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짓궂은 농담을 한 학생도 있었고 엉덩이에 매를 살짝 갖다 대는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수 있다는 기발한 주장도 있었다.

아무리 사랑의 매일지라도 때려서는 안된다는 곳이 많았다.

빰·얼굴·머리를 때리지 말라는 학생이 무려 1백55명(88·1%), 가슴이나 배같은 곳을 건드려도 안된다는 학생도 1백10~1백20명선.

아무리 사내일지라도 얼굴에 손을 대는것은 체면에 관한 문제라는 주장이다.

또 배나 가슴·목등은 인체의 주요부분이므로 가급적 피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남성의 중요한 부분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강력히 주장.

그런데 엉덩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했다. 그 부분을 때려서 안된다는 학생은 12명뿐이었다.

웃음이 절로 나오게 하는 내용도 더러 있었다.

한 학생은 『미팅하다 들켜 혼이 났고 수업중 짤짤이(동전먹기)를 하다 호되게 얻어 터졌는데 어떻게 때린 교사를 원망할수가 있겠느냐』는 것.

어떤 학생은 수업시간에 졸다가 눈에 별이 뒤도록 빰을 되게 맞고는 『그 기분이 실로 뭐 같더라』고 푸념이다.

『선생님이 나를 열심히 쳤지만 아마 때리는 손이 더 아팠을 걸』이라는 한 학생은 이같은 유머로 자신의 강철같은 체구를 과시.

아뭏든 학생들은 교육적인 사랑의 매를 큰 저항없이 받아들이고는 있으나 『매에는 절대 교사의 개인감정이 섞여 있어서는 안된다』고 이구동성이다.

설 문 내 용

1. 교사로부터 매를 맞은 횟수
   ○없다 ○1번정도 ○2~4번 ○5번이상
2. 매를 맞은 동기
   ○청소뺑소니 ○복장·두발위반 ○불순한 언행 ○숙제안해 ○지각 ○수업태도 불량 ○싸움 ○기물파괴 ○무단결석 ○기타
3. 매를 맞은데 대한 소감
   ○매를 맞을만한 이유가 있었다 ○훈계정도면 충분한데 맞았다 ○억울하게 맞았다
4. 매를 어떻게 맞았나
   ○회초리 ○막대기 ○몽둥이 ○교사의 손바닥 ○주먹 ○발길질
5. 매를 맞은 부분
   ○종아리 ○손바닥 ○엉덩이 ○빰(얼굴) ○목덜미 ○머리 ○등 ○기타
6. 매를 맞은 뒤의 심경
   ○교사가 미워졌다 ○무서워졌다 ○자기 잘못을 반성하게 되었다 ○때린 교사를 존경하게 되었다
7. 사랑의 매를 어떻게 생각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학업에 열중하라는 채찍질로 생각한다 ○사랑의 매든, 어떤 체벌도 없어야한다 ○매는 좋을때도 있고 안좋을때도 있다
8. 사랑의 매가 필요하다면 그 방법은
   ○종아리를 회초리로 ○종아리를 막대기로 ○엉덩이를 막대기로 ○손바닥을 회초리로 ○손바닥을 막대기로 ○기타
9. 매의 횟수는
   ○1번 ○2번 ○3번 ○4번 ○5번이상
10. 사랑의 매라도 때려선 안될곳
   ○빰(얼굴) ○머리 ○목덜미 ○손바닥 ○가슴 ○배 ○엉덩이 ○기타

선진국서도 아직 교육에한몫
교사 개인감정 섞여선 안돼

고3의 K군은 매에 관련된 그의 경험담을 이렇게 털어 놓는다.

『매를 때리는 선생님이 격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 매를 맞는 학생과 싸움을 하다시피하는 모습은 정말 볼상사나운 일』이라고 비판한다.

그대신 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받고있는 교사가 매를 때릴경우 『그 매가 매우면 매울수록 더욱 더 깊은 반성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문교당국에서는 어떤 형태든 학생들에 대한 체벌(體罰)을 못하도록 각급 교육기관에 지시하고 있다.

정서적인 발육에도 문제가 있지만 우선 부작용과 말썽이 일어 시끄럽기 때문이다.

사실상 학생들에 대한 체벌로 인한 말썽은 최근에도 잇달아 일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한 국민학교 여교사가 반아이를 때렸다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맞은 아이의 어머니로부터 모욕적인 욕과 심한 폭행을 당한 사건도 있었다.

중2년생이 선생의 매를 맞고 음독자살소동을 벌인 일도 있었고 생활지도교사의 매를 맞은 중학생이 가출소동을 벌인 사건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선생의 심한 매질로 국교 5년생이 전신마비증세를 보이며 반신불수가 된 일도 있었다.

그러나 교육을 위한 매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다.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본다.

중2의 남학생 어머니인 申敬子씨(38·은평구갈현동)는 이렇게 말한다.

『옛말에 미운 자식에게 떡하나를 더 주고 귀여운 자식에게 매를 한대 더 때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성장기의 엄한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옳다고 보면 매를 들어서라도 어릴때부터 올바른 길로 바로 잡아 주는것이 좋겠어요.』

그는 『요즘 10대들의 음주·흡연·성범죄등이 늘고 있다는 소리를 들을때 마다 우리 애는 어떤지 하고 두려움이 앞선다』고 실토한다.

체벌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특히 강조하는 고1 여학생과 국교 3학년의 자녀를 둔 한 어머니의 의견을 들어본다.

『교사들의 체벌은 자칫 잘못하면 어린 학생들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줄수도 있어요. 심한 경우는 모욕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인생을 비뚤게 걸어가는 원인이 될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스승의 참된 사랑이 결여된 매라면 도저히 찬성할수가 없어요.』

그 어머니는 자신의 쓰라렸던 학창시절 경험을 들려준다.

그 어머니는 집이 가난해 공납금을 제때에 못내 조회시간에 전교생이 보는 앞에 불려나가야만 했었고 수업파한 뒤에는 벌로 청소를 했다는것.

『어린 시절의 그 상처는 지금도 잊을수가 없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저의 입장을 이해해 주셔야겠어요. 혹시 애들이 풀이 죽어 들어올때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없었나 하고 엄마된 도리로 가슴이 철렁 할때가 한두번이 아니거든요.』

그 어머니는 『내 아이를 때리는것이 싫어서가 아니라 행여 애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체형이나 없는가』하고 우려한다는 것이다.

『저의 경험입니다만 무분별한 교사가 손바닥·주먹·발길질·슬리퍼바닥·빗자루등으로 학생을 사정없이 휘갈기는것을 어떻게 사랑의 매라고 할수 있겠읍니까. 이러한 비교육적인 행위는 교사의 일시적인 감정폭발이나 분풀이·스트레스 해소로 밖에 볼수 없어요.』

"비뚜러지는 原因된다" 일부학부모는 반대
급제한 옛선비는 싸리밭에 큰절했다고도

한 대학생의 얘기다. 그는 요즘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는 「몸으로 때운다」는 말이 통용되고 있다고 전해준다.

선생의 지시나 약속을 어기고는 「몇대 맞으면 그만 아니냐」 또는 「때리면 맞아준다」는 식의 배짱이라는 설명이다.

『선생님의 매가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매를 들기전 충분한 자아반성이 필요한것 같다』고 그는 덧붙인다.

그러나 지금도 국·중·고교 할것 없이 교사의 매는 통용되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자유분방한 美國사회에서도 교사의 매를 학칙으로 정한 곳도 있고 英國의 가정에서는 아직도 전통적인 매가 가정교육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조상들은 매와 함께 살아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당에는 자기가 맞을 매를 준비해 왔고 준비한 매가 부러지지 않으면 부모들이 오히려 서당선생을 섭섭하게 생각했다 한다.

장원급제한 시골선비가 귀향길에 마을어귀의 싸리밭에 정중히 절을 했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다. 싸리로 만든 매를 맞고 형설의 공을 세운 그 선비의 스승은 바로 싸리매이기 때문이다.

교사들의 입장은 어떤지 들어본다.

『체벌이 남용되어서는 안되지만 사랑의 매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인간을 만드는것이 교사의 임무라면 이를 위해 취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 교사는 당연히 매를 들수있다고 봅니다.』

S고교 朴모교사의 주장이다.

『그러나 체벌은 반드시 학생스스로가 잘못을 깨우칠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는 교사가 학생을 위해 매를 든다는것을 학생들이 납득하고 학부모도 이를 인정할때 『그 교사의 회초리 한대는 천마디 말을 대신하는 교육적 효과를 얻을수있다』는 것이다.

매를 반대하는 교사의 입장은 이렇다.

◇모욕적이고 교사의 감정이 곁들인 체벌을 학생들은 질색한다.

『스파르타시대나 우리의 서당교육에서 통하던 가치관과 현재와는 큰 차이가 있잖아요. 매로 반항심과 모독감을 주어 정서를 해치기보다는 꾸준한 대화와 훈계로 타이르는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요?』 T고교 金모 교사의 얘기다.

M고교 李모 교사는 『매를 들지 않는 선생은 교육의 정열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매를 드는 교사는 반드시 교사의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냉정해야 된다는 것이다.

『교사에게 교육의 재량권을 맡긴 이상 지나친 간섭은 곤란한 일』이라는 金교사는 『교사보다 우위에 있는 학부모들이 가끔 지나친 간섭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실토한다.

그는 『콩나물 교실에 점점 영악해져 가는 학생들의 틈바구니에서 수업분위기를 바로잡자면 엄한 매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덧붙인다.

가르침을 받는 당사자인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물론 교사의 입장은 매의 필요성을 거부못하고 있다. 부정적이기 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한마디 짚고 넘어가야 할일은 「스승의 매」는 반드시 「사랑의 매」에 국한되어야만 된다는 것이다.

<金弘祚기자>

生活 길잡이

살림의 지혜

김 오래 보관하는 법

김은 습기를 잘 빨아들이고 일단 습기가 차서 눅으면 원상복귀가 어렵다.

김을 보관할 땐 양철통에 넣더라도 큰 통에 조금 넣으면 습기가 잘 찬다.

먼저 잘 말린 종이를 공자에 채워 넣고 투명은 테이프나 반창고로 꽉 봉하면 습기가 잘 차지 않는다. 김이 많으면 1톳씩 꺼내서 작은 통에 넣어두는 것이 안전하다. 이밖에 김을 보관하는 통을 라디오나 TV위에 올려 놓으면 소량일 경우 습기를 방지할수 있다.

묵은 쌀 냄새 없애기

묵은 쌀로 밥을 지으면 선듯한 냄새가 나기 일쑤. 이 냄새를 없애려면 아침 쌀을 저녁에 미리 씻어내 식초 한 방울을 떨어뜨린 물에 담갔다가 씻어 소쿠리에 담아 물을 빼놓는다. 다음날 아침 다시 미지근한 물로 헹궈 밥을 지으면 햅쌀처럼 맛있게 밥을 지울수 있다.

만두를 붙지 않게 하려면

만두를 미리 빚었다가 한참 놓아두어야 할 경우 아무리 밀가루를 뿌려도 상에 붙어버리는 수가 많다.

이럴땐 상위에 갱지 한장을 깔아 놓고 그위에 밀가루를 뿌려서 만두를 놓는다. 하루 이틀쯤에 상에 붙지 않는다. 이 방법은 칼국수등 다른 밀가루 음식에도 이용할 수 있다.

많은 김 한꺼번에 굽기

기름에 소금을 섞어 고루 김에 바르고 적당한 크기로 썰어 도시락 같은 그릇에 차곡 차곡 담는다. 다음 은근한 불에 김을 담은 도시락을 올려놓고 2~3분 지난다음 뚜껑을 열어보면 곱게 구워져 있다.

도시락째로 아랫목에 묻어두었다가 상에 내면 오래 지나도 금방 구운 것처럼 바삭바삭하다.

해묵은 된장 맛내려면

해묵어 맛이 변한 된장에는 멸치 대가리와 고추씨를 바짝 말려 빻아서 된장속 군데군데 놓아둔다.

1주일쯤 지나 된장 항아리를 들어다보면 색깔도 누르스름해지고 맛도 놀랄 정도로 좋아진다. 고추씨 때문에 약간 매운맛이 돌지만 오히려 그것이 미각을 돋군다.

좋은 파 고르는 법

큰 파는 만져보아 느낌이 부드러우며 겉껍질의 섬유가 가는 것일수록 연하다.

또 눌러보아 살이 단단하고 흰 부분이 많은것이 맛이 있다.

깊이 갈라진 부분이 두껍거나 간간이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이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양념에는 굵은 것보다 가는 것이 좋으며 잎속에 벌레가 들어 있을 염려가 있어 푸른 잎을 먹을때는 잎을 쪼개서 쓴다.

아기에게 약 쉽게먹이기

아기들에게 약을 먹이려면 무척 힘든다. 흔히 코를 꼭 쥐고 입을 벌리게 하는데 이방법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양쪽 빰을 엄지와 중지로 살짝 누르면 입이 쉽게 벌려져 간단히 약을 먹일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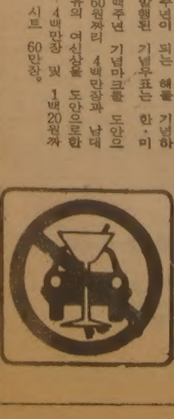
<삽화·韓大雄>

새우표

한·미수교1백주년 기념

체신부는 18일 한·미수교 1백주년 기념우표(사진)를 발행.

우리나라가 미국과 수교를 맺은지 1백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기위해 발행된 기념우표는 한·미수교 1백주년 기념마크를 도안으로 한 60원짜리 4백만장과 남대문과 자유의 여신상을 도안으로한 60원짜리 4백만장 및 1백20원짜리 소형 시트 60만장.



한국인의
화초 도(소)매상
가장 저렴한 가격
전화 : 691-6768
곽 덕열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한국인의 도매상
한 인
연합상사
25-27 Rangemore Rd.
☎ : 251-6578

시설및 수리

"집수리 · 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전화 : 669-5784 Mr. 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전기시설 · 보수
CANCO ELECTRIC CO. 각종 냉동기 에어콘
전화: 270-3118 오 현 구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목수일 합니다.
◉제네랄·콘트랙터 면허취득 ◉각종건축수리및 신축상담
전화 : 249-0003 Mr. 최

식 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수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 (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균

식 품 점

한 발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10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배달도 합니다.
1662 JANE ST. WESTON ONT. 전화: 248-513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삼 복 식 품 주 7일 영업,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서 울 식 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생 선

K & R Sea Food
전화 : 259-1585
▲얼리지 않은 각종 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 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 530-1870
오전 11시~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 류 수 선

의류수선, 가내봉제 상세한 문의 바람
전화: 530-1046 10a.m.~5p.m. 368-7258 6p.m이후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에어콘·히팅·냉장고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화 랑

KIM'S ART GALLERY
각종 유화, 동양화 도매, 각종 Picture Frame
1286 Weston Rd. 전화 : 243-0233

운전학교

오행근운전학교
전화 : 423-3035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69-1960(B), 743-3377 Mr. Eastman

이삿짐및 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 쇄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전화 : 244-2301

크로바인쇄소
3351 Lakeshore Blvd. W.
전화 : 251-9587(B) 252-7491(R) 위 정 남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자동차수리

Midwest Auto Body Shop 전화 : 751-9280
▲완전 바디 숍, 신용본위
▲260 Midwest Rd. Unit 8 (미드랜드×로렌스) 임 종 민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 533-2157

AL'S ESSO Service
Mechanics Repair (All Maker & Model)
Tune-up, Break Repair, Electronic Repair,
Tire & Battery (한국분에게는 염가로 친절봉사해드림)
400 Front St. W.(C.N.Tower 옆)
전화 : 596-6902. Mechanic 최 양호

자동차 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HUMBERVIEW MOTORS
G.M. (시보레·올스모빌)
전화 : (B) 236-1011, (R) 763-1155 손 명철

매매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채 준성: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장 의 사

장 의 사 (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 E. (세파드 써브웨이) ☎ : 221-1159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체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종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영정태권도장
1065 St. Clair Ave. W.
전화 : 652-0000 사범 : 정 영 수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 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페인트 벽지(월페이퍼)

★봄맞이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전화:745-6792(Mr.우)

학 교

씨알한국인학교 (교장 유희자)
전화 : 960-0074

Y어린이학교 (김창열)
전화 : 536-1166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합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안강용한약건재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보약제와 신경통약이 다량 수입되었읍니다.
교민들에게 특별 염가 제공코져 합니다.
전화문의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 (465 DUNDAS W.)
전화 : 596-8407, 596-7373 최 호 권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531-7505 서 춘봉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서 울 한 의 원
한의사 김 장 석
전화 : 1-212-762-4694 (New York, U. S. A.)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전화 : 530-0522 531-4165(R)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B.A.R.I.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BOOK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전화 : 239-6802 이 영 철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484 BLOOR ST. W. TOR.
전화: 537-3171(B), 669-2710(R)

정장우 회계사 (PAUL C. CHENG)중국인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625 Dufferin St. Ste.407 (B)636-3616 (R)690-7153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JUN 7 1982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45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매·도매함
16 Osler St.
☎ : 762-7255, 7256
762-2700

구 인

Baby Sitter (베비 씨터) 구함.
입주하셔서 월 2회 쉬시면서 1살된 아기 돌봐 주실분. 부모님같이 모시겠읍니다.
(월/$600)
전화 : 536-0290

Spray Painter 동업주 구함.
Epoxy Finish 유경험자로
자본 $10,000~$15,000을 투자할수 있는분
자세한 내용은 서면 문의바람.
P.O. Box 3046, Station B,
Rexdale, Ont. M9V 3Z6 Mr. Kim

경험있는 여자자켓 만드실 Full Time 재봉사 구함
(주급 : $220부터~)
전화 : 368-2819 (Mr. Wong)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535-0708 박 명 진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
매일 현찰 지불함.
전화 : 922-3061

입주하셔서 애기 둘(한살반, 네살)
보아 주실분 구함.(Steeles × Bathurst)
전화 : 889-4574(B) 225-7143(R)

식품점에서 일할 젊은이 구함.(40세 미만)
◉정직하고 양심적인 분
◉성실하고 부지런한 분
◉자동차 면허 있는 분
대우는 능력에 따라 우대함. 가급적 직접 내방바람.
삼복식품

직원모집 (운전면허증소유자)
M & J 인터내셔날·비데오 Co.
◉. Operating 직원
◉. 전기 기술자
◉. 비데오·아케이드 매니저
전화 : 630-0313

일요일 가게 Cashier 구함 (유경험자에 한함)
(Kingston × Midland) 전화 : 266-6355

경험있는 미용사(헬퍼) 구합니다.
킴스 미용실 전화: 532-7094

일본음식과 한국음식 만들수 있는분 구함.
538 St.Clair, W. 전화: 654-6609

남자분 가게 Full Time Helper 구함.
전화: 431-0979

Gas Attendant 구함.
전화 : 782-6311

구 혼

결혼상담실 (한국기원 내) 상담자 : 최규찬 김순서
653A BLOOR ST. W. TORONTO. (20부터 60세사이)
전화 : 533-0168 매일오후 1시~10시

본인은 당년 38세의 신체건강하고 생활력있는 독신 남자입니다. 초 재혼 불문하고 여생을 함께 하실 뜻있는 여성을 찾읍니다. Mr. 박
★주소 : P.O. Box 1217 Station B
Weston, Ont. M9L 2W9

매매및 양도

이훈모 부동산 전화 : 225-1204
1) Coffee Shop in Office Building, 렌트: 약 $1200/mon.
주매상: $5000, 주5일영업, 아스킹: $16만
2) Donuts Shop, 현재 주매상: $8,000 리스: 20년
렌트: $3500(옆에 달린 Office포함), 아스킹: $325,000
다운페이: $15만 요구.
3) Fish & Chips in Mall
주매상: $4,000, 아스킹: $130,000
다운페이: $70,000, 주6일영업. 월~금: 10:00a.m.~7:00p.m.
토: 11:00a.m.~5:00p.m.
4) 교회 건물
가격: $319,000 (토론토 동쪽지역)

Copier (복사기)
Model : Mita 500D. (Very Good Condition)
사무실용으로 적합. 전화 : 533-2364 Mrs. 김

세탁소 매매(Depot)
가격: $39,000 (Washing & Dryer 포함)
Rent: $1,100(Four Bed Room 포함)
리스: 3년 + 3년, 주매상: $900~$1,200
전망이 좋음. 465 Vaughan Rd. Toronto.
꼭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토론토 북쪽 새로지은 Mall안에 있는 Fish & Chips Restaurant 팝니다. (Private Sale)
장래성이 대단히 좋음.
전화: 886-3375 6:00p.m.~9:00p.m. (Peter)

House for Sale (Christie & Bloor 지역)
Subway근처, 6년된 새집, 12 Room, 3 Bathrooms
지하실 꾸밈. $119,990 전화 : 534-5985

ALBANY REAL ESTATE LTD.
1) Hotel: Room-45, (8개월간 영업)
Niagara Falls Restaurant (Tavern), Gift Shop
모두 포함. 가격: $700,000
2) Restaurant Tavern: 건물포함, 2 apartments
가격: $295,000, 다운페이: $75,000
3) Burger — Chicken Take out Only;
스카브로 플라자에 있음. 주매상: $4,000
Call Wm Matevich 251-4656

가정 형편상 Fruit & Grocery Store
급매코져함. (Corner Store)
744 Dundas St. W. (Bathurst & Dundas)

75년도 클라이슬러 (Town & Country Wagon)
Certified $1,000 전화: 270-2709

Building for Sale (All Best Offer)
(각종 어떤 업소에도 적당한 건물임) 아스킹: $105,000
982 Pape Ave. 전화: 422-5029 (Mike)

성업중인 Hamburger Franchise Restaurant 급매
꼭 관심있으신 분만 연락, 내방 바람.
Peterborough, Ont. 전화: 1-705-748-9722 (Mr. Kim)

Yonge St. 에 있는 꽃가게 급매
위치: 리치몬드·힐 지역
넓이: 4000 Sq. F.
주인이 이주관계로 적당한 가격에 급매코져 함.
꼭 관심있으신분 영어로 문의바람.
전화: 773-5530 Mr. Grabner.

Full Liquor License가 있는
40석 Family Restaurant 급매
전망이 좋고 이윤이 높음.
꼭 뜻있는 분은 1166 Morningside Ave. at Sheppard로 오셔서 Mrs. Kim을 찾으세요.

공장지대 Office Building 안에 있는 경쟁없는
Donuts Shop, 도너스 만드는 시설이 완비되어 있음.
주매상: $3,500~$4,000
Open: 오전 6:00~오후 6:00
아스킹: $150,000
연락처: 665-0790 Mrs. Lee

Restaurant For Sale (Tavern)
동쪽끝에 좋은 환경에 위치한 식당 급매.
Good Lease(20 Years), Good Terms, 가격 : $350,000, 좌석 : 300
영업시간 : 7:00 a.m~1:00 a.m (Mon.~Fri.)
9:00 a.m~10:00 p.m (Sat.~Sun.)
자세한 내용은 오후 5시이후에 연락바람.
전화 : 284-0304 (Alex)

"Fish & Chips" Fast take out Business for Sale
with option to purchase building.
(빌딩도 겸해서 팔수 있음) 전화 : 828-6103

자개, 문갑, 자개 삼층장 매매
전화 : 661-4581

미국이주관계로 꽃가게 급매. 미시사가 초입 Plaza 안에 있음. 전화: 624-7597 (Mr. Lee)

50mm 스피커 달린
Sound-Projector
전화 : 368-2819 Mr. 왕

피아노 급매.
Chickering Piano(Walnut Wood)
3년된것이나 거의 새것임. Eaton에서 새것 $4,500나감.
가격 : $2,500
전화 : 463-7423 Mrs. Kim 439-1433(R)

6년동안 한주인이 경영했던 성업중인 큰 규모의
Variety Store 매매
넓이: 1700 Sq.ft. 리스: 8년반, Rent: $1,168/mon.
주매상: $7,000이상+로타리오, 아스킹: $93,000+스탁
790 Military Trail(Morningside &Military Trail)
꼭 관심있으신 분의 내방바람.

성업중인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3,000 렌트: $300(Mon.) 리스: 5년
2988 Lakeshore Blvd. W.

---

2 Bed Room 달린 Grocery Store 매매
주매상 : $3,000~3,500
전화 : 694-1912

Kingston Rd.와 Victoria Park Corner에
위치한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전화: 698-0844 언제든지 연락요망.

Milk Store 매매.(여자혼자서 운영할수 있음)
주매상: $3,500 보증, 아스킹: $28,000+스탁
위치: 777 Danforth Rd.

---

3 Bed Room Town Home 매매
Air Conditioning, 실내 Pool장, Sauna,
Ensuite Laundry 구비되어 있음.
Mortgage : 11¾%. 가격 : $62,900
(영×스틸 북쪽)
전화 : 881-9232 5시반 이후 (Mr. Kim)

GOOD BUSINESS OPPORTUNITIES

1) 버라이어티 & 그로서리 스토아
매우 좋은 위치에 있음. 좋고 긴 리스(Lease)
주매상: $8,500 이상. 아스킹: $325,000

2) 서북쪽에 위치한 버라이어티 스토아
2년 되었으며 좋은 조건의 Lease임
주매상: $6,500 이상. 아스킹: $190,000

3) Drive in fast food.
3년간 성업중이며 좋은 조건의 Lease임.
주매상: $4,000 이상. 아스킹: $195,000

4) 도너츠 숍(Shop)
최고의 Lease조건과 좋은 위치에 있음.
주매상: $4,500 이상. 아스킹: $250,000

5) Drive in fast food.
매우 좋은 위치에 있고 최고의 Lease조건
주매상: $10,000이상. 아스킹: $525,000

For more details(상세한 문의는—)
전화: 967-1151 Ben
Benhur Real Estate Ltd.

다른 사업관계로 매우 성업중이며 대단히 바쁜 지역의 꽃가게(Retail) 매매. 주변에
Free Parking도 가능함.
넓이 : 3,650 Sq.ft.
전화 : 1-634-9679 John
(오후 6시 이후 연락바람)

농장매매
토론토 서북쪽에 있는 좋은 환경 속에
여러가지 동물(소, 말, 양 등)을 기를수 있는
100에이커의 농장을 가정사정으로 급매
★자세한 문의는 전화 746-3458
(오전11시에서 오후9시사이에 연락바람)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3,000~$3,500 Rent: $650
리스: 5년 + 5년. 전화: 781-1072

하우스 렌트

방세놓읍니다. (College & Brunswick)
부엌과 목욕탕.출입구 따로 되어있고 혼자서 생활하기에 적합함. (지하실: Mon/$200) 전화: 923-6236

Bloor한인상가 중심부에 위치한 가게 Lease함.
선물센타나 금·은방에 알맞음.
전화 : 481-3677 (Frank)

가게 Rent 합니다.
698 Bloor St. W. (1500 Sq.ft.)
전화 : (B)533-7966, (R)826-5118

Detached Building
버라이어티 또는 도너츠가게를 하기에 최고의 조건을 구비한 건물이며 또한 최고의 리스조건을 갖추고 있음.
넓이: 2,400 Sq.ft. 20여대의 차를 Parking시킬수 있음.
(Airport & Derry Rd.)
전화 : 967-0019 Sam (오전9시부터 오후7시까지)

가 구 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 만 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석빈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도 서 판 매

World Book(백과사전)
☎ : 533-2364(Mrs. 김)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 용

ANNIE'S BEAUTY CARE CENTER
Skin Care, Ear Piercing, Fashion Make up.
각종 미용상담에, 관해 전화문의도 받읍니다.
6093 Yonge St.(영 × 휜치)
전화 : 223-7884 Mrs. Lee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서울여행사 이층
전화 : 588-1480(B), 243-8026(R)

SALON YOUNG (블루어×로얄욕) 남·녀 컷 & 파마전문
3074 Bloor St. W. 전화 : 231-4285
월요일 휴업

레이몬드미용실 (수잔: 한국인)
• 남·녀 컷, 파마전문
•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백 화 점

미 도 파
454 BLOOR ST. W. 전화 : 536-1692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보 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사무용구및 계산기

SKY WAY Business Machines
215 Carlingview Dr. Unit 109 Rexdale
전화 : 675-1295 김 인환

사 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새 한 칼 라 현 상 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
COMMERCIAL · ART PHOTOS · WEDDINGS VIDEO 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3시30분~오후9시30분

Peter's Photography.
광고, 결혼식사진 전문. 전화: 270-2709

선물 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빅 · 세 븐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MISTER O FOR MEN
전화 : 964-2606, 869-0589, 275-2187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스 포 츠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트로피및 상패 50% OFF
GOLF PRO SHOP
영업시간 : 월~금: 10a.m.~8p.m. 토: 10a.m.~6p.m.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시계·귀금속 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 745-1632(R) Mr. 마

악 기 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783-6871(B)
주소 :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전화 : 222-4662 김 수 웅